

#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강 치 영

2002년 7월 일

##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연구

강 치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 전공  
지도 교수 권 상 철

이 연구는 제주문학 속에 나타나는 장소와 공간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문학 속의 시인들에 의하여 나타난 제주표면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생각을 추적한다. 왜냐하면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들의 거주지로서의 장소와 공간이 꾸준하게 상호 작용한다. 그리고 '장소'와 '공간'이라는 개념은 또한 제주를 느끼고, 관찰하고, 질문을 하고, 생각해보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은 제주를 제외한 다른 문화와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좀 더 의미 있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학적 기제를 사용하여 제주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정서적인 정신적 상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대표적인 공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공간이다. 자연공간에 놓여있는 것들은 바다, 섬, 산이라는 자연적 요소가 있는 공간이다. 제주의 입지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섬으로 위치하고 있는 제주는 고립, 격리, 변방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입지이다. 제주 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에 그려진 그들의 이미지는 섬, 바람, 바다, 산, 오름, 이어도, 한라산 등으로 상징되어있다. 시인들이 공간과 장소를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간은 장소보다 훨씬 추상적이다. 시인들은 삶의 사실을 다른 분야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식인 내면의 눈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장소와 공간을 나타내는 개념적 틀을 전시하기 위하여 시인들은 작품 내에서 인간적인 통찰을 사용한다. 그들의 표현하는 언어는 복잡하고 종종 상반된 감정의 이미지로 장소와 공간을 해석한다는 것을 독자는 이해하여야 한다. 제주문학 속의 시인들은 제주를 바다 위로 솟아오른 육지로 본다. 바다 아래에 숨겨진 넓은 공간을 암시하면서 표면으로 들어 난 일부로 간주한다. 그들은 바라보는 장소를 생각한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산에서 바다로 불어 가는 바람, 밤낮으로 바뀌어 부는 바람을 통하여 인간의 내부에서 부는 바람을 상상하게 한다. 시인들은 배를 띄워 어디론가 흘러간 존재로서의 인간을 그린다. 동시에 정박향으로서의 흔들림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 제주를 그린다.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둘째, 제주의 역사공간이다. 역사적으로 해석되는 공간이다. 장소란 역사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언제나 달리 해석되는 곳이다. 최근 들어 제주의 입지는 방문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고 있다. 문학 속에서의 제주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 배경 혹은 경관으로서의 제주는 바람, 돌, 여자가 많은 곳이다. 자연환경의 조화로움으로 시인들은 제주의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4.3과 잦은 폭동을 통하여 그들은 제주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지속 발전 가능한 제주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의 역사 공간에는 빼앗기는 자와 빼앗는 자, 쫓겨나는 자와 내쫓는 자, 떠나려는 자와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역사 공간 속의 제주문학에는 개인의 아픔이 담아낸 풀 한 포기, 바람 한 자락에 담긴 섬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민중의 아픔으로 소리치고 있다. 바람 불 때마다 바람의 몸짓으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제주사람들이 단절 없이 엮어야 할 이야기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역사 공간 속의 제주문학에는 개인의 아픔이 담아낸 풀 한 포기, 바람 한 자락에 담긴 섬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민중의 아픔으로 소리치고 있다. 바람 불 때마다 바람의 몸짓으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미래의 제주 사람들에게 단절 없이 엮어져야 할 이야기임을 말해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보금자리인 자신들의 터에서 견고하게 그들의 섬처럼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셋째, 제주의 예술공간이다. 이 장은 제주의 장소와 공간에 대하여 예술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으면 외지인들과 다른 제주사람들의 경험양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을 연구하는 일은 지리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를 일상 생활에서 자극할 수 있고 일상의 연구를 위한 기초를 놓는 튼튼한 이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술작품을 통하여 사람과 일상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잘 이해하고 조직할 수 있다. 그들은 오직 제주가 지니고 있는 각각의 장소가 드러내고 있는 개성을 찾아낸다.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많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다.

장소와 공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주체가 된 개념이다.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가장 뚜렷하게 이미지 된 것은 회화이다. 거리감 속에 표현된 경험이 구체화된 공간이다. 감정의 대상으로 뽑힌 것은 까마귀, 팽나무, 세한도, 성난 황소이다.

넷째, 제주의 생활공간이다. 여기에서는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제주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을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소와 공간을 묶었다. 제주의 생활공간은 장소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다.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자연 환경을 변경하고 확장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조절하지만, 특히 자신의 생활공간을 조절하면서 변통해온 제주의 해녀와 어부들이 있다. 그들은 마치 농부들이 자연자원을-토양, 물, 태양-을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기 위해 이용하듯이 바다를 경작한다.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바다의 공간과 장소는 생식, 휴식, 물, 식생활과 같은 생물적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중심이 되는 장소와 공간보다 더 중요한 곳으로 나타난다. 바다는

그들에게는 이전 세대에서부터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더 나아가서, 제주 사람들은 또한 자신을 바다를 건너야 하는 존재와 같은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생활 공간을 대한다. 바다는 보제기와 잠녀들이 생활공간이다. 테우와 태왁은 생활을 헤쳐나간 대표적인 도구이다. 제주 사람들은 거대한 자연을 자신의 몸으로 적응한다. 자신이 만들어낸 공간은 아이들의 꿈을 성장하는 장소이다. 제주사람들은 미래에 아이들이 바다 너머, 열림과 무한의 공간으로 펼쳐나가기를 꿈꾼다. 짧게 말하자면, 시인들은 그들의 시에서 제주는 대양을 넘어선 무한과 열림의 느낌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제주의 미래공간이다.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종종 환경이 사람들의 생활의 경로를 변경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섬을 육지로 만들기도 하지만 섬은 섬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다. 유아들의 최초의 탐험공간이 그들의 부모가 되는 것처럼 제주인의 찾고자 하는 미래의 공간도 최초로 형성된 제주가 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가서 살고 싶은 제주를 보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이 있는 곳, 바람과 돌이 사랑스러운 요소로 자리잡아 있는 선조의 삶이 전해지는 곳, 그리고 제주는 제주다운 곳으로 자랑스럽게 서고자하는 끊임없는 고민과 애정이 깃들여진 곳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의미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곳이다.

이 연구와 같은 더욱 친밀한 정체감을 가지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바람과 돌과 바다 등이 제주를 구성하는 환경 요소인 것처럼, 제주라는 장소의 감각을 자라게 하는 나무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제주 문학 속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친숙한 말인 '장소'와 '공간'에 대한 좀더 일관된 진술을 하기 위한 시도이다.

#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범위	7
3 선행 연구	9
4 연구의 한계	10
II. 제주문학 작품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12
1 섬과 바다의 공간	14
2 섬 안의 대륙	20
3 섬의 역사	30
4 43의 현장	36
5 까마귀와 팽나무	44
6 추사적거지와 이중섭의 거리	50
7 바다 -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그들의 땅으로	56
8 숨비소리가 들리는 곳	66
9 가서 살고 싶은 곳, 제주	76
III. 결 론	83
참고 문헌	86
부록: 제주문학작품과 작품 속에 등장한 중심시어	90
Abstract	109

# I. 서론

## 1. 연구목적

세계 속의 제주로 부상하기 위한 제주의 이미지 창출에 제주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갖은 아이디어를 모색해보는 21세기이다. 명료한 이미지로 제주를 폭 넓게 인상적으로 부각시켜내지 못하는 어려움은 결국은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는 데에 필요한 명료한 특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동시에 제주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제주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인식을 미처 지니지 못한 채로 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땅이 없으면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게는 공기처럼 두발을 딛고 설 대지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또한 제주에 살면서 '제주인'이라고 인식하면서 생활하면서도 정작 '무엇이 제주'이고 '어떤 사람이 제주인'인지에 대한 구조화된 생각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 때때로 이러한 애매 모호한 개념 속의 자신을 '제주'라는 장소와 공간을 통하여 제주인, 즉 나의 설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치 지구의 속은 내가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으로 구조화된 실체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인식이 생명의 경외감을 고양시켜주듯이, 애매 모호한 정서의 틀을 만들어 봄으로써 제주라는 곳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공간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지도 속의 제주를 쉽게 찾기 위하여 방위를 배우고 축척을 이해하고 등고선과 기타의 범례의 해독을 습득하는 것처럼 제주사람으로 제주 공간을 이해하고, 자신의 장소감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한편, 사람들의 대화 속의 '제주'는 '濟州道'와 '濟州島'의 구분이 명료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종종 통용된다. 보통의 외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제주도를 돌, 바람과 여자가 많은 이미지의 장소로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사람들은 삼다도(三多島)라는 이미지로 표현되기에는 완전히 동의 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음이 있음에 주목하고 제주의 장소와 공간을 짚어볼 필요성을 느껴왔다. 때때로 '탐라도'라고도 한 때는 불리어진 시기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제주도’라는 통칭에서 오는 느낌보다 훨씬 무게가 있고 느낌이 보다 크게 다가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스스로 ‘탐라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탐라인’으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일기도 한다. 이를 놓고 일부의 제주인들 사이에는 제주다운 제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싶다는 욕구가 표출된 정서라고 하기도 한다. 즉 제주의 이미지를 갖고자함은 제주지역이 정치 사회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제주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서 미래의 시간대에서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제주인의 눈으로 구상해보고자 한다.

‘탐라도’에서 ‘제주도’로 명칭이 달라진 것처럼 앞으로도 달라져야 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섬’이라는 의미가 생략될 것 같지는 않다. 달리 표현하자면, ‘섬’이라는 특성은 한반도의 다른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리적 특성이고 또한 이 특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곧 제주다운 모습일 것이라는 데 이의(異議)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는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의 한 영역으로 제주라는 곳의 장소와 공간을 문학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문학 작품 속의 묘사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문인들의 감성으로 엮어진 공간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에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의 인문지리학적인 장소와 공간의 특색과 그 범위를 그려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주의 자연지리적 입지와 환경이 본토와는 달리 섬이라는 특수성(particularity)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역지리의 색채를 띤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문학은 인간의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을 찾고 객관화시키기 위한 공식을 찾는 다른 학문과는 달리, 한 인물의 특이한 상황을 조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서, 문학 속의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문학 속의 성격을 찾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한편, 지도 위의 장소는 그곳이 성격을 규명하는 환경과는 떼어서는 생각이 불가능한 것처럼 장소감은 그곳에 있는 인간을 분리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송성대는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에서 ‘지리학이 지리학인 한 결코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리학적 상상력은 늘 환경에서 시작되어 환경에서 끝나다’고 한다.<sup>1)</sup>

<sup>1)</sup>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p. 75.

인지된 삶이 있다면 그것은 인지된 환경을 갖는다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제주문학 속의 공간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의 과정을 통하여, 첫째, 점점 좁아져가고 있는 현재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제주도를 볼 수 있다. 동시에 작품을 통하여 인지하고 고찰된 작품 속에 형성된 공간으로까지 인지 공간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즉, 문학인들로 하여금 장소감을 자극하고 공간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요소를 찾아본다. 그리고 그 요소에서 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관을 그려볼 수 있다. 둘째, 작품 속에 살아있는 시간을 경험함으로써 장소가 갖는 역사를 통하여 제주의 장소와 공간이 미래에도 물려주어야 할 지속적인 곳이 됨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작가의 독자적인 장소 경험을 통하여 그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이 장소와 이루는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고 작품 속의 사람들은 공간을 어떻게 확대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넷째, 작가가 창조한 장소와 공간을 공유하는 한 방법으로서의 예술과 상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주사람들이 생활하는 근거지로서의 장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목적들은 자연환경과 작가의 감정이 결합된 제주문학 작품을 통하여 그 속의 장소에서 독자에게서 성장할 친밀한 공간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작품 속의 공간을 답사하는 일이 독자의 장소에 대한 친밀감이 자아의 정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점차 응색하게 작아지고 있는 제주의 생활공간과 제주다운 특이성(specificity)을 상실해 가는 현대의 삶에서는 찾기 힘들었던 제주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이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발판을 형성해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친밀한 공간을 갖는 일이 자아정체감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랄프의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그는 "장소와 몰장소성(place and placelessness)소속감"에 대하여 설명하며, 현상학의 생활세계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그 장소를 알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감(outsideness)과 그 장소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소속감(insideness)으로 구분하였다. 이 소속감 중에도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없거나 자료 등의 간접자료를 통하여 어떤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간접적 소속감,' 어떤 공간에 모여있는 장소들의 특성 때문에 그 장소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심리적 소

<sup>2)</sup> Relph, Edward(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속감을 가지나 어느 장소에 특별히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형태적 소속감,’ 어떤 장소에 소속감을 느끼지는 않으나 그 장소를 이해하고 친밀감이 더해져 가는 ‘감정이입적 소속감,’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를 사랑하여 지리적 정체성까지 가지는 ‘실재적 소속감’이 있다.’고 논리를 전개하였다.

투안에 의하면, ‘우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깊이 사랑 받는 장소가 반드시 가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장소를 가시화 하는 수단으로는 다른 장소와의 경쟁이나 갈등, 시각적인 탁월함, 그리고 예술, 건축, 의식, 의례의 환기시키는 힘 등이 있다. 인간의 장소는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생생한 실재가 된다. 장소의 정체성은 개인적, 집단적 삶의 열망, 필요, 기능적인 리듬을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취된다.’고 한다.<sup>3)</sup>

그러므로 문학 속의 장소와 공감을 전체의 덩어리에서 분리해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주 문학을 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간접적 소속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자의 정서적 감흥의 정도에 따라서는 감정이입적 소속감이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이러한 의식이 실재적인 소속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 1) 연구방법

땅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땅에 대한 답사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이론적 지식으로 흐르기 쉬운 것처럼 시간, 상황, 경제적 여건,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간접적 소속감을 기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문학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직접 문학 작품을 읽고 장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작품 속의 장소와 공간을 찾기 위하여 경관의 찍힌 사진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즉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캐어내 수 있는 양과 깊이는 현상을 도식화하는 틀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것

<sup>3)</sup> Tuan, Y. F.(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원문은, “In summary, we may say that deeply-loved places are not necessarily visible, either to ourselves or to others. Places can other places, visible prominence, and the evocative power of art, architecture, ceremonials and rites. Human place is achieved by dramatizing the aspirations, needs, and functional rhythms of personal and group life.”

이다. 사진 속의 장소는 혹은 공간은 어디인가? 장소 또는 공간 속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사람은 있는가? 사진 속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가? 를 읽어내려고 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진을 보는 방법이 보아내는 눈을 형성시켜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장면으로 완결이 되는 사진을 많이 보았다. 문학의 갈래로 이야기하면 시를 많이 접하고 시를 이루고 있는 시어를 중심으로 작품의 출현 빈도를 계산하였다. (부록 참조)

단순하게 출현빈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더니 가장 중추를 이루고 있었던 시어들은 “섬, 바다, 산, 돌, 돌담, 바람, 억새꽃, 한라산, 4·3, 유채꽃, 동백꽃, 숨비소리, 수평선, 4월, 이어도, 파도소리, 돌하르방, 테우, 파도, 협죽도, 성산포, 5월, 하늘, 어머니, 보리, 테왁, 새, 꽃, 해녀” 등이 작품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제주의 시(詩) 영역에서 탁월하게 뽑히는 시어들 중에는 자연소재를 능가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시인들이 단순히 시적 소재의 대상으로 인해 무르익은 정서를 복잡하고 얽힌 구조를 버리고 즉흥적으로 단순하게 정감만을 표현하는 서정시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가 곧 자연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일차적 특성의 소재를 평면 위에, 프레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더니 그 평면공간은 섬, 바다, 산의 이미지로 현상되었다. 그 섬의 공간 속으로 가서 무엇이 놓여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놓여진 것들을 보게되고 알게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따라가 본다.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의 생활공간은 무엇으로 채워놓고자 했는지를 느껴보고자 한다. 이후로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 건축으로 형상화되어 자신들의 삶의 시간적 한계선을 넘고자 하였는가’라는 흔적의 부스러기를 찾아 복원을 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나와 동시대의 제주 사람들은 이런 맥락의 생각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공간탐방에 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수평적 공간을 배경으로 나타난 수직적 공간이 형성된 섬을 이미지에서 시작한다. 바다 평원 위에 놓인 섬으로 존재하는 산(山), 그 산 속의 골과 곁을 넘나들면서 오르는 길과 내리는 길이 모두, 섬 안에서 섬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자 길을 떠난다. 산을 찾기 위하여 바다를 통과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 우선 바다를 보아야 했다. 탁 트인 바다와는 달리 물결처럼 굽이쳐 멈춘 것 같은 땅의 모습은 또한 내어 디딘 걸음걸음마다 돌맹이가 채일 것처럼 돌을 품고있다. 지천에 흐드러진 돌맹이, 돌담, 돌하르방, 산담. 돌맹이 사이사이로 오

가는 바람, 바람이 있는 곳마다 느껴지는 여자들의 땀과 몸부림. 그 여자들의 삶 속에 전해 내려오는 영등할망 전설, 바람이 들녘을 찾을 때마다 귀를 가진 사람들을 붙들려 흔들리는 몸짓으로 서 있는 억새꽃, 수직으로 선 이야기를 담은 하얀 꽃이 바람에게 하소연하는 곳에 언 듯, 땅 속의 층 층으로 뻗은 골 깊은 뿌리를 한 팽나무에 까마귀 한 마리. 팽나무를 울타리 마냥 차지하고 있는 추사의 집과 이중섭의 거리.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밤바다로 떠나고 있었다, 그들의 땅을 찾아서. 아들에게 할아버지 영혼이 살아있는 바다를 얘기하며 삶을 위한 땅을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떠나는 바다, 생명을 잉태하고 가꿔야하는 여인들이 숨가쁘게 뿔어낸 숨비소리가 스며드는 바닷물의 결 사이사이. 새로운 공간을 꿈꾸며 이어도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살고 싶은 곳, 제주임을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해발을 달리하면서 피는 숨비기꽃, 솜양지꽃, 수선, 돌매화들이 함께 어우러진 곳을 스쳐 지나는 문인들의 가슴이 되어 그 공간들을 찾아가 보고자 한다. 그 문학공간 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제주도 특성을 대표하고 있는 요소, 문학적 기교로 처리된 자연지리적 사실 혹은 인문 지리적 패러다임, 제주 사람들이 잃어버린 정서이거나 작품 속에서 생활하는 인물이 행동하는 자취를 따라가 보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문학 속의 나타난 장소와 공간을 분류함에 있어서 중심시어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분류와 순서가 될 것이다. 시어가 던져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제주의 공간을 보고 공간 속의 장소를 보았다.

첫째, 자연공간으로서의 제주이다.

1. 섬과 바다의 공간: 섬, 바람, 바다, 산, 이어도, 백록담을 품고 있는 공간
2. 섬 안의 대륙: 석다(石多), 풍다(風多), 여다(女多), 돌하르방, 건천(乾川), 고팡둘째, 역사공간으로 인식되는 제주도이다.
3. 섬의 역사 : 영등할망, 땅울림, 이재수
4. 4·3의 현장: 무등이왓, 억새꽃

셋째, 예술공간으로서의 제주섬의 재구성된 모습이다.

5. 까마귀와 팽나무: 비새[悲鳥], 한 노파
6. 추사적거지와 이중섭의 거리

넷째, 생활공간으로서의 제주사람들의 땅이다.

7. 바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그들의 티전 바다로
8. 숨비소리가 들리는 곳: 물결 속

다섯째, 미래공간으로서 문학인들이 갖고있는 공간이다.

## 9. 가서 살고 싶은 곳, 제주

위와 같은 구분으로 작품을 정리함에 있어서 플롯을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발전되는 특성이 아니라 단순히 스냅사진을 펼쳐두고 사진의 소프트웨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작품 속의 텍스트를 갈무리하였다.

사진 속에 찍히지 않은 사람이 사진을 보는 경우에, 어떤 감흥을 일으키려면 사진을 위한 테크닉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하거나 사진이 갖는 기록적 역사 현장과 같은 침예한 의식이 그 몫을 해낼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일상의 경관이 흥미를 자아내기 위해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유도할 수 없는 정서이다. 결국 연구를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정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얻고자 하는 정서가 구체적인 실체로 형상화한다는 생각으로 문학의 숲을 통과하고자 한다.

### 2) 연구범위

문학작품 속에서 제주의 장소와 공간을 찾고자하는 이 연구의 범위는 제주문학이라고 개념 설정이 가능한 작품으로 제한하였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 전형적인 제주도의 정서라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발간한 「제주문학전집 I, II, III」을 선택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그 선집은 나의 연구의 방향의 내용으로 채우기에 적절한 기준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속에 채록된 작품과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듯하다. 선집 밖에서의 문학작품을 살피고자 하는 경우, 작가의 선정과 작품의 선정에 따르는 미숙함을 덜기 위해서 오성찬, 현기영, 현길언, 김영화, 문충성, 강통원 등의 대표적인 제주작가의 정서를 주축으로 문학의 범위를 넓혀 갔다.

문학의 갈래로 볼 때, 주로 시와 수필, 소설 분야에서 머물렀으며 그 외의 시조, 민요, 설화, 민속, 신화 등의 분야는 언급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제주도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데 탁월한 제주어는 표기상의 문제와 표준화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아서 가장 많이 다루고는 싶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비껴갔다. 제주문학의 문헌적 고찰을 하자면 일본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들이 초기의 단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제주관련 연구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그들의 연구를 참고해야 할 것 같았다. 시간적으로 살펴보자면, 한 세대를 앞

선 시간적 공간에서 형성된 장소들은 자아정체감을 이루는 장소라고 말하기보다는 역사적 성격으로 더 기울어지는 듯하여, 부모 세대 주변의 작가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살피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부모가 전해주고자 하는 정서를 생경함 없이 받을 수 있고 생활로 옮겨야하는 부담감이 덜 한 채로 실용적 정서로 연결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하고 어려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단순한 마음으로, 제주에서 생활하는 제주 사람이고, 제주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란 보통의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읽고 어렵지 않게 동감할 수 있는 자연지리적 요소들이 장소들을 찾아서 그 곳에서의 공간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논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는 주로 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문학 작품으로 제한된다. 제주 문학의 범위가 넓고 그 문학인들의 사고와 경험이 탁월하게 깊고 넓은 것이라 그 작품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여 핵심을 추론해 내기에는 개인적인 한계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장소와 그 장소에서 형성되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제주인의 생활공간, 작업 공간, 이념공간, 정서공간 등을 포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발견된 공간들이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정서적 감흥을 일으킬 수 있고 새로운 장소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으로 일관되어 있다. 텍스트 분석의 인용에서는 제주어로 표현된 부분의 원형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자연지리적 특성으로서의 탁월함과 동시에 제주문학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제주전설이 있다. 전설이란 세련된 문학적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별한 기교나 의도가 동원되지도 않은 변두리지역 사람들이 갖는 무의식적 꿈과 삶의 실상을 진솔하게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문학적 한 갈래이다. 제주 전설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섬과 같은 이미지의 주변성이다. 전설의 주인공들은 하나 같이 삶의 중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재를 갖추고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설 속의 사건들은 삶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찌들고 초라하여 살피지 않으면 무시되어 지나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즉,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제로 묶을 수 있는 일거리를 중심에서 다룬다. 제주 전설에는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현실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를 바라는 제주사람들이 가공해낸 문제해결의 기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설 속 주변성의 특성이 시 소설에서도 녹아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제주 문학인들의 심층에도 질게 차지하고 있을 주변성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정하고자한다.

### 3. 선행연구

문학의 눈으로 지리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은 지리인들 사이에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자연과학적인 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보다는 지리적 입지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실용성의 견지에서 공간을 읽는다는 것과 일맥을 이룬다. 이러한 사고에서 발전하여 문학적 사고를 지리에 접목시킨 박태순의 국토순례는 한반도를 온통 아파하고 고민하고 끓어오르는 국토에 대한 열정으로 땅을 답사코자하는 인간주의적 지리인식론을 잘 펴고 있다.<sup>4)</sup> 또한 유흥준처럼 번져 가는 답사는 오락, 소일거리, 부유층의 행색의 하나로 치부되던 여행의 개념을 수직 상승시켜 놓았다. 유흥준의 문화유적답사기와 같은 글<sup>5)</sup>들은 한껏 역사의식이 세련된 사람들의 취향을 자극하고 미적 취향을 고무시킨 성숙한 지리적 의식의 소산물이다. 딱딱하기 쉬운 차가운 땅에 고향이란 귀소본능을 추적한 이은숙의 공간의식<sup>6)</sup>도 문학의 세계에서 묶어본 한국인의 정서이다.

지리산, 낙동강, 태백산, 동강, 영산강..... 한반도 발 길 닿는 곳마다 고산자의 정신으로 삶의 원리를 찾고자 하는 지리인들의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최근 문학을 이용한 지리교육이란 방향도 교실공간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지도법 이다.<sup>7)</sup> 그러나 본격적인 문학지리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연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심승희의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이은숙의 '문학 지리학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이강은의 '빨치산의 문학적 형상화' 등<sup>8)</sup>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장소와 공간에 대한 인식으로 변화를

<sup>4)</sup> 박태순(1983), 「국토와 민중: 박태순 기행」, 한길사.

<sup>5)</sup> 유흥준(1994),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창작과 비평사.

<sup>6)</sup> 이은숙(1993), “문학작품 속에서 도시경관: 채만식의 탁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제5권, pp. 1-27; 이은숙(1995), “조선인 이민의 북간도 정착과정과 공간인지: 안수길의 북간도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제2권, pp. 1-15; 이은숙(1998), “1930년대 북간도 경관에 대한 조선 이민의 공간인지: 박계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0권, pp. 39-54.

<sup>7)</sup> 김종철(1995), 「오름나그네(제주도 기생화산 답사기)」, 높은오름; 정운현(1995), 「서울시내 일제유산 답사기」, 한울; 송기호(1993), 「발해를 찾아서 : 만주, 연해주 답사기」, 도서출판 숲; 박우현(1997), 「나의 유럽문화 답사기」, 파피루스 등.

<sup>8)</sup> 심승희(2001),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3권, pp. 67-84; 이은숙(1992), “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제4

가져온 것으로 학교생활에서 찾아본다면 단연 수학여행이라 하겠다. 지리적 테마를 넣은 답사형식의 기획도 학생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sup>9)</sup>

그러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탁월하게 부각시키면서 문학적 효과를 거둔 문학작품이나 연구들은 많이 접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주 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에 대한 연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제주의 공간연구에 대한 가능성은 제주의 지리적 특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상되고 있는 지금은, 대양에 위치한 섬이란 특성으로 인해 지금껏 소외되고 버려졌던 미미한 곳이란 생각으로부터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변환을 하고 있다. 문학적 눈으로 지리학에서의 장소를 본다는 것은 철철이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음식을 먹고 주거공간을 상황에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유동적 사고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즐거움도 준다.

한편, 제주를 각광받는 관광지의 공간으로 접근하면 더 많은 공간성 연구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깊고 넓어야 할 문헌을 폭 넓게 살펴보는 못하였지만 문학적 공간연구가 상당히 의미 있고 연구할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여서 차후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가 이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 4. 연구의 한계

문학에 나타난 제주도의 공간연구의 바탕은 제주도의 인문지리연구의 제반을 포함한다. 환경연구는 그 범위가 넓고 좁음, 한정적 혹은 구체적인 설정에 따른 장소를 전제로 그려지는 환경이므로 사회 경제적인 생산품들의 이동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것 이외에도 인간의 인식이 미치는 생활공간을 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지리적 연구는 그 어느 것 하나 연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으나 논지에 대한 소견이 짧고 미약하여 손을 댈 수 없었다.

또한 문학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마치 바닷가의 모래를 두 손으로 담아 그를 헤아려보듯이, 밤하늘의 별을 세어 보고자 하듯이 티가 나지 않는

---

호, pp. 147-166; 이강은(1988), “빨치산의 문학적 형상화,” 「실천문학」, 제12권, pp. 443-451.

<sup>9)</sup> 히로시, 도도로키(2000), 「(일본인의) 영남대로 답사기 : 옛지도 따라 옛길 걷기」, 한울.

일임에 틀림이 없었으나 문학적 공간과 지리적 장소와 공간과의 일치하는 곳이 있으리란 생각으로 정리를 해본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생각은 실제에 있어서 과학적 인식보다는 감정의 실마리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하는 문학인의 사고에 일정한 틀을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문학인의 주제가 지리적 의식을 가지고 풀어서 선 문학작품을 선정하지 않고서 문학을 지리로 읊기는 것 자체가 창작보다 더 번거로운 기존의 원형을 끌고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탁월하지 않고서는 쉽게 넘을 수 없는 고개로 가로막고 있었다. 결국 문학과 지리의 조화로운 합창을 위해서는 지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문학인, 문학적 소양을 갖춘 지리인이 우리의 삶을 더욱 조화롭고 풍요롭게 할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지리적 사고에서 출발한 글쓰기가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하고 문학작품에서 지리적 사고를 한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머리훈련을 해야하는 일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적고싶다.





## Ⅱ. 제주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제주의 장소와 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 될 수 있다. 가시성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즉 제주문학 작품 속의 장소와 공간은 독자의 시선을 끄는 제주 이미지가 회화적으로 설정된 곳이다. 회화적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곳의 장소를 시인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무엇을 보고자 했으며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따라 갈 것이다. 현실 속에 무심히 놓여있는 장소를 그들의 눈을 통하여 독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시작품 속에서 추려낼 수 있는 중심 시어를 중심으로 언어적 이미지 공간을 생각해보았다. 먼저, 한 장의 사진에 나타난 대상물들을 필름에 놓여진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 장소가 만들어내는 임의의 공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가장 많은 경관으로 현상되어진 이미지는 바다, 섬, 산, 땅으로 된 자연공간이 그 첫째 갈래이다. 그들은 자연공간에서 바다가 있는 곳, 섬으로 된 곳, 산이 되어 있는 곳, 사람들의 대지인 장소를 통하여 바다공간과 육지공간의 정서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곧 제주 자연과 환경으로 육화되어 시인과 환경이 일체가 된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버릴 수 없는 시인의 육체처럼 시인의 정서는 다시 제주자연공간을 바다와 섬이 있는 공간의 하위이미지로 구체적인 제주섬의 내부 환경을 모아보았다. 장소 명이 많은 곳의 이미지로 마치 대륙의 어떤 장소처럼 솟아있는 다랑쉬오름, 새별오름, 물장오름, 용머리오름..... 일반적으로 장소의 이름에는 그 곳의 특성을 한 마디로 나타내 주는 지리학적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기본방위를 비롯하여 명명의 유래와 발전의 경로 등이 다양하여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제주의 땅은 온통, 돌멩이와 관련된 이름과 장소와 공간이 태반이다. 그리고 돌이 많은 자연적 환경을 적용해낸 돌하르방, 돌밭, 돌담, 섬팡, 빌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삼다도'라고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제주에 대한 일상적인 개념에 주관적인 느낌을 갖고자 하였다. 섬, 바다, 돌, 바람, 그리고 삶의 터전인 제주 토양에서 오는 삶의 갖가지 면을 문학테스트로 읽어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갈래는 역사공간이다. 제주사람들이 제주에 살아오면서 조상으로부터 전해오고 후손에게 전해질 그 무엇들은 엮어보았다. 설문대할망 전설, 제주의 역사, 빈번했던 민란, 4.3, 관

광계주로 이어지는 흐름을 역사의 공간에 담았다. 장소와 공간에 대한 해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이나 문화적인 변용에 의하여 달라지는 성격을 지녔다. 제주섬의 역사의 흐름에서 4.3의 공간을 따로 묶어서 독립함으로써 4.3이 제주사람들이 정서와 삶에 끼친 영향과 중요성의 크기를 말하고자 하였다. 시인들은 그 곳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장이다. 셋째 갈래는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을 담은 감정의 이미지를 가장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킨 장소를 엮었다. 즉, 문인들이 읽어 내려가는 회화적 예술공간이다. 문자로 나타내어진 제주의 장소와 공간을 회화로 완성한 그림을 읽고 있는 작품으로 ‘까마귀와 팽나무가 한 장소에 등장하는 공간’을 살펴보고 지나가고자 한다. 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와 공간으로서는 추사적거지와 이중섭의 거리를 또 하나의 다른 예술공간으로 넣었다. 그곳에서는 예술공간으로 자리잡은 그 곳이 어떻게 제주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느껴보고자 한다. 자연공간은 직접적으로 제주 사람들의 물리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지만 간접적으로 제주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정서에 감화를 주어진 이념공간을 돌아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흠에서 태어난 사람은 흠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바다를 끼고 자란 사람은 바다를 경험하고 바다라는 공간을 탐색하고자 한다. 수대에 걸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전부가 바다인 사람들의 정서를 통하여 바다가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넷째 갈래인 생활공간에서 묶어보았다. 바다영역이 곧 생존공간인 사람들, 즉 테우리와 해녀이다. 제주의 남성이 중심이 된 생활공간은 좀더 진취적이고 과학적인 기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을 수평적으로 넓히고자 했던 사람들의 터전이다. 여지없이 솟아오른 물 마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빼앗겼지만 그 아들들도 바다로 나아가려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생활의 터로서의 바다의 장소와 공간을 보았다. 한편 격랑의 바다를 피해 출렁이는 물결 속에서 숨을 비우고 수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삶을 캐려했던 여성이 중심이 된 바다공간을 보려고 한다. 물의 사람들에게는 그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삶의 리듬으로 다가오는 밀물과 썰물과의 신비를 온 몸으로 읽어 내면서도 자존 감으로 연결되기에는 어떤 면이 허전한 해녀들의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탄생에서부터 운명 지워진 듯 물을 떠날 수 없었던 여자들에게는 마치 바다 속의 세계가 물질적인 금은보화를 숨기고 있는 장소로 여겨진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바다는 육지에서의 노동보다는 손에 잡혀지는 경제력이

증대되는 곳이다. 수면 위에 떠있는 테왁은 흘러가는 재물을 수확하는 장소 혹은 그 활동으로 여겨진다. 해녀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생활력을 움켜쥐었지만 힘이 더 요구될 때마다 이어도를 찾아 떠나고자 했던 현실의 느낌을 보여준다. 생존하는 것이 곧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생활의 공간에는 한라산의 품안에서 자라고 있는 제주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바다를 보며 바다 너머를 생각하면서 어른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하여 현재의 삶의 공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공간임을 인식해내고자 한다.

모든 장소는 조직된 의미의 세계이다. 즉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은 제주문인들의 '제주라고 곳에 대한 느낌'(sense of place)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제주는 그들의 기억이나 회상 속에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 곳에 있는 그들이 바로 전형적인 제주사람임을 느끼게 한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과거 속의 장소와 공간이 이상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찾아가고픈 제주의 장소와 공간을 전하고 있는 제주문인들의 작품을 다섯째 갈래로 미래공간으로 엮어보았다. 그들의 제주에 대한 장소 감각과 과거의 느낌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종종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다. 다시 말하면, 획일화되고 통합되어 가는 현대생활의 단순함에 저항하면서 과거의 변형되지 않은 始原을 간직한 제주의 장소와 공간을 미래에 제주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상상력의 고뇌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의 하와이가 아닌 세계 속의 제주도로 서 있는 제주에 가서 살고 싶은 문인들의 장소와 공간을 마지막 갈무리로 살펴보았다.

## 1. 섬과 바다의 공간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을 찾기 위하여 펼친 제주시집에서 시인들이 사용한 시어들의 으뜸은 '섬'과 '바다'이다. 즉 섬의 공간은 바다 위에 서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수평적 바탕 면에 수직적 삼각형이 서 있는 형상. 물위에 솟은 땅은 태평양 속의 한라산으로 솟아올랐다. 경관으로서의 제주도의 일차적 특성 또한 섬이다. 섬은 바다에서 보았을 때의 山임과 동시에 陸地로서의 성격을 포함한 영역이다.

섬을 형성하는 바다 역시 섬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濟州島를 만든다. 일

차적 요소만을 가지고 단순히 정서를 노래한 시인들은 서정시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제주시인들은 넘쳐나는 제주가 묻어나는 경관요소를 소재로 제주도를 그리고 있다.

제주시인들은 그들의 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시어로써 ‘섬’을 선택하여 제주의 으뜸인 특성을 섬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바람 부는 섬, 흐르는 섬, 바람꽃 피는 섬, 섬은 아들을 낳고, 파아란 바다 가운데 서 있는 섬, 물들이 들어오는 섬, 환상의 섬, 문주란 섬, 삼다도, 탐라섬, 버려진 섬을 위하여, 그대를 위하여, 섬을 위하여, 푸른 섬 하나, 나는 그래도 섬이 그림다.’

시인들은 제주 섬은 제주 바다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섬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섬을 둘러야 할 바다가 필요했다. 그래서 ‘섬’보다 더 많은 ‘바다’라는 시어를 사용한다. 그들은 제주 바다를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 그리움에 나라에서, 새벽에 바다에 나가면, 내 유년의 갯마을, 가을바다, 아침바다, 먼바다, 저녁바다,’로 육화(肉化)된 바다로 만들었다.

제주 섬 공간을 드나드는 환경요소로 빈도가 높은 것은 ‘바람’이었다. 시인들이 본 바람은 ‘바람을 인정하며, 바다바람, 산바람, 들바람, 솔바람, 저녁바람, 한라의 바람소리, 제주의 바람소리, 바람으로 오는 어떤 신화,’ 등이다. 제주 섬은 바다에 선 제주 산이다. 바다로 솟아오른 땅덩어리가 있는 이 곳을 제주시인들은 ‘먼 산, 앞 산, 한라산에 올라, 휴화산, 산과 마주서서, 한라산 백록담, 어승생 오름, 산그늘, 먼 산 바라보기, ‘등을 통하여 제주사람들의 삶의 정서를 보듬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시인들이 작품에 드러난 구체적 장소로는 ‘송악산, 마라도, 가파도, 섭섬, 문주란 섬, 미악산, 한라산, 제주해협, 성산포, 입석리의 산과 바다, 한라 산정, 세별코지, 우울한 성산포, 오조리의 노래, 내 사랑 서귀포 바다, 마라도 노을, 성산포에서, 대포 해안에서, 강정포구,’ 등이다. 이들은 마치 바람을 타고 와서 바다 안을 흐르다가 한라산 주변에 한 형제들로 서 있는 형상이다. 늘 그리워하는 하늘, 못내 잊지 못하는 한 가지로 난 혈육인 듯이 그렇게 솟아올라 서 있다.

섬은

섬이 그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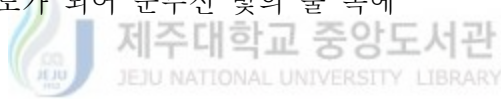
섬을 품고 앉았다

-요지경(瑤池鏡) 신승행-

가파도를 보러 갔다가/ 마라도만 보고 왔다/종로 한복판에서도/ 일렁이는/ 모  
슬포 바다/나 또한/ 작은 섬임을/ 나를 버려야 알았다.//너와 마주 앉으면/ 맑  
은 눈만 보인다/돌아서/ 혼자 걸으면/ 숨소리까지 들린다/너 또한/ 작은 섬임  
을 내가 떠나야 알았다.//

-섬을 떠나야 섬이 보입니다, 고성기-

내 숨구멍은 드디어 삼굼부리처럼  
시원히 내려 앉았다  
아니 시원히 뚫렸다  
뚫린 숨구멍으로  
무수한  
가파도가  
새가 되어  
날아 들고 있었다  
드디어 내가 가파도가 되어 눈부신 빛의 물 속에  
가볍게 누웠다  
이윽고  
가볍게  
솟아올랐다



-가파도, 김여정-

숨빛 안개 사이/봄별이 길게 누웠다.//능선따라 끊어지듯/오솔길 이어지고/벼  
랑 끝/바다로 내려와서/물살에 감겨 돌았다.//바다 속에도 길이 있나니/흐물거  
리는 빛무리/터널 같은 길 속을 파고들었다.//길 따라 흐르고 흘러/ 한 바다 가  
운데/ 오름처럼 일어서는 섬/ 섬들……섬은 다시 산으로 올랐다.

-濟州의 봄, 김용길-

겨울철 白鹿藹에 올라 본 일이 있느냐, 한여름/ 北西壁을 타고 내리던 메아리  
조차 없다/숨쉬는 것이라곤 나 하나. 아니 저승의 바람도 있다/ 바람은 산을 베  
어 넘길 듯/창검을 갈고/ 이승과 저승 사이 메아리아 깊숙이/ 동면의 길이에  
빠졌느냐/석매, 철쭉, 고채목, 설루초……꿈꾸는 내 숲이여/ 일어들 나거라 일어

나거라, 어서/일어나 저 無垢의 하늘이 하얗게 허물어지는 것을/  
 보아라, 내 가슴이 무너져 가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가는 소리에 너희들 가  
 슴을 열어라, 오늘/ 白鹿藹에 와서 耽羅가 열리던/ 처음 噴火口 바윗덩이들 혈  
 떡이는 갈증 소리 듣나니/零下로 얼어붙는 발길에 길은 열리지만/ 진 종일 걸어  
 도 白鹿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 「겨울 白鹿藹」, 문충성-

제주도의 경관은 남도의 들녘에 쌓아놓은 벚단 같은 형세로 길 따라 흐  
 르고 흘러 태평양 가운데서 오름처럼 일어나서 서있다. 오름처럼 일어서는 섬,  
 섬, 섬.....섬과 섬으로 이어지는 섬의 길 끝에는 놓여있는 겨울철 백록담으로 얼  
 어붙은 길. 저승의 바람이 섬을 베어 넘길 듯.....바다의 그 깊이를 가라앉았다가  
 떠오르곤 하는 큰사랑을 헤아리는 위안으로 천만년 세월을 지새울 듯 서 있는  
 한 섬. 파도가 종일 이마를 쓰러준다 하지만 영하로 얼어붙은 발길에도 길을 찾  
 아 오를 수는 있지만, 진종일 걸어도 백록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산길 이였다, 섬  
 에 난 길은.



바닷속 어딘 가로 빠져드는/ 푸른 섬 하나 건져 올리기 위해/ 사람들은 배를 띄  
 운다.//기저기 같은 손을 흔들며/出航하는 아침/파도의 등살에 넘어지던/간밤  
 의 꿈/날개 짓 하던 생선들은/가시그물에 걸려 파닥거린다.//海草에 묻혀/거뭇  
 게 뜨는 물빛/바다는 죽어가고 있다./汚辱의 찌꺼기에 쌓여/처절한 울음을 토해  
 내고 있다.//<이어도>여,/ 너는 어디 있는가/ 나타내어라, 네 모습의 뿌리 한  
 줄/ 내보여라//茫茫大海 어디쯤 잠겨 있는가/ 솟아올라라/ 불끈 솟아올라/ 濟  
 州의 浮漂가 되어 보아라.

-섬의 뿌리를 찾아서, 김용길-

언제부터인가./ 닻줄이 끊기어 표류하는/ 濟州島는 마치 한 척의 배다./어데를  
 둘러보아도/ 가없는 하늘과 水平線이다./하지만 하늘과 수평선은/ 하나의 約  
 束./ 어딘가에 寄港地가 있다는/ 약속인데/누구의 입김인가./ 때때로/ 짙은 안  
 개가 밀려와서/하늘과 수평선을 지워버린다/霧笛이 흐느낀다.//生命의 둘째/  
 하늘과 바다에 길이 막혔다./소리가 있을 뿐/ 빛이 없다./빛이 없는/감잡한 항  
 로에/濟州島는 좌초하였다./神이여/ 한줄기 미풍을 보내어/ 저주스런 이 숨결을

거두어 가라.//

- 霧笛, 강동원-

아!/ 이 황량한 고독을/ 내 어느 뱃전에 실어보내야 하나/아이들의 마음은 손으로 두드려도 열리지만/ 이미 굳어버린 어른들의 마음은/온 가슴으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목선 갈매기들이 바람 타는 바닷가 /이 우울한 섬/멀리 하나의 목선은 떠나지만/내 사랑은 지지 않고 있다.//

-우울한 성산포, 강종완-

파도는 섬을 기억하고 있다/ 파도의 일렁임은/추억 속의 계절과 해안으로 되찾아가려는 회귀본능//이 밤 파도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칼바람이 주름살을 깊게 그어 놓는 외로운 먼바다에서/태양과 북극성만이 아는 수만 리 길을 되밟아/이 따뜻한 계절에/섬의 해안에 돌아온 파도는/말미잘과 파래와 모래알갱이.....정다운 친구들을 불러/솔랑 솔랑 먼바다 식구 이야기를 들려주며/온종일 뒹굴어 다닌 파도는//새벽어둠 따뜻한 달빛을/정다운 친구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을/하얀 눈물로 기억하고 있다/외로운 먼바다 칼바람 속으로/ 다시 수만 리 길을 되밟아 떠나야 하는 파도는/꽃씨와 이야기를 남기고//

-파도, 김규중-

섬은 떠나서 떨어져 보는 그 섬은 바다 가운데의 山, 山, 山. 섬을 만나러 가파도, 마라도를 찾았더니 그곳은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바람의 영토였다. 파도의 일렁임으로 살아가는 칼바람은 떠나야 하는 파도에게 꽃씨와 이야기를 그 섬에 남겨두고 가기를 끝임 없이 들려주는 듯 파도의 움직임은 섬이 없다. 바람, 안개, 구름, 노을, 바다, 황혼, 꽃, 가을비, 제주 억새꽃, 마라도, 고근산, 한라산, 섬동백, 협죽도 억새꽃 유채밭에서 굴, ... 제주인의 자연, 역사적 유적, 그리고 제주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담은 시들과 함께 자연을 수용하고 적응하는 제주사람들의 정서가 끝없이 움직이는 바람처럼 살 가운 삶의 움직임으로 다가온다.

땅이여/ 너를 파고 다시 버리고/바람의 씨앗을 심는구나/ 잡초도 꽃을 피울 수 없는, 해초인 듯/ 바람인 듯 뿌리 내린 섬/ 이 아침상 위에 네 식구 마주 앉아/ 손자놈 흘린 밥알 주우시며/ 먼 길 떠나신 어머니/ 일어서다 지친 삶의 옹이에

서/ 젖은 가슴 흔드는 제주 바람/ 오늘 다시 불어 연체된 어둠을 날린다/ 더 낮은 곳 더/ 따스한 곳을 위하여 /이 겨울 깊은 눈은 나리고/ 눈이 쌓이지 않아 슬픈 마을에/ 한 집 건너 한 마을 지나는 / 각혈 소리/하이얀 눈뜨면 오늘 아침은 설날인데/ 유자꽃잎 지듯 지는 듯 파도 타는 슬픔이여/ 압류된 닻이여/ 왜 섬을 떠나지 못하느냐/ 바람이여//

-바람.6 , 윤봉택-

마라도는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바람의 영토이다. 그러나 바람이 의지할 데가 없는 휘휘한 섬이다. 어떤 바람은 물살을 녹여주고 어떤 바람이 바다를 뒤집어 버려도 마라도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마라도는 거센 바람 회오리 치는 파도 위에 꼼짝 않고 누워있다. 이 나라 사극(四極) 가운데 남극이 되어 대양을 향해 으젓한 수문장 노릇을 잘도 하고 있다. 마라도에서 한라산의 넉넉한 품속이 보인다. 어머니 섬에게는 멀리 두고도 버리지 못한 아들 같은 섬, 아니 내쫓아도 달라붙는 효자 섬이다. 창파에 떠밀려난 나 홀로 섬, 그래서 눈앞에 어머니를 두고 더욱 그리운 가슴앓이가 있다. 흔히 마라도를 한반도의 마침표라고 한다. 그러나 鄭木日님은 느낌표라고 했다. 아쉬움과 그리움의 끝머리에 놓여있는 작은 섬, 달리 표현할 길 없는 문장 맨 끝에 붙여놓고 마는 부호라고 했다. 이 땅에 태어난 이 느낌표 같은 마라도를 사랑하지 않는 이 없으리.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가장 먼 곳에 대한 사랑을...'

- 마라도에서, 가서 살고 싶은 섬, 김정택-

언제부터인가 한 척의 표류하는 배로 뜬 제주도. 푸른 섬 하나를 건져 올리기 위해 배를 띄운 사람들. 빛이 없는 캄캄한 항로에 좌초한 제주도, 온 가슴으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어른들의 마음은 온통 가슴앓이 사연인 듯 파도가 되어 부서지고만 있다. 우울한 성산포에서 나무 배 하나를 떠나 보내본다.

압류된 닻처럼 섬을 감싸고 부는 바람이, 흔들거리는 테우 하나로 제주바다 건너온 사연을....., 아들이, 테우 노 저어 저 바당 가자고 흔들리는 부추그림에 마지못해 끌려나가는 듯이 <이여도>를 찾아서, 솟아오르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아방 어떻 같이저어 저바당 갔듯이/아들이, 테우 노저어 저 바당 가자/ 아방 뉘



시하고/ 어멍 물질하고/ 듬북, 감태 걷어 올리다 힘들면/ 자리 젖에 술 한잔하고  
 쉬어가게/ 대나무로 상 자리도 만들어라/ 갈 옷 찢어 황 포 돛 세우고/이어  
 사나 이어사나 노 저어 저 바당 가면/ 이어도가 보이리라/물 마루 지나 다시 물  
 마루서는 제주바다를/ 아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흔들리는 테우 하나로/ 온  
 가족 신고 이 바당 건너 왔다.

-테우, 문복주-

인간이 삶의 공간을 찾아 바다를 건너왔다. 삶의 공간을 찾고자 하는 사  
 람들은 한라산 백록담을 밟지만, 제주 문인들은 산을 떠나 제주 바다로 내려온  
 다. 삶의 본질을 찾아서 심원하게 제주 바다 속에 가라앉고자 원고지를 펴고 앉  
 았다. 백록담의 시원의 공간에서 내려와서 바다의 눈 높이로 수평선으로 눈길  
 을 준다. 파도소리, 바람소리에 바다 위의 유영을 꿈꾸는 새가 되어보고 바다를  
 디더 볼 '테우'를 만들고 삶이 솟아나는 곳을 찾아서 그 곳에서 심원하게 살고자  
 한다. 제주 문학에서 제주를 섬과 바다의 이미지로 부각되는 제주도의 자연공간  
 으로 묶어볼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중심시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갈 매  
 기, 물새, 물가, 새알, 바다, 바닷가, 포말, 모래살, 갯바람, 해조음, 바닷물소리, 소  
 녀, 가슴, 시, 꿈, 사랑, 이어도, 육지, 누이의 눈물, 그대, 바람, 섬, 날개, 하늘, 구  
 림, 안 보이는 섬, 파도소리, 제주도바람, 화산, 한라산, 오름, 민오름, 물안개,  
 배, 썰물, 밀물, 그리움, 노을, 들숨, 날숨, 할머니, 설자리, 수평선, 물소리, 텃새소  
 리, 배, 뱃전, 마음, 원고지, 고향, 비바리, 소섬, 범섬, 문섬, 섬섬, 우도, 바다뉘  
 시, 마을, 하늬바람, 강정포구, 마라도, 서귀포, 목선, 꽃씨, 오조리, 소라껍질'

제주문학 속에서 나타나는 제주는 섬이라서 바다와 분리할 수 없는 장소  
 이다. 또한 바다이면서 섬으로 존재하는 공간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다  
 음과 같은 작품에서 구체화 되어있다. '요지경,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인다. 濟州의  
 봄, 섬의 뿌리를 찾아서, 파도의 울음, 버려진 섬을 위하여, 霧笛, 우울한 성산포,  
 봄의 마을 西歸浦, 겨울 백록담, 테우' 등이 있다.

## 2. 섬 안의 대륙

대륙이라 함은 모름지기 드넓은 땅에 명명되어 불려 지는 '장소'를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곳이다. 지명이 있다는 것은 삶을 꾸리는 모습들이 사람들에 의하여 관찰되거나 그들에 의하여 차지된 공간이리라. 그러므로 그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탄생하여 성장하고 발전하여 장소와 한 몸으로 굽이굽이 남아있는 곳을 대륙이라 하겠다. 전해온 이야기가 전해줄 이야기로 변하는 곳, 그런 장소가 많은 곳을 대륙이라 한다. 솟아오르려다 한 숨을 쉬려 누워있는 오름 들이 뿌려져 있는 곳은 하나의 대륙이다. 오름과 오름을 넘나들면서 끝없이 펼쳐진 대륙이라 인식한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살펴보자. 섬을 둘러싼 바다로의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이 발견한 자연물들은 발부리에 채는 돌, 오르고 내려야할 산이었다. 그 속에서 돌담을 만들고 말과 소를 돌보는 사람들이 생활공간이 있었다. 돌이 있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바람이 머물다 갔고 돌과 바람이 있는 곳에는 그들을 몹시 그리워하는 듯 바람을 끼고 사는 여자들이 있었다. 돌작 밭이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땅은 만만하지 않은 노동을 요구하지만 슬기롭게 생활해 가는 공간을 창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등할망 심술 굿기도 하지/ 흠이 많으지 돌이 많은지 도무지 모르켜/ 이 고랑에 한 섬/ 저고랑에 한 섬/ 한자를 파도 돌/석자를 파도 돌이라/ 돌, 여자, 바람 많아 삼다도(三多島)라 허주만/ 바람은 돌을 파고 돌은 여자를 파서/ 여자는 평생 바람을 안고 사는 거라/바람에 불리는 지푸라기 마음 지둘리기 위해/ 땀에 절고 눈물에 절은 돌 쌓아 놓으니/고망 승승 뚫린 밭담이라/태풍 열 번 지나도 움직이지 안햐저/흠 파먹고 산 내 삶의 경계가 여기가 끝이려니/돌무더기 내 무덤 여기가 명당이라/ 밭담 치고 한 가운데 누워버리네

-밭담, 문복주-

제주도의 육지의 경관은 마치 바다의 물결이 굽이쳐 출렁이다 언 듯 멈추어 선 형상이다. 오름과 오름의 너넉함은 파도와 파도 사이의 격랑을 잠재우듯이, 바람과 바람이 전투하는 숨 가쁨에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전투에서 돌아온 바람이 쉬고 가는 자리이다. 격랑에 시달려 부딪치고 튀겨나가 물살만큼 거세게 부딪히며 휩쓸려가고 부서져 조각나야만 하는 바다 속의 바위들이 이제는 은퇴하여 전쟁의 역사를 회상하는 老將이 한 때의 혈기를 바람에게 선물로 떼어 주기라고 하듯이 고망 승승 삭아져 가는 형상으로 돌이 되어 지천에 구르고 있다.

제주엔 사람보다 돌이 많다. 그런데 제주의 돌들은 하나같이 구멍 송송한 현무암이다. 어떤 것은 박박 얽은 곰보처럼 몸뚱아리가 온통 벌집 투성이라 볼품없다. 심한 놈은 비천하게 태어나 말라빠지고 일그러져 사람의 살 가운 눈길을 끌기는 처음부터 글렀다. 그럼에도 나는 이 제주의 돌들에 여간 정이 가질 않는다. 어쩌면 것처럼 생겨나고 그렇게 놓여있는 자체가 제주사람의 얼굴이고 제주의 운명일지 모른다는 나름의 비유적 인식에 연유한다.[중략]

저 돌맹이들의 올망졸망한 축적. 제주사람들은 그들이 이 섬에 살아 온 만큼의 시간 동안 저토록 줄곧 돌을 다스리며 인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담금질 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받담 이야말로 제주 사람들의 근면과 인내의 즉물적(卽物的) 표현에 다름 아니다.[중략]

제주의 들녘엔 북망산천 마냥 무덤들이 널려있다. 모든 무덤들이 산 담을 돌렸다. 대부분 겹 담이라 엄청난 돌의 군집을 이룬다. 무덤가에 침묵하는 돌돌... 산 담에도 한 해씩 세월의 이끼가 돌아나면서 돌 옷을 두텁게 갈아입는다. 그 산담 위에 언제부터인가 사철 푸른 녁쿨이 돌아나 무성하고 고목이 된 무덤가 백일홍은 분홍의 고운 꽃을 피워낸다. 돌과 나무와 꽃이 한바탕 어우러진 그곳에도 계절은 지나가고 간간이 멧새도 찾아와 목청을 돋운다. 제주 돌만이 자유자재로 빚어내는 생과 사에 초연한 세계가 아닌가.[중략]

- 제주의 돌, 돌, 돌, 김길웅-

며칠 전부터 불기 시작한 눅눅한 바람은 적격들이 출옥한 이튿날인 이월 초하루가 되자 강풍이 되어 몰아 붙였다. 이 날은 바다 건너 먼 강남 천자 국에서 일년에 한번 풍신(風神) 영등하르방이 제주 섬 산천 구경 오는 날이었다. 긴 삼동을 물리고 처처에 동백꽃이 활짝 피고 복사꽃 망울지고 산 빛도 고와지는 때였다. 큰 바람을 몰고 오는 이 영등하르방은 보름 동안 육방 관속을 거느리고 제주 섬을 한 바퀴 순력 하는데 이르는 곳마다 영등제를 받아 잡수며 백성의 여쭙는 발판을 귀 기울여 듣고, 세경 넓은 들에는 오곡 씨를, 세경 넓은 바다에는 미역, 소라, 전복 씨를 담뱃 뿌려 주었다. 이 무렵이면 연일 큰바람이 불어 치는데, 어쩌다 바람 잔 날에도 영등하르방이 떠나기 전에는 감히 먼저 고깃배를 못 놓는 법이었다. 고깃배를 띄우기는커녕, 갯가에 나가 소라, 고둥 잡는 것도 금기로 여겼다. 이때 갯바닥에 지천으로 많은 소라, 고둥은 영등하르방의 똥이었다. 워낙 가난한 섬 백성이라 보잘것없는 굿 떡으로 손님맞이하기가 민망스러워 소라,

고등이나 배불리 잡숫고 가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변방에 우짖는 새, 현기영-

괘빌레라 부른다지/복제주군 조수리 굽은 길 돌아가면/자갈들이 발 가운데 모여 사는/물의 세상이 있다/눌처럼 어깨 비비고 머리를 위아래/삶의 밝음과 어둠을 꼭꼭 바닥으로 누르는/그 돌작발의 가운데 짓퍼런 송악군락 울울하게 지붕 덮은/돌의 집이 수십 채 있다/이미 돌의 집은 지은이는 없다/대지는 오래 전 거둔 뒤로 한 번도 거뒀본 적 없다는데/지금도 이 발은 씨앗을 거부하지 않을까//냉 새벽이었는지 탕탕 불별이었는지/이삭 캐듯 깊은 돌 골라내다 뒤돌아보면/다시 올라오는 돌덩이 얼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그때 뿌린 씨는 결국 고통이 있었는지 희망이었는지/그들 손이 걷어낸 기억을 알고 있는 이/저 돌발의 여정을 알고 있는 이 누구일까/자갈 구멍 틈새로 돌과 한 몸이 된/바람이 이러 저러 떠나지 못하고 사는구나/돌집 지은 손의 노동만 떠다니는 봄날오후/돌잡발 귀퉁이서 터질 듯 말 듯 또록 푸른 싹 하나/그 너머로 와르르 돌덩이들 갈아 놓히는 완력을 쓰는 기계 차/노도처럼 놀라 비명 지른다 돌집 만한 돌덩이들//

-돌작발, 허영선-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에나 돌들은 소용에 비해 너무 넘쳐 나서 처치 곤란이었다. 발을 갈다가, 검질 이라고 부르는 김을 매다가 큰돌이나 작은 돌이 지상으로 튀어나면 이 섬의 농부들은 우선 그것들을 발담 가 심지어 한가운데로도 뽕뽕 던져 한데 모아냈다. 그것들이 발 가운데 모아진 것, 낫 가리 만한 것들을 ‘머들’ 이라고 불렀는데. 대개는 처음 돌을 모으기 시작할 때 심 이라고 할 작은 나무가 서있던 것이 나중 자라서 머들을 지키는 주목이 되어 있곤 해서 돌과 나무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썩 운치를 자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더러는 발 담가로 던졌다가 차츰 높이 쌓아져서 그야말로 성 담처럼 널찍한 길을 이루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듯 거치적거리는 장애물까지도 모나지 않게 순응시켜서 소용에 닿게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 죽은 장군의 증언, 오성찬-

설론 얘기가, 어떻 고라사, 내 살아 온 시상, 알아들으코. 설론 내 애가야. 호다이 할망 살아온 시상, 맹심호영 들었당, 후제 느네 아들 크거들랑, 잘 도시려 주

라. 사람 사는 일은, 험한 산을 오르는 거여, 이녀만 씩, 인생의 탑을 쌓아 가는 거여.

으납 속을 걷는 나그네. 서두르지 말라, 허천도 보지 말곡, 쉬이 낙담도 호지 말  
앙, 꼬닥꼬닥 걸으라. 가시덤불 속도 헤매 보곡, 내창질 푸더지명 땡기당, 물도  
기리곡 배도 고파봐사, 세상 물정을 아느네. 발바닥 붕물게 나상 땡겨보곡, 손바  
닥 꿩이지게 살아 봐사, 어려움도 알곡, 고마움도 아느네.

산을 오르면, 이내 해는 저불곡, 탑을 쌓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깃털이 되고 말  
주만, 버친 삶 깊어정 살아온 땀과 눈물, 이게 우리가 살아 온 보람이여. 이게 사  
름 사는 거여. 시상은 고루작작 허꺼정 살아사 호느네. 이신 사름, 어신 사름, 귀  
고진 사름, 흥당흔 사름, 구루 쉬어정 살암서사, 아귀맞춰 사느네. 경 호여서, 늬  
이 말 호곡, 이녀 말도 골으명, 야박한 시상, 이신 세월 어신 세월, 울멍 웃으멍  
살아 가느네. 이게, 사람 사는 시상이여.

아명 요망지게 사노랜 호여도, 살당 보든 뚜럼 되느네. 길력이성 나상 땡길 때  
사, 다 요망지고 되망지주만, 그것도 혼시절. 나이 들영 늙어지든, 조식 눈치 뵈  
려지곡, 쟈저 놓은 것 어시든, 이리주와 저리주와, 갈디올디 어신 뚜럼 되었신예.  
젊음도 혼 때, 이성 삶도 혼이 이싱거, 야게기 심주는 거들거림도, 지나 보든, 다  
철딱서니 어신 허세. 아-, 뚜럼 되젠 살암싱가. 살젠 호난 뚜럼 되었싱가.

서울 그 소시 살멍, 서울 말 호는 사람, 일 천만은 훨축 님을 거고, 충청도 전라  
도 경상도, 그 고단 사름들고, 다 이녀 고단 말을 쓰멍 사느디, 온전하게 제주말  
호멍 사는, 제주 사름 그 얼마나 되었직 허냐. 그영 저영, 제주 땅에 밭을 붙영  
사는 사름. 문짜 호여 봤자 혼 오십만, 그 호끔흔 사름들이라도 온전하게, 제주  
말 골멍 살아 접시든 호주만, 그도 아니고. 요새 골이 출입이 좃은 시상, 혼 해  
에도 수 백만, 외방 사람들 들락거리고, 이 고단 저 고단 사름들, 서꺼정 살당  
보든, 수수 백년 살아오멍 지탱호여 온, 이 고단 제주말, 알게 모르케 몽그라져  
불었신예. 수천년 후제도, 할로산은 이실거도 제주바다 절도 지칠테주만, 우리  
제주말은 어떻 되어 지켜니? 그렇저렁 살당 보든, 제주말 몰랑 사는 제주 뚜럼  
되었 나사키어.

-사는 게 뭇 산디, 김종두-

할애비 손자 다 팔아먹으려 하는냐?/ 나를 팔아/ 밭을 살래 논을 살래?/밭도 잃  
고 논도 다 잃으려 하는냐?/ 눈물 흘리며 濟州땅 떠나는 것들이/어디 나 돌하르  
방 뿐이라?/ 내 새끼 내 손주들/ 바다 건너 동서남북/어는 문전에 버려져 떨고

있고?/ 돌 팔고 물까지 팔아먹어 별이가 좋겠다./무엇이 궁하여 팔아먹느냐?/ 물릴 것은 물리고 남길 것은 남겨 뒤야 하는니라./팔고 사는 거 자유라지만/ 껍데기는 팔아도 속은 팔지 마라./자유항 좋아하지 마라./ 국제 自由都市 너무 좋아하지 마라./세상 잡것들 다 모여들어/ 놀음판을 벌이고/ 들쭉서 놓으면 무엇이 온전할꼬?/한라산이 온전하며 바다인들 온전하겠느냐?/ 이리저리 팔다 보면/ 몸도 마음도 황폐해지느니라./ 아 진정/사랑하는 濟州/ 껍데기는 팔아도 속은 팔아먹지 마라.//

-돌하르방의 말씀, 강통원-

제주문학 작품 속의 제주 땅에서는 작은 물줄기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제주도의 지표수가 복류 천으로 숨어들 듯이 문순의 장대비는 어디로 갔는가. 소나기처럼 내리곤 손살같이 사라져버린 하얀 물이 작품 속에 녹아져 있다. 어찌면 제주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곡물처럼 거둬들여야 하는 또 하나의 생명 원이다. 다음과 같은 시어들은 작품 속에서 응집될 수 있는 물방울이 되어 새로운 작은 샘터를 만들 것 같다. '광돌, 돌 할망, 허벅, 물 허벅, 나의 동산, 푸른 숲 푸른 달빛, 물, 장마, 남수각 일기, 오로 섬 겨울나기, 땅 끝에서, 장마, 물항, 강정천의 봄, 염소, 살강아지, 청개구리, 한란, 바위에 부쳐, 수악 계곡, 무수천, 천지연 폭포, 정방폭포, 불일 폭포를 가다, 천지연, 르네 지라르와 함께 간 백록담, 백두산천지'

물허벅/ 여인상 아래/향아릴 짚고 서네./ (중략)/고운 등에 업힌 허벅/허공을/기울인 소리//달뜨면/저 물그림자/하냥 가락 짚어질라.//물허벅 출렁 소리/뒤쫓던 어린 그 날//애련한 글자 적어/꼬아 주고/애태운 사랑//숨결도/함께 일렁여/겹친 바다 되었네.//

-물허벅, 김대현-

불야성이 도시에 한 소절 노래 같은 제주시 산지천 단물 잔물 합환의 소리/ 그 기운 방죽을 넘어 유곽을 일으켰다/어느 날 푸른 개천은 복개령이 내려져 맑은 별을 울리던 물소리 딱 끊기고/한밤의 더운 욕정만 씻어내고 있었다//날개 털며 시름 비우는 정강이 긴 해오리야/취객의 가슴에 정을 묻던 누이야/삼십 년 거리를 지킨/홍등(紅燈)도 잠이 든다//마침내 모천을 찾아 물살 거스른 어족이/

얼비친 초저녁달에 지느러미를 문지르듯/헐거운 나의 살에는//

-산지천의 노래, 홍성운-

건천(乾川)은 어느 새 살아 움직이는 냇물로 변하였다. 정지해 있는 골짜기가 아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비누 냄새로 남았다가, 큰비가 내릴 때만 살아 움직였다. 오늘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날은 조그만 강이었다가, 비가 그치면 하나의 폐수호가 되곤 하는 건천 이었다. 돌고래 같은 이 섬 속의 도시에서는 강물도, 골짜기도 아닌 건천들이 문어발처럼 뻗어 있다.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건천은 바다가 가까워질수록 폭과 깊이가 더욱 넓고 깊게 패어지며 가파른 벼랑을 이루고 있다. 강도 아니고 내도 아닌 골짜기의 벼랑과 수직선상에 집을 지어 살고 있는 다리 근처 주민들 거의가 피난민들이었다. 벼랑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잦은 평지에 접한 골목으로 통로를 냈다. 그리고, 한길을 등진 위치에 자리잡은 사람들은 사차선 너비의 건천을 가로질러 출구를 내서 살아왔다. 서너 가구마다 둑과 둑, 벼랑과 벼랑을 잇는 징검다리를 놓고 살아온 곳이다. 건천을 가로질러 건너는 사람끼리 부닥쳤을 때마다 어느 누군가는 기다려 줘야 했다. 삼십 여 년을 철로 변의 건널목 넘듯 하며 그렇게 살아왔다. 전쟁이 있었던 여름의 천막촌 시절부터 줄곧.....

-흔들리는 벽, 고시홍-

꽤도 터난 혼 된 되곡/폴도 터난 혼 말은 되어라/돌랭이 혼 케도 이시난 의지여  
/돌랭이 혼 케 어신 집도 있나/이심은 고사호곡 한난호곡 한난혼다/팻낭으로랑  
밥을 호영/우리 식술 먹어보게/팻낭에 굽는 자리는/지름이 잘잘 흘르곡/폴낭에  
괴는 밥솥은/두쟁이가 돌씩돌씩/얼씨구 좋다 절씨구나/절씨구 좋다 얼씨구나/  
돌씩돌씩 춤이나 추게/우리 살림 못 산덴 호여도/백년을 못 살것가 천년을 못  
살것가/살암시민 살아진다/니 잔뜩 조구물영/살암시민 살아지고 말곡//

-꽤도 터난 혼된 되곡, 김광협-

과월맹질 돌아오난/일본갔단 조케네도/몬닥덜 오라지곡/서울 갔단 아시네도/몬  
닥덜 오라저싱가/메도 호곡 탕쉬도 호곡/메물도 호곡 감쥐도 호곡/솔펜도 호곡  
젤편도 호곡/인절미도 호곡 무인침떡도 호곡/홀일이 태산이여/산디쫄로 메를  
호곡/탕쉬에랑 골생이에 메역을 놓곡/메물에랑 양에끈을 놓주/할으바님 할마님

/살아생전 빼빼지곡/아바님 어머님도/빼빼지게 살당 가곡/팔월 멧질 돌아오난/  
눈물 남수다 눈물 남수다/오만간장 찾아점수다.//

-팔월 멧질 돌아오난, 김광협-

어머니와 누나가 고향에서 쌀을 꺼내오는 것을 간혹 보았을 뿐 고향 안 세계가 나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쪽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상상해 보지만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본체와 부엌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었으므로 그곳은 여자들에게나 허용된 지역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크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맥박의 요동치는 소리를 참으며 한참을 들여다보니 무엇인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몇 개의 알 수 없는 독들이었습니다 나는 도둑강아지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뚜껑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는데 딸그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별 것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리쌀이랑 좁쌀이랑 김치랑 젓갈종류가 들어있는 독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까부터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간과한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디선가로부터 희미하면서도 강한 빛 한 줄기가 새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담 벽 사이로, 그렇지요 구멍난 토담 벽 사이로 그 이삭 같은 빛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른 가 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아 놀랍게도 거기에는 늘 내가 보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며 나무며 채마밭이며 이웃집 초가며..... 그것이 왜 그렇게 신기하기만 한지 나는 그 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구태여 사족을 붙인다면 똑같은 한순간에 어둠과 대조되는 밝은 세상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그 고향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고광, 김광렬-

올리 보리 농신/느 나 어시 잘 되영/너미 너미 잘 되영/이 집 저 집 올레에/보리 고스락 불을 피우곡/보리 깡매기 불을 피우곡/호루가 가곡 이틀이 가곡/사흘이 가곡 나흘이 가곡/꺼지질 아념찌/꺼지질 아념찌/올레마다 네가 나곡/네 내음살은 무사사 경/코소롱도 혼디/알앙 보난 알앙 보난/동네 아이덜/지슬을 파다그네/구어덜 먹어빠/구어덜 먹엄꾸나/지슬 카는 내음살이/우녃집이도 코소롱호곡/알녃집이도 코소롱호다//

-올리 보리 농신,김광협-

한라산엔 눈노리곡/저바당엔 절세엇저/돛박낭엔 불불으곡/왕대왓딘 보름소리/  
고망독센 짹짹고/독박생인 찹찹운다/우리어멍 우리아방/ 살아생전 고생고생/



대천바당 한가운디/제주땅엘 넘영왕근/보름코지 빌레왔딜/정을들연 살아왓찌/  
 이고단이 살디라고/모슴정현 살아왓찌/호구혼날 혼숨이국/호구혼날 고생이국/  
 보름코지 빌레왔딜/빠빠지게 좇아그네/피도갈곡 조도갈앙/그영저영 살아오난/  
 눈물남찌 눈물남찌/눈물남찌 눈물남찌//

- 보름코지 빌레왔다, 김광협-

동지선들 모진추위/얼어그네 못살키여/보름코지 보리왔딘/상강덜이 과상했찌/  
 상갈덜산 보리왓은/끓아줘사 혼텔헤라/오닐만은 느네몬닥/발더레덜 나사거라/  
 버선신곡 초신신곡/몬닥몬닥 나사거라/발소슨덜 상관말라/손고슨덜 상관말라/  
 굴명죽지 아니젠호민/발소슨덜 어평호평/손고슨덜 어평호리/가마귀도 놀아왕근  
 /조작조작 걸어가곡/우리덜도 으상으상/보리왓을 끓아가에/상강덜산 보리왓은/  
 끓아사만 호곡말곡//

-상강 산 보리왔다, 김광협-

제주시인들이 시원의 원형으로써 존재하는 자연공간은 제주 목장터 이다. 몽고의 들판의 생명력이 제주 산에 뿌려진 시원의 땅으로 목장이 우뚝 섰던 공간을 다음과 같은 작품으로 그려본다. 짐승들이 자연의 섭리에 적응하여 진화하듯 그 속의 제주인의 생활 양식과 생활공간을 상상케 한다. ‘생각, 추억, 시인향, 지금 제주는, 나베시마 고려인의 영혼, 牧胡의 들을 지나며, 말젓빛 바람, 히말라야, 관덕정, 먼 타향에서, 방고애무’

그런데 그나마 이런 고지도 들을 구경하다가 나는 1800년대 말쯤에 그린 것으로 보이는 꽤 촘촘한 지도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실지로 이 속담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보아버리고 말았다. 그 내용인 즉, 섬의 중심에 자리잡은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을 중심으로 사방 벌려 죽죽 목장을 그려 놓았던 것이다 섬 동북쪽 구좌읍의 1소장(一所場)에서부터 거꾸로는 시계방향으로 섬을 한 바퀴 비잉 둘러 마지막의 10소장까지 모두가 목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 말일랑은 제주로 보내라”는 말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섬사람들은 짐승 키우는 것마저도 산이나 들에 나무 키우듯이 했다. 이른바 꽃말 꽃쇠. 나는 사건의 취재를 다니다가 사태 전에 이런 방법으로 짐승을 키우던 중산 촌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다. 꽃이란 섬사람들이

마냥 내버려서 가시나무도 나고 들 찢레도 자라는 원시의 숲을 뜻하는 것이니까, 꽃말 꽃쇠란 그야말로 야마(野馬), 야우(野牛)를 이름이었다. 중략... 꽃말 꽃쇠를 기르는 사람들은 이 무렵에 짐승들을 마을 바깥 야산으로 내몰아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초장엔 더러 마른 꼴도 던져 주는 것이었으나 이내 그냥 내버려 뒤 들판의 아무거나 뜯어먹게 하는 것이다. 끈질긴 생명력의 막판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자연의 일부로서 짐승들은 주인의 기대에 잘 부응한다.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뜯어먹고 거친 바람, 모진 진눈깨비에도 맞서 잘 견딘다. 다만 짐승이란 자연의 섭리에 잘 조화되어 있어서 한 두 달 지나는 동안에 외양가나에 매어두는 소보다 두어 배는 털이 길어져 버린다. 이런 형태로 밤이나 낮이나 수굿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 견뎌야 한다는 듯이 그것들은 쉬지 않고 천천히 움직일 따름이었다. 중략... 이 때는 이것들에게도 못 먹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나무의 이파리도, 껍질도, 발로 캐낸 뿌리도 다 먹을 것이다. 그래도 배가고프면 그제는 제주의 말들은 자기의 것이나 옆의 동료의 것일지라도 서로 갈기를 뜯어먹는다. 생명 유지에 있어서 더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죽은 장군의 증언, 오성찬-



공간과 장소는 인간의 경험에 바탕을 둔다. 경험은 사람들이 실재(實在)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여러 가지 양식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인간의 경험은 감정과 사유로 구성된다. 인간의 감정은 개별적인 감각의 연속이 아니다. 오히려 기억과 기대는 변화하는 경험의 흐름에 감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유의 삶을 말하듯이 감정의 삶을 말할 수 있다. 감정과 사유를 대립되는 것으로, 즉 전자는 주관적인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고 후자는 객관적인 실재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사실 감정과 사유는 경험이라는 연속체의 양쪽 끝 가까이 위치하며 양자 모두 삶의 방식이다.

제주시인들의 무밭을 지나서 보리 밭 길을 걷고 있다. 무덤을 지나고 들판도 지나서 오름에 올랐다. 산록도로 따라 제2횡단도로 빠져보아도 돌, 돌, 돌담이 시인 따라 지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도 봄이 오는 산길에도 돌담을 쌓은 제주사람들은 삶의 향기는 돌담 틈으로 삶의 생채기는 돌담에다, 지나가야 할 것과 통과 되어 할 것, 체로 걸리듯 건져 올려야 할 것과 빠져나가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었다. 길과 길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마치 시원과 현대와의 대문에 빗장을 걸 듯. 시인들이 돌담을 넘자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또한 돌담을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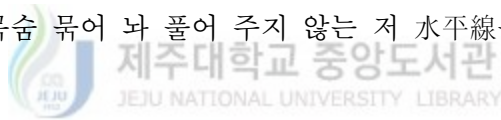
고 서있었다. 그들이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중심시어들은 ‘밭빼기, 섬피질, 땀방울, 생낭, 초낭, 밥풀, 자갈밭, 참깨, 띠풀, 산 까마귀들, 나무탈, 알드르, 웃드르,’ 등이다. 그들의 정서가 구조화된 작품들을 보면, ‘무덤 앞을 지나다가, 어머니 무덤에 핀 두견화, 봄은 산길로 오나, 돌아오는 길, 돌담, 구린굴을 가면, 별초 길에서, 무밭을 지나며, 너븐 밭에서, 굴 밭, 나물 밭, 겨울 굴 밭, 동백마을, 유채꽃 피는 마을, 보리 밭 길, 교래 들판을 지나며, 오름, 다랑쉬 오름, 민오름 오르며, 산록도로를 달리며, 산길을 달리다가, 산을 오르며, 일출봉을 내려오며, 제2 횡단도로, 성산포 가는 길, 고광, 돌하르방,’ 등이다. 제주는 돌과 바람과 화산회토로 덮혀 있는 장소로서 삶을 일구어 땀을 쏟고 수확을 거두어 생활의 윤택함을 일구고자 애쓰는 이들의 손과 밭을 힘들게 하는 경작 터를 보여준다.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정서는 수확물과는 비례로 바람과 파도와 돌맹이들을 만날 때마다 숨구멍을 찾아 헤매는 힘든 호흡처럼 배어있음을 보여준다.

### 3. 섬의 역사

제주문학 속에 나타나는 장소들을 보면, 자기가 많이 나는 자리왓, 메툽이가 많이 나는 애여리왓, 심지어 산의 능선과 숲들을 대중해서 앞곶, 뒷곶, 고사리 곶이라 하고 바다의 지경까지도 이름이 지어져서 수확을 거두어내고 있음을 보았다. 자신들의 삶을 삶의 공간에다 명명함으로써 삶의 풍요 성을 더하고 있다. 넓은 땅, 대륙에는 이야기가 많다.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곶, 많은 이야기의 소재를 제공하는 그런 곶이 바로 대륙이다. 바다와 산의 공간에도 이름을 주고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그들은 제주 섬에서 대륙 인으로 살아내고 있었다. 제주 섬을 한 걸음 한 걸음 딛으며 소와 말이 있는 곶의 초원에 이르면, 뿌리를 흙에다 내린 생태계가 펼쳐진다. 초원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섰던 하얀꽃들이 스쳐 가는 바람결마다 곧이곧대로 흔들리며,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수직으로 선 역사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설문대 할망의 옷 맵그는 이야기, 탐라왕국을 건설했던 왕족의 이야기, 재갈을 풀어헤쳐 돌왓을 뒤희던 곶자왓들의 영웅으로 군림한 군 마들, 제주바다의 출렁임 속으로 던져진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려했던 혹은 뿌리내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무엇보다도 파도가 실어온 바람, 꽃씨, 붓을 든 사람이 한없이 방황하고 있는 바닷가로 알 수 없는 인연

이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즉 생각이 공간을 만들어 내고, 씨앗이 균락을 생성하고, 공감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존립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 중에는 '육지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재수가 산으로 오른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변별을 하지 않았던 사람. 오직 생명인지 죽음인지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불타오르는 가슴이었던 제주인.

옛날에 나는 설문대할망 그림자 아래서 살았지/ 설문대할망은 육지에 한 쪽 다릴 두고/한쪽 다리는 제주 섬을 밟아 다니며/ 제주 바다에 빨래를 하고 나는/ 설문대할망 출렁이는 젖무덤 밑에서/ 오랜 잠을 자며 꿈을 꾸었지/옛 耽羅 사람들 가난을 모아짜도/ 한 벌 속옷 만들어 줄 약속 못 지켜/육지와 濟州섬 사이 영영/ 다리를 못 놓았지/설문대할망은 漢羅山 한 녘을 걷어차/ 半島를 만들고 찰랑찰랑 물장구쳐/세상살이 파도로 빚어내고/ 물장울에 빠져 깊이도 모르게 죽어 가면서/엄지손 하나로 그어 논 水平線 하나/ 이제 어른이 되어 찬찬히 바라다보니 한 세상/찬 땀 빼며 힘모아 가는 무딘 칼에 시퍼렇게/날이 서는 날 씨익 잘라내리/내 목숨 묶어 놔 풀어 주지 않는 저 水平線을 //



-설문대할망, 문충성-

제주도의 역사- 그것은 무엇인가? 현용직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숨을 들이쉬었다. 그 틈을 타서 나는, 40여 년 전의 한 젊은이가 되새겼을 제주도의 역사를 떠올려보았다. 일찍이 독립왕국이었던 제주 섬이 육지에 복속된 것은 고려 때였다(938년). 그 후 화산폭발 (1002년)의 참극을 겪은 제주섬은 1105년 하나의 속국(屬國)으로부터 탐라(耽羅郡)으로 전락하였고 다시 현(懸)으로 격하되면서 제주 섬은 물엿 사람들이 행사하는 폭력과 착취의 희생물이었고, 경멸의 대상에 불과했다. 그것은 마치 대륙의 천하를 차지한 세력들로부터 잇달아 유린당한 반도의 역사를 축도 시킨 것과 다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물의 중앙정부는 언제 한번 애정을 가지고 제주도를 대한 적이 없었고, 기껏해야 제주도는 그들의 정적(政敵)을 받아들여 살찌우는 유배지, 혹은 그들이 타고 다닐 말이나 키우는 목마장(牧馬場)으로서 필요했을 뿐이며, 수륙 이 천리의 길을 천신만고 끝에 건너 도착한 파견관리 [京來官]들 또한, 염불보다는 잣밥이라는 식으로 이곳과의 육화(肉化)를 거부한 채, 온갖 비행과 수탈을 일삼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주도는 버림받은 땅, 절망의 고도(孤島)에 다름 아니었다. 이처럼 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외지인들의 꺾박 외에도 끊임없는 자연의 재해와 척박한 생활환경 등으로 온갖 시련을 겪어야 했던 제주도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배타적인 특질과 더불어 제주도적인 순수성을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런 느낌은 어느 날 불쑥 솟아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돌아오는 길에 어렴풋이나마 품게 된 생각이었는지 모르네. 서울을 떠나는 야간열차를 타고 목포에 내려와, 다시 저녁 배를 타고 새벽녘 제주 산지 부두에 도착했을 때, 12월 차가운 대지의 자욱한 안개 사이로 눈에 들어오던 한라산. 열 시간 남짓 걸린 험한 바닷길 끝, 거기에 제주도가 있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사립문 앞에 오도카니 서 있는 어머니를 보았을 때 같은 기분 말일세. 하여간 서러움 때문인지 회한 때문이었는지는 아니면 기쁨 때문이었는지, 울컥 눈물이 북받쳐 오르는 거였어. 그 때 난 처음으로 제주도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주도는 절망의 섬이 아니라, 안식의 품을 열고 반겨주는 희망의 땅이라고. 아니,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주도는 저 스스로 그렇게 의연하게 서 있었네. 그리고 도착해서 성조기를 다시 보았을 때, 그 때 내가 겪은 혼란은 의문이 아니라 실은 해답이었네. 여기서 설명을 보태면, 그는 제주도의 현실을 한반도 역사의 한 축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주도를 한반도에 예속된 땅이 아닌, 일본에 점령당했다가 해방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립단위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 한복판에 내 걸린 성조기가 제주읍내 한복판에 나부끼는 성조기와 등가 물이라면, 한반도와 제주도는 똑같은 입장에서 자신의 해방을 맞이해야 한다. \_ 이것이 그가 떠올린 생각의 실마리였다. 그리고 그는 오래지 않아, '육지 것'(제주 도민들은 물에서 건너온 외지인들이 자신들을 '섬 것'이라고 부르는데 대해 이렇게 대응했다)들이 건너와 저지르는 폭력과 비행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된다. 그들은 해방과 더불어 역사 속에 묻혀버려야 했을 외지인의 힘의 행사가 여전히 현장성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했고, 제주도의 앞날을 짐작케 했다.

-땅울림, 김석희-

먼 산 바람꽃이/ 서서히 피어나면/ 마른하늘 천둥소리/지축까지 흔들린다/ 지나온 산맥을 따라/살아나는 원혼들//소낙비 막기 위해/ 뜨겁게 달아오른/김통정, 강제성, 방성철, 이재수/불끈 쥔 주먹마다/붉은 피 솟아나던 날/단힌 문도 열렸는데/갯빛으로 물들어버린/갈증이\*의 삶의 터전/반세기 살았어도/발효 못한 저

항아리/한사코 4월 하늘만/놀빔으로 차 있다.//시멘트에 눌러버린/ 그 핏빛 자  
국마다/울 담을 뛰어 넘던/인정도 갈 곳 없고/오늘도 고향 초가집엔/안개비만  
내린다.//

- 오늘도 고향 초가엔, 오영호-

\*갈증이: 제주사람들이 주로 노동할 때 입던 바지.

억누르는 놈과 억누르게 하는 놈과/ 나쁜 놈과 나쁜 놈을 만들어 주는 놈과/일  
어나는 놈과 일어서게 해 주는 놈과/ 죽이는 놈과 죽이도록 하는 놈과/별것 없  
이 한 방울 눈물이거니//가짜 신자 진짜 신자/ 가짜 하느님 진짜 하느님/ 하느  
님도 여럿이 있느냐 그렇게/너는 가짜 신자 쳐죽일 때/ 너의 가짜 하느님 보았  
느냐/ 네가 비로소 땡강 목이 잘릴 때/너의 가짜 하느님 보았느냐//언제나 가  
짜 진짜는 가짜 진짜대로/ 내가 진짜임을 나도 모르면서/ 내가 가짜임을 조금씩  
알아내면서/ 그래서 그것이 삶을 우리는 한숨짓느니/하느님은 진짜 가짜가 너  
무 멀리 있어/ 가짜 진짜 우리는 우리 법대로 사랑할 따름이다/가까이 있어도  
나의 하느님은 어디에 있느냐//



李 在 守 -玄基榮에게, 문충성-

피뿌리꽃 본다/피뿌리꽃 본다/아부오름 등성이/빠알갠게 봉오리 맺는/피뿌리꽃  
본다/아마도 그 옛날/죄없이 이 이름 저 오름 쫓겨다니다/여기 이르러 비로소/  
첼첼 피 흘리며 쓰러졌을 한 사내/그 원혼 안간힘 쓰다/마지막 뚝심 내어/툭  
꽃망을 터뜨리고 말았을/그 피뿌리꽃 본다/처음엔 짓뭇은 봉오리이다가/하안  
순백의 꽃으로 병글어지는/비로소 정제된 맑은 영혼 본다//

-피뿌리꽃. I, 김광렬-

이 고장에도 작년 말부터 왕명을 받든 봉세관 강봉헌(姜奉憲)이 입도 하여 호포  
세, 장전세, 화전세, 어장세, 선세 등 각종 세를 일일이 조사하여 집계하고 있었  
다. 세액은 물가 오른 핑계로 정수보다 두 배 가까이 올려 받았으니 고깃배 대  
여섯 척 될까말까하는 작은 포구 하나에 어망세가 무려 팔백 냥이었다. 강봉헌  
은 또 한편으로 공도와 관청건물을 민간에 팔았다. 본래 돈토가 없는 고장이라  
공토라면 굴을 가꿔 나라에 진상하던 과원과 말을 길러 상납하던 한라산 주위의  
드넓은 목장이었다. 관청 건물과 십여 군데 과원은 그럭저럭 팔려 나갔지만, 발

도 아닌 잡초만 무성한 들판을 살 작자는 없었다. 그래서 열두 군데 목장은 마을마다 갈라 맡겨 목장세를 받아냈으니 없던 세가 하나 더 늘었다. 갑오 이후 목장이 폐지되자 말 진상 대신 돈으로 대납해 왔는데, 그 공마대전(貢馬代錢) 마련도 힘겨운 터에 목장세가 가설(加設)된 것이다.

-변방에 우짖는 새, 현기영-

저쪽, 불빛들이 환하게 보이는 곳이 부둣입니다. 산지부두요. 나는, 해방 이듬해 겨울 서울을 떠나 귀향하면서 제주 섬의 운명을 새롭게 인식했노라 던 현노인의 말을 떠올리면서, 그가 열 시간 남짓한 항해 끝에 닿아 새벽녘의 안개 사이로 한라산을 보았다는 그 산지부두를 강조했다. 전혀 딴 세상이야. 정말이지 많이도 변했어. 그러나 현노인의 말투엔 놀람도 감탄도 아닌, 왠지 모르게 무관심으로 느껴지는 냉소가 깃 들어 있었다. [중략] 그대로 남은 게 하나도 없더구먼, 한라산과 저 바다만 빼놓고는, 모르지, 한라산과 바다도,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중략] 관광지라는 이름 아래 침식되고 탈바꿈되어, 이제는 실리주의를 통해 생활의 윤택함을 얻었는지 모르나 제주도적인 순결성을 개방해버린 제주도, 김종민이 <제주매일>기자로 있으면서 시리즈 물로 취재 작성한 '제주의 오늘을 진단한다'하는 기사의 주조였다. 절망의 고도(孤島)가 아니라 안식의 품을 열고 반겨주는 희망의 섬으로서, 저 스스로 의연하게 서 있는 제주도, 40여 년 전, 청년 현용직이 열 시간 남짓 걸린 바닷길 끝에 제주 섬으로 돌아와 가슴으로 부여안은 새로운 인식이었다. 두 시각(視角) 사이에 공존하는 이 같은 뜨거움은.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제주도 본래의 숨결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야말로, 여러 이유로 감춰지고 왜곡된 4.3 사건의 진상을 복원하고, 거기에 얽힌 삶들의 한을 푸는 작업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리라. 하산하는 사람들을 뒤따라 내려오면서,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현용직 씨가 묻혀있는 한 뼉 땅, 저 너머, 그가 품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경작했던 한라산을 바라보았다. 한라산은 짙은 비구름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내 가슴속에는, 청명한 한낮 속의 그 자태가 가득히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발아래 어디선가 쿵, 쿵, 쿵 땅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땅울림, 김석희-

저녁 아홉시 국제공항로 지나/한 구비 꺾어 도두리로 진입할 때/악, 속 배설 드

러낸 족보 모른 새 한 마리/날개는 이미 등개져 한쪽뿐 흐릿한 핏자국 피해서/  
 바퀴는 해안도로 지났지/아침 일곱 시 도두리 다시 돌아올 때/꺼떡 울고있는 다  
 른 직박구리/위협하며/뻘질뻘질한 바퀴는 쥘 수 없는 시속으로 획획/  
 구실잣밤나무 차가운 어둠 짙는 가로등 아래/시차선 미끈한 포장도로 위 민첩한  
 들고양이/아무리 재빠르다 한들 뛰어들지 말아라/서성이지 말아라/국제자유도  
 시, 메가리조트, 라스베거스,/차이나타운, 자유무역항, 해상호텔/국제도박산업.....  
 빛나는 말들/케이블카 타고 한라산까지 오르락내리락/방목하던 소도 말도 이제  
 /길 길을 잃었다 서러운 망각의 저편/억눌린 핏자국 푹푹 꺼져 가는데 쉬는 휴  
 아,/꼭꼭 숨어라 불도저가 온다/ 1999 세기말, 제주도는 잘도 간다 밤낮 없이//

-1999 세기말 제주, 허영선-

제주 문학작품에 나타난 역사 공간으로서의 제주는 주로 사용한 다음과 같은 중심시어들을 이용하여 장소와 공간을 재조명하였다. ‘인동초, 5월, 짙레, 안개, 유채꽃잎, 광복50년, 실어증, 비바리새, 휘파람새, 하늬바람, 진달래꽃, 탐라섬, 탐라송, 몽고군, 삼별초, 삼신단, 삼방굴사, 관덕정, 설문대망, 오백장군, 불로초, 한라산정, 백록담, 고향, 달구지, 초가, 동백꽃, 낙락장송, 종려나무, 사투리’와 같은 이미지들을 사용하였고, 시인들이 재구성한 제주역사의 장소와 공간이 나타난 작품으로는, ‘뿌리에 관하여, 그 꽃잎은 바람에 지고, 충혼묘지, 생활일기, 어느 무녀의 노래, 나이테는 푸르다, 월라산, 진달래꽃, 할미꽃, 도라지꽃 꺾이다, 불멸한 성군아래, 들짙레 피는 뜻은, 황소와 탱크, 섬의 뿌리를 찾아, 숨은 꽃을 찾아서, 석양으로 걸어가는 푸른 발자국, 오월의 제주바람, 난 잎이 흔들리면, 유채꽃 맑은 날, 탐바리 전설, 엉경귀 꽃, 청동화로를 닦으면서, 오늘도 고향 초가엔, 시들지 않는 꽃, 제주 수선화, 피뿌리꽃. I.’등이 있다.

#### 4. 4.3의 공간

제주문학 속에는 불어오는 바람 따라 들려오는 이야기가 살고 있는 장소와 공간이 있다. 무심히 무심을 낳듯 귀만 있는 섬은 귀가 있는 사람을 찾아 선듯하다. 한라산자락 타는 바람마다 흔들리는 억새꽃 마냥 보여지고 느껴지는 슬픔들이 대사를 빼앗긴 배우 마냥 말을 잃은 처연한 표정이 비통하다. 얼어죽은 목숨들과 굶어죽은 목숨들이 하늘로 훨훨 날아올라 눈발로 내려친다. 비통한 역



사가 지나간 공간에 눈이 내린다. 쌓인 눈 밟으며 가는 산 자들의 발자국마다에  
들여오는 황급한 여자들이 목소리도 따라온다. ‘아가야 울지 마라. 순사 온다.’  
겁을 주고 ‘된장 줄게’ 달래면 울음 똑 그쳤다가 소금에 생 보리밥보고 다시 우  
는 아이들..... 칙뿌리 파다 보면 손톱에 피가 돌고 부풀어진 터진 발 창에다 어  
미 손이 감싸봐도 목숨은 가시줄처럼 찢기어지고 끊기고 꼬여만 지고..... 까마귀  
는 마을의 떡 구슬 나무에 앉아서 까악 까악 울 뿐 말이 없더라

그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비몽사몽간에 한 섬을 보았다. 그 섬의 들판과 마을들  
이 불타고 있었다. 마구에 매어 있던 짐승들이 불타며 울부짖고, 사람도 불이 붙  
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불타는 집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쏜 총알에 맞아 거꾸러졌다. 그렇게 거꾸러진 사람에게도 불길은 달라붙  
어 그를 태웠다. 산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 화력에 몰려 다시 산으로 도망가다  
가는 고꾸라졌다. 저놈들은 피아(彼我)간에 모두를 죽이려는 것이구나. 저런 전범  
은 관동 군들의 짓거리야. 그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럴 수는 없는데, 저러다  
가는 섬에 아주 휘발유를 뿌리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태워버리겠는데, 하고  
초조했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폭도 출현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 대  
한 무차별 토벌. 이른바 삼진작전(三盡作戰)..... 하자, 그의 몸에 부록 몸서리가  
일었다. 그 몸서리가 그를 깨웠다. 눈을 감아도 떠도 사방이 캄캄하고, 불길이  
올랐을 때처럼 벌겋다가는 검게 변하는 계속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죽은 장군의 증언, 오성찬-

“내가 떠나오기 전, 지난 4월 3일에는 언덕면 동광리의 헛묘예를 가 봤지. 사태  
에 시체를 찾지 못하니까 시체 대신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을 놓고 무덤을 만든  
거였어. 말하자면 바다에 나가 죽어서 시체를 못 찾은 어부의 무덤을 만든 거였  
어, 말하자면 바다에 나가 죽어서 시체를 못 찾은 어부의 무덤 대신 바다가 보  
이는 언덕에 위령비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지” [중략] “있을 수 있지. 헛묘만  
도 동광리의 그것뿐 아니라 딴 지역에도 부지기수로 있다는 얘기가. 그때야 총  
알이 아까워서 죽일 사람을 바다로 끌고 나가 목에 돌들 매달고 빠뜨려 죽이기  
도 했다니까”

-진혼아리랑, 오성찬-

1. 또렷한 기억/하나가 있다.//1948년 4월 3일, 그 날/고는 곳은 동네마다 울타리마다/절레꽃이 만발했었다./텃밭엔 누이가 심어 놓 수수깡이/배불뚝이 코흘리개들을/손짓하고, 또/그 건너 언덕 배기에선 산새들이/즐거워라 마냥 지저귀고 있었다./누이와 난 문득 하늘을 보았다./새벽녘의,//구름 한 점 없이 맑은/하늘, 봄 하늘이었다./한데, 검은 바람이 불고 있었다./거기서 우린 갈라진 祖國/당신의 번득이는 하늘을 보았다/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거기서 우린 또,/당신의 상기된 얼굴을 보았다/우리들의 터진 하늘이었다./그렇다./당신의 하늘, 우리들의 가슴/당신의 얼굴, 우리들의 하늘/그래, 개똥밭이었다./이슬이 댁뚝 내려 있었다./쇠 거름에서 김이 무럭 피었다./어머니와 兄/누이와 난 그걸/망태기에 주워담고 있었다./우리들의/숨결을 듣고, 사랑을 읽고/노래 부르고, 꿈을 키워낼 /

그 소중한 쇠 거름을,/그러다가, 총 소릴 들었다./漢拏山 허리 오름마다/봉황불이 별경게 타올랐다./아우성이 일었다./동네마다 울타리마다/절레꽃잎이 파르르 떨어졌다./이윽고/누이의 울부짖음이 치마폭에 묻혔다./그렇다, 그 봄 하늘의 /검은 바람소리를/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다.//2. 濟州 섬(島)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금가고/곳간이 텅리고, 집들이 불탔다. /이 동네, 저 마을에서/수만 명이 핏덩이로 죽어갔다. [생략]//

-개똥밭에도 이슬은 내린다, 오용수-

송악산에 가서/ 송악산 서달오름에 가서/ 그 옛날 日本놈들 고사포 진지에 가서/너는 무엇을 보았느냐//일본 놈들이 총칼을 보았느냐/일본 놈들이 뿌린 압박과 설움을 보았느냐//아니다, 아니다/4.3사건으로 죽은 녀들을 보았느냐/40년이나 내버려두었던 동포의 피와 살을/ 보았느냐/日本놈도 아니고 美國놈도 아니고/우리나라 경찰이나 군인도 아닌/그렇구나,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누나와 형님과 아저씨들 목숨이었구나//아아!/송악산에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가과도, 마라도에서 오르는 바람을 보았느냐/산방산 오르내리는 눈물 소리를 보았느냐//

-6. 송악산에 가서, 김용혜-

<제주도의회 4.3사건 특별위원회>가 1997년 2월 27일에 공식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양민 희생자는 무려 총 1만 4천 504명(신고:1만 1천 665명, 자료,

증언: 2천 839명)이나 되었다. 학생 가해자별로 보면 외지 세력이 중심이 된 군 관토별대에 의한 것이 83%(9천 674명), 토착의 민군 무장대에 의한 것이 11%(1천 314명), 불과 6%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물결치는 파도 따라 울렁거리는 바다와 정서를 같이하고 한 시도 쉬지 못하는 바람으로 제주 섬을 감장 도는 바람을 문인들은 해야할 이야기,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로 제주 공간을 찾고 있다.

피 밭에 피는 들꽃, 가냘프게 피어서 바람에 꽃잎을 던지듯, 죽음에 이른 나무가 더탱이지게 꽃을 피워내듯이 풀잎들의 삶이란 무릇 질기고 거룩한데가 있었다. 바다의 북부에 서 있고자하는 섬의 염원처럼 한라산 자락을 한 시도 떠나지 못하는 바람처럼 붉은 바람이 머무는 같은 이름의 무등이왓들이 산재해 있다. 무등이왓에 바람이 분다. 꽤나 찬바람이다. 먼 옛날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난다. 슬프고 원통한 이야기가 바람에 실려오나 보다. 4.3 광풍이 휩쓸고 간 제주 땅 어디엔들 슬픔이 고이지 않았으랴 만 무등이왓의 슬픔은 유별나다. 그래서 그런가 바람이 불어오면 오목은 한들이 통곡으로 외침으로 아우성으로 다가온다. 무등이왓은 어디쯤인가? 제주 서부 산업도로를 타고 40여분 서귀포를 향해 다리노라면 쪽빛 바다를 배경으로 작은 피들이 우줄우줄 서있는 그림 같은 풍경과 만난다. 산방산, 송악산, 바금지오름, 모슬봉이 저마다 다른 자태 다른 표정을 지으며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 풍광에 매료되는 것도 잠시. 어느새 차는 동광 6거리 검문소에 미끄러져 들어선다. 차의 속도를 서서히 줄여가며 주유소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 300여 미터를 들어가면 바람결에 댓잎소리가 들려온다. 거기가 4.3사건의 와중에 피바다가 된 무등이왓 이다.

-무등이왓 바람소리, 조명철-

제주 섬의 요새화 계획이 착수된 것은 1942년, 따져 보면 그들이 이미 이곳에서 뺏고, 뺏기는 심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었던가. 그들은 밀리고 밀리면 마침내는 가장 그들의 '내지'와 가까이 있는 제주 섬을 마지막 방패막일로 삼으려 했음이 분명했다. 이 무렵 천혜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이곳은 굴파고 참호 구축하고, 도처에 포대를 세움으로써 처녀를 정신대로 데려다 도륙을 낸 꼴이 되었다. 우리가 예비로 조사해 놓은 시설만 해도 가파도가 보이는 송악산(송악산) 해변에 굴이 15개소나 있었으며, 성산의 일출봉(일출봉) 기슭에 19개소, 서귀포 삼매봉 아니라 제주시의 사라봉과 도두봉 기슭, 함덕리의 서우봉 기

습, 고산의 수월봉 기슭 등 온 섬을 둘러 함정이 접근해 움직인 곳에는 굴을 뚫어 놓고 있었다. 이 굴들은 연합군의 배가 섬으로다가 올 때에 대비. 보트를 숨겨 두었다가 회천 이라는 어뢰를 싣고 나가 부딪쳐 자폭, 폭파시키려 한 의도였다. 그들은 또 대정의 첫알오름 일대에 가미가제 특공대를 양성하던 군용 비행장도 구축해 놓고 있었는데 이들 소형 전투기를 숨겨 둘 목적의 격납고는 이제 까지도 20여 기가 남아 있었다. [중략]...

해안 굴과 비행장뿐만 아니었다. 어느 지방신문이 뽑은 제목처럼 ‘해안에서 한라산까지’ 온통 요새화해 놓은 것이다. 정상 가까운 어승생약을 비롯한 산기슭, 기생화산들에도 그들은 별집처럼 굴을 파 놓고 있었다.

-진혼아리랑, 오성찬-

그 좋은 조건, 천혜의 해수욕장이 있는 함덕 백사장이, 표선 백사장이, 성산 일출, 해 돌아오는 성산포의 일출봉 아래 우뚝개가, 바다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폭포, 이름도 낭만적인 서귀포의 정방폭포, 이 모두가 그때는 살벌한 처형장, 죽음의 장소였다. 죽이는 일이 버거우면 배로 싣고 나가 몸뚱이에, 허리에— 그도 아니면 발목에 담돌 하나씩을 배급받고 부겨부겨 가슴이 찢어지게 찢물을 삼키면서 죽어 갔다고 한다....[중략]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해서 모가지 잘려 전봇대에 매달리기도 하고, 예수도 아니면서 십자로 매달려 관덕정 앞에 여러 날 마르며 전시가 되기도 했다. 귀 잘리고, 목 잘리고, 애꿎게 걸리면 목숨 값하노라고 불알도 잘렸다. 지서 앞 담 줄기에 눈 버룽이 전시가 돼서, 말 안 들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본보기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죽어서 어떤 사람은 들판에 내버려져 미친 개, 도야지 귀 잘라먹고, 코 뜯어먹고 해도 흠 한 줌 덮어줄 사람이 없었다. 까마귀가 눈알 뽑아 먹어도 세상 천지에 쫓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돌아보아 이 너른 섬, 저 높은 한라산 기슭, 360개나 되는 오름 허리 어디에고 사람 시체 안 누웠던 곳이 있을 까, 피 밭 아니었던 곳이 어디 있을까, 아아, 이 모두가 물 막은 섬에 살고, 여기에 태어난 죄였다.

-죽은 장군의 증언, 오성찬-

오늘은 / 어둠이 내리는 한라산 길을/사나이 하나 외롭게 가고 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불려도 대답 없는 사나이 하나 가고 있다//  
[중략] 길은 하나, 한라산 길을/ 외로운 사나이 하나 가고 있다.//

-1. 4月3日, 김용해-

가시리(加時里) 사람들 버들못 가에서/ 76명이 집단으로 처형당하던 날/  
 친구여, 하늘에는 비가 오던가//표선리 백사장에서/ 수용되었던 가시리 사람들  
 학살당하던 날/친구여, 바다에는 바람이 불어오던가//지금은 어떠한가/ 버들못  
 가 그 들판에 꽃이 피고 풀은 돋는가/표선 백사장 피묻은 모래밭에 바다는 올라  
 오는가//밤마다 마을 어귀만 빙빙 돌며/ 잠 못 드는 374명의 가시리 혼령들/  
 지금은 잠이나 들었는가/ 제삿날 밤마다 눈물은 또 얼마나 흘리던가/  
 아직도 무덤하나 제대로 못 찾아/ 버들못 가나 백사장에서/원한 진 바람 되어  
 떠돌아다니지는 않는가//친구여,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웃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아아, 바보 같은 친구야,/ 우리 친구야,//

-5. 4.3친구, 김용해-

4.3이여, 너는 살아있다/ 예수 살이 넘은 우리들의 아버지/그 가련한 기침소리/  
 총칼이 뚫고 간 삼촌의 갈비뼈 사이/ 더러는 움짱달짝 못하는 할머니의 헛소리  
 에서/너는 빛나게 살아나고 있다/ 4.3이여, 너는 살아있다/ 저, 거리거리/  
 조천리 성담이나 화순리 돌밭/ 거기 돌아나는 몇 가닥의 풀잎이거나/표선리 백  
 사장, 오동리 산 고개, 그리고 한내,/ 원장내, 한림 시장터/제주도 곳곳마다 어디  
 든 너는 살아나면서/ 외치고 있다// 4.3이여, 너는 살아있다/ 사라봉 굴속이나  
 한라산 숲 속/ 총칼이 지나간 거리/뽕뽕 얼어붙은 반공호 속이거나 경찰관서의  
 / 신원조회 서류 속/압박과 설움이 뭉쳐진 재판기록의 구석구석/  
 보라, 40년 동안을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백성이었더냐.//

- 9.일어서는 4.3, 김용해-

오오, 4.3이여, 너는 살아있다./ 억누르고 갇히고 족쇄 채운 가슴 속/찢어 버린  
 핏속, 분노와 울음이 영킨 살과 살 사이/時代를 넘어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조카와 손자들의 조그만 손목 안에서도/너는 살아 일어선다./ 40년을 밟  
 아도 죽지 않고/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치며 속삭이며 부둥켜안고 일으키며/  
 4.3의 풀잎들은 살아나고 있다.//

-제주 4.3을 노래한 시집, 김용해-

濟州의 가을/ 억새꽃 피는/ 가을에는 친철히 걸어가자./ 漢拏山기슭/ 중산간/  
 온 들판에/슬픈 눈빛을 하고/ 하늘에 호소하는 몸짓으로/ 울고 있는/ 수만 수

수천만의/ 젖은 눈빛들을/눈여겨보며/ 우리 되도록 천천히/ 천천히 생각에 잠겨  
 걸어가자.//[중략]한라산 기슭/ 중산간/ 온 들판에/ 헤일 수 없이 흐트러져  
 / 떨고 있는/ 수만 수수천만의 /젖은 눈빛들을 바라보고/ 저들의 슬픈 가슴을/  
 슬픔의 意味를/ 지나간 나날들의/제주의 슬픔과 아픔을/ 골똘하게 생각하며/  
 생각하며 천천히 걸어가자.//바람과 돌과 여자의 섬/ 濟州三多에 하나 더 꽃을  
 곁들여/ 억새꽃의 섬./누가 그렇게 표상하며/ 예술의 이름으로 그려내고 연주하  
 며/ 노래하고 춤추며/詩의 이름으로 부르며 찬미했는가.//날개가 부러진 새 한  
 마리/ 무엇을 갈망하는가./ 억겁의 恨을 품었지만/오늘도 바다 한복판 영영 떠  
 나지 못하고/ 파도에 흔들리는 불면의 꿈./ 바람의 날개/바람의 비상을 꿈꾸는  
 가.

-바람과 억새꽃 · 1, 사랑과 平和, 강통원-

무릅쓰고 섬꽃들이 핀다/ 무릅쓰고 섬꽃들이 핀다//내 할아버지와 내 할머니와  
 내 아버지와/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태흥 신흥 토산  
 세화 표선 하천 신천 신평 삼달 신산 온평 성산포/오조 시흥 종달 하도 상도  
 세화 평대 한동 행원 월정/그 어디쯤에 내 작은 누님과 작은 누님 같은 사람들  
 이 살고/신촌 제주시 동귀 하귀 신엄 고내 애월 꺾지 금성 귀덕 수원 한림/  
 옹포 협계 금능 월령 판포 신창 용당 용수 고산 신도 무릉 영락 서림/  
 동일 모슬포 보성 사계 덕수 화순 감산 창천 서귀포시/그 어디쯤에 내 형님과  
 형님 같은 사람이 살고/신계 위미 남원 태흥/그 어디쯤에 내 어머니와 나와 내  
 누이와 내 동생과/내 어머니와 나와 내 누이와 내 동생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  
 다//비에 젖어서 바람에 불려서 고개 꺾고 마음 접고/견디며 견디며//  
 똥장들아/각다귀 郭公 새대가리 똥장들아/ 주먹 불끈 쥐고 섬꽃들이 핀다/  
 이 악다물고 섬꽃들이 핀다//

-濟州 섬꽃, 강중훈-

濟州 억새꽃/ 누가 여기에 풀 씨를 뿌리고/ 꽃씨를 심었는가./어느 천사 어느  
 仙者인가./구름에 실려왔는가. 바람에 불려왔는가./ 파도에 밀려왔는가./ 새의  
 날개에 묻어 날아왔는가./ 아니면 어느 정복자/ 어느 짐승의 발굽에 붙어왔는  
 가.//[중략]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적인/ 자연의 生態學인가./ 제주의 억새꽃/ 그  
 것은 제주의 핏줄이 아닌가./ 제주의 핏줄에 피는 꽃/ 濟州島 구석구석 흘러들

며/핏방울이 떨어진 곳이면 어디고 퍼져나간다./ 어느 산과 들 어느 물가/어느 산비탈 산기슭 어느 구렁/ 밭길 닿는 박토 어느 사력지에도/끈질기게 뿌리내려 / 줄기차게 줄기차게 뻗어나가며/강인한 根氣로 피어나는 꽃. [중략] 실로 사랑스럽고 자랑스런/ 그것은 濟州의 꽃이다.//[중략]바람이 흔드는 개선의 깃발이 아니라/ 바람의 도전에 저항하는 깃발이다./느닷없이 굴절하는 歷史의 바람을/ 강렬한 열정으로/한정 없이 헤쳐나가는 슬기와 힘/ 불사 불멸의 表象/그것은 영광스러운 제주의 꽃이다.//

-바람과 역새꽃 · 3, 핏줄과 根氣, 강통원-

사태 후 노인은 차마 오소리굴에 연기를 놓을 수 없어 오소리 사냥을 포기했고 늦가을의 목장에 돋는 말뚝버섯들도 눈물겨워 켈 수 없었다. 말이나 소의 젖물이 땅에 떨어져 생긴다는 말뚝버섯들, 올망졸망 모여 있는 그 버섯가족들을 보면 그가 가리킨 굴속의 그 가족이 생각났던 것이다. 노인이 초원을 떠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슬픔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이제 걱정이 아니었다. 그 잔잔한 슬픔은 마치 가슴속에 마르지 않는 찬 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때로는 무서운 걱정에 사로잡혀 영감하는 소처럼 들판을 향해 울부짖기도 했다. 초원의 안개는 여전히 죽은 자들의 슬픈 영혼으로 무리 지어 떠돌고, 입자 없는 백골들이 아직도 어느 굴렁, 어느 굴속에 뒹굴고, 풀 뜯다가 풀 속에 숨어있는 녹슨 탄피까지 잘못 먹어 장 과열로 죽는 소도 있건만, 세상은 초원의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희생자의 유족들도 체념해버린 지 오래였다. 서울 뚝섬 경마장에서 기수 노릇하다가 경기도중 쇠파이프를 들이박고 머리 다쳐 반병신 꼴로 낙향한 오촌 조카, 다섯살 때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뇌수술을 받은 후로는 기억에서 흔적 없이 없어져버렸다고 서럽게 울곤 했다.

- 마지막테우리, 현기영-

이제 한 미친 시대는 가고 말았다. 그러니 오늘 내가 박 노인에게 할 말은 왜 아버지를 끌고 갔으며 가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추궁하려는 게 아니었다. 무덤 없이 죽은 아비를 제사지내는 자식된 도리로서 다만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이 어디냐고, 그래서 삼십여 년 안착 못해 허공 중에 떠돌아다니는 혼백을 거둬 드리고 싶은 욕심 뿐 이었다. 그곳이 과연

어딜까? 아버지가 삼십여 년의 풍상에 닳인 애잔한 흰 뼈로 남아 있을 곳은? 대동아 전쟁 때 일본군이 방애오름을 뺄 돌아가며 여기저기 굴을 파놓았다는데, 거기일까? 아니면 자갈 무더기 속인가. 가시덤불 속인가? 중략..... 노인은 나에게 꼼짝달짝 할 수 없게 붙잡힌 초라한 약자에 불과했다. 시침때지도 못하고 그 처형사건을 고스란히 시인해야 하는 노인의 정신적 충격은 얼마나 클 것인가?

- 길, 현기영-

제주의 역사공간으로서의 4.3의 경험을 문학 속에서 찾아본 이유는 구체적인 4.3의 장소를 찾고자함에 있다. 투안에 의하면, 경험은 수동성을 내포한다. 즉 경험은 어떤 사람이 겪어오거나 견뎌온 것을 의미한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은 사건으로 유익함을 얻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성숙한 인간이나 미성숙한 인간이 된다. 따라서 경험은 사람이 겪는 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경험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즉, 경험은 주어진 것(소여, the given)에 따라 행동하고 그 주어진 것으로부터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진 것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경험의 구조물, 즉 감정과 사유의 창조물인 실재이다.<sup>10)</sup>

제주시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4.3의 공간은 이유 없는 죽음으로 더욱 원통한 제주사람들의 가슴에서 성숙한 정서로 피어나서 사유할 수 있는 장소로 탄생할 것을 한결같이 염원한다.

‘지구의 피, 억겁의 한, 산비탈, 꽃 깃발, 여정, 바람과 억새꽃, 격전의 전초지, 태풍권, 생명선, 비폭력저항, 선혈, 쑥대밭, 제주의 자존, 저항하는 깃발, 제주의 꽃, 호박꽃, 할머니, 보리밭, 산새, 초가, 4월, 유채꽃잎, 죽창, 젖무덤, 목탁소리, 해탈문, 진달래꽃, 4월3일, 짙레꽃, 개똥밭, 한라산’등으로 그 사연이 많고 깊고 처연한 채로 지천에 퍼져 지울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한다.

<sup>10)</sup> Tuan, Y. F.(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원문은 “Experience has a connotation of passivity; the word suggests what a person has undergone or suffered. An experienced man or women is one to whom much has happened. And human beings are mature or immature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benefited from events. Experience thus implies the ability to learn from what one has undergone. To experience is to learn; it means acting on the given cannot be known in itself. What can be known is a reality that is a construct of experience, a creation of feeling and thought.”



그들의 억눌러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 끝이 없는 노래처럼 장엄하게 전개되고 있다. ‘억새꽃 들판에 서서, 기억의 잎새, 제주 억새꽃, 바람과 억새꽃, 억새꽃의 춤, 억새, 비오는 날의 억새 밭은, 가을의 시, 제주도를 노래한 시집, 제주 4.3을 노래한 시집, 피사체로 나왔은 가을, 사월의 끝’ 등이 있다.

## 5. 까마귀와 팽나무

제주문학의 작품 속에는 전설이 하나 자라고 있다. 대천 바닷 위의 너브작한 섬에는 설문대할망이 짜려했던 마지막 한 벌의 옷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야기 속에서만 들려주는 미완성의 옷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찾아야 할 비법인지라, 돌, 바람 위은 땅이 옷감 인 줄은 팽나무의 까마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보면 전설의 옷은 할망의 소원처럼 열심히 운명처럼 만들고 또 만들어왔지만 어떤 옷으로, 누가 입을 지, 언제 입을 것인지, 그 모두가 신비인지라 아무도 사실을 아는 자가 없었다. 어느 곳에서 어느 만큼이 완성이 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이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전설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언뜻, 까마귀 한 마리가 그 옷을 보았다. 할망이 말한 옷을 제주 섬이 입었다는 것을 보았다. 바람 부는 가을 어느 저녁에 억새꽃으로 제단 된 너른 경작지를 보았다. 돌 틈에서 자라 바람을 타야 옷을 수 있는 억새꽃이 제주도의 옷이 되어 주었음을, 팽나무 위의 까마귀 한 마리는 전설 속의 옷을 찾아내었다. 바다 위로 가야하나 들판으로 갈까 산으로 갈까 마을로 가나, 날아 갈 곳을 찾아 바람을 찾고 있던 까마귀는 乾川이 만들어 놓은 깊고 넓은 이랑 사이 그 틈 새로, 잔뿌리, 긴 뿌리, 생명의 뿌리를 처연히 드러내며 서 있는 팽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다. 설문대할망의 후예들은 옷을 지어야 함을 그리고 자신은 ‘날아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던 까마귀는 문득 제주도를 본 것이다. 그 때는 온통 섬의 하늘로, 섬의 바다로, 수평선 너머로 돛배가 되어 바다 갈매기처럼 섬에서 받은 운명을 떼어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팽나무에 바람이 머문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은 바람이었다. 나는/거옥대(防邪塔)위에 부서져 흐느끼다 검은 구름 따라 어디론가/홀러가는/ 바람이었다. 바람으로 지나가며 쏟아 버린 회

한도 많았으나,/나는/ 바람이 되어 늘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나는/억새 숲을 바라본다. 찬비 내려 창자까지 젖은 처참한 억새/사이로 늦가을은 서성거리고, 나는/ 불꺼진 창에 칼칼한 기침 문신처럼 박힌 초가집 돌담을 맴돌다가,/ 나는 어디로 가나./바람 불어 좋은 날은, 바람이 되어 쓸쓸하게/ 흐르면 그만이지만, 나는/ 돌담에 온몸 처박아 비새(悲鳥)같이 흐느끼면 그만이지만,/나는/겨울 문턱에 서서 떠날 수 없는 아, 답답한 백치의 영혼이여./말을 못하고, 꿈, 꿈 신음만 하고 가는,/갈기갈기 찢어지는 바다에 무적(霧笛)이 울고, 나는/갈 길을 몰라 좌초하고 있다.//연인들은 열리지 않는 물 마루를 바라본다, 나는/물 마루 끝에 신기루를 세운다. 나는/바람의 옷을 벗는다. 나는/까마귀다. 나는/까마귀다.//서북녘 시베리아에서 오는 야쿠트 족의 무당 쇠북소리 들으며,/나는/독한 담배를 피워, 천상을 날며, 그래 나는 차라리 새가 되어야지,/바람으로 흐르다, 천년의 한이 쌓인 돌담에 얼어붙어 새가 되어야지.//

-까마귀, 변시지 화백의 그림에 부쳐,문무병-

까웁까웁까웁까웁까웁까웁까웁까웁까웁/천둥이 울리는 공중에/흐려 쓴 붓글씨 //충혈된 눈빛으로/시커먼 부리를 치켜들고/노을을 갹아먹는 소리//벼락맞은 고목에 앉아서/無望을 쪼아먹고/침묵하는 동안/밤은 어둠이 출렁이는 강//불멸의 詩集도/망각하는 억만의 시간 속에/부화하는 새//까웁까웁까웁까웁까웁까웁까웁까웁까웁/태양의 둘레에/춤추는 까마귀.//

-까마귀, 고훈식-

제주문학의 작품에는 제주 땅에 실존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이 유가 생략된 울분, 분노, 수난, 설움, 흔들림이 구름처럼 따라 다니는 인간이 그려지고 있다. 답답함, 그렇저렇 살았 시든 살아진다는 한마디로 말을 다 해버려서 ‘어떻게, 무엇을’에 관한 小論이 짝을 펴지 못하고 씨앗인 채로 가슴에 몇 년이고 남아있는,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이 말문을 열어 줄까봐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참으로 말 생략이 심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혼자서 꿈을 꾸다. 막연히 어디론가 그냥 떠나고 싶은, 바람같이 잡히지 않는 연기의 한 자락 같이 생겨난 생각이라 옆 사람 붙잡고 들려줄 인간의 목소리 한 음절 발화되지 않는다. 머리 속에 그럴 뿐, 始原을 향한 그림으로 남을 뿐. 바다소리, 바람소리에 인간의 소리를 잠을 재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상상을 한다. 바다 속, 바람 속,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약속된 바람은 /스스로 폐허의 들판을/만들어간다/숨막히던 限을/가슴에 쌓아/  
 까마귀 떼 울며 날아/역새에 지고 있다/하루의 긴 여음으로/꿈틀대는 삶을 꾸  
 러주던/햇살이 지면/쓰러짐의 합창에/뼈 에이는 수난을 떠올리며/혼자 설 수  
 없는/길다란 풀잎에 눈물이 어려//우리들역사는사람들이야기/역새이야기는한라  
 산역사//널리 널리 휘둘러간/할아버지들 설움/죽창이 되지 못한/옛 섬동네의  
 흔들림/그 흔들림에 실려/들녘 여기저기서/주저앉아 부르던/역새의 노래는/별  
 곡으로 사라져가고/휘- 이-//

-역새별곡, 오승국-

까마귀 떼들이 내려앉은 가을 들판은 돌 별판이다. 지천으로 몸 비비며  
 풍화되어야 하는 현무암들은 때론 까마귀의 부리에 인간의 피를 상납한다. 까마  
 귀는 상전처럼 석좌를 품고 앉았다. 마치 살점을 놓고 뼈 에이는 수난의 논공상  
 쟁을 논하는 왕과 병장들의 석고대좌하고선 , 그들은 점점 상벌에 사뭇 진지해  
 저만 가고, 돌 들판에 이는 바람에 역새들은 흔들려 피어나고. 살점을 떼어낸 한  
 노파는 갑자기 바다보다 더 넓은 피의 잔치에 해야할 말을 찾는다. 들려줘야 할  
 말을..... 바람 불 때마다 할망 별곡이 들려온다, 가없는 들판에서부터. 피의 냄새  
 에 본능적인 까마귀는 그 때 이후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한 노파의 은발  
 을 볼 수 있을까?

팽나무 잔뿌리처럼 갈라진 시선으로/ 한 노파가 먼 들판을 응시하고 있다/그 옆  
 한 아이가 웅골찬 모습으로/ 땅바닥을 주시하고 있다/그 등뒤로 아름답리 팽나  
 무 서 있다/ 아 추억의 저편으로/사라져간 아들의 환영이 보인다/ 아버지의 핏  
 자국이 얼룩진다/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알 수 없다 한순간에 모든 것은 달  
 라지고/딩그라니 우리만 여기에 놓여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  
 르리다/남아있는 사람의 그 깊은 고통을/ 마을이 화염덩이로 변하는 순간/통곡  
 할 사이도 없이 마을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핑핑 총탄 터지는 소리도 들렸다/  
 사람들은 방향감각 없이 이리저리 뛰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모진 생명만  
 이 세상 살아가라고/ 우리를 남겼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할 것이냐/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눈물 몇 조각도 없다/ 캄캄함만이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길보  
 다도/ 더 캄캄하게 타오를 뿐이다/그래도 우리는 일어나 어디론가/ 가지 않으  
 면 안 되는 것인가/타 들어가는 시체와 곡식과 집들과/ 오랜 세월 폭 길들여진

찢든 사랑과/그러나 삶은 어디론가 가라한다/ 가서 팽나무처럼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살라 한다//

-시원(始原), 강요배 화백의 그림전을 보며,김광렬-

삶은 어디론가 가라고 하고, 가서는 팽나무의 뿌리처럼 박혀 뻗으라 하고 .....이 막연한 동경, 떠남에 대한, 간혀진 이 곳을 떠나면 동시에 길과 길은 있을 것 같은 상상. 모진 생명만을 남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어디를 가나 몰바다.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눈물 몇 조각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어디론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찾아보자. 이 정서를 담은 곳, 이 마음이 씨를 품을 수 있는 흙을 찾아서, 나의 공간을 찾아서 떠나가 보자.

어디/어디로들/아직도 체온은 남도는 데//무슨 색깔로 남았을까/주인 잃은 / 이 빈 공간//당신은 무엇을 찾아/이 빈터를 남겼습니까?//구석진 모퉁이에 / 찢어진 /깃털 하나는//과거는 군버즘처럼/잡초 위에 무성하다//귀통이/흔적 거두면/빛 한 줄기 머뭇거린다.//



- 빈 터1, 신승행-

어어 여보시오/도대체 /어디로들 가는 것인가//숨소리는 험거덕/저 급한 걸음 들//가는 곳/어디냐 하며/홍분된 길 이야기.//아아니/失蹤이라 했나요 인간까지도? 음 .....//땅을 두드리는 눈물주머니/한숨도//결국은/어느 위대한/그 어떤 분이 만든 흑점 하나인 것을.....//

-실종(失蹤), 신승행-

----저녁이 지지/억새꽃들은 바보같이/참, 바보같이 드러눕고 말았다//건들건들 바람이 건너와 눕고/민둥오름<태왓>위로/허영계 별빛들이 쏟아지는데/어찌자고 너는 쓰러져 눕고 마느냐.//섬이 쫓겨나고 있다//詐欺당한 <빌레발> 구릉진<낭터>/枯草의 무덤들과/해안 기슭 우리의 田畠들은/이미 파헤쳐지고 밀어내어 허허로운 空地가 되어버렸다//너는 아느냐, 이제/제주 섬이 밀려가고 있음을/開發이란 미명아래/섬 바닥 갈아대는 포크레인의 車3音を//별정계 부어오른 바다의 등살/달려오다 되돌아서서 파도야/억새꽃들아, 왜 누워버리고 마느냐/쓰러져 눕는 네 자리에/바람인들, 별빛인들/무슨 위안이 되는냐//남아 있어야 한다/남을

것은 남아 있어야 한다/지킬 것은 지켜져야 한다/죽어 가는 바다의 푸른 절벽과  
/잃어 가는 純白의 마음들이/이 고장 가난한 언덕일망정/꽃꽂이 살아있어야 한  
다.//일어서라, 일어서 흔들리고 있어야 한다/역사는 살아서/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어야 한다.//

-제주역새꽃①, 김용길-

밤새 뒤척이던 역새꽃들아/이제 일어서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거라/고통의 씨앗  
은 땅에 묻히고/새순 피워 올리기까지는/꽃꽂이 일어서서 흔들리거라/저 바다  
의 푸른 산맥들이 /층층이 이어져 오고/풀 이슬 밟고 뛰어넘는/산 마루 길 노  
루 떼의 울음이듯이/네 악착같은 根性的의 씨앗을 뿌리거라/한라산 숲 그늘/오름  
이란 오름마다/질긴 네 생명의 뿌리를 내리거라//바람이여, 同參하라/천리 사방  
으로/바다의 등을 업고/제주 땅이면 어디든/날아가 달라붙어라//어느 곳인들/  
너의 몸 흔들리는 바람이게 하라/흔들리는 꽃들과 함께/우리 역사 흔들리게 하  
라/살아있음의 가장 확실한 증명이듯이.//

- 흔들리는 꽃, 제주 역새꽃, 김용길-

까마귀와 팽나무의 들판에도 역새꽃은 피어서 남은 것은 남아 있어야 한  
다고 지킬 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한다. 시원(始原)을 벗어난 논리에서 보면, 죽어  
가는 바다의 푸른 절벽과 잃어 가는 순백(純白)의 마음들이 곧, 제주 섬의 가난  
한 언덕일망정 제주 사람들은 꽃꽂이 살아있어야 한다. 제주의 사람들아, 일어서  
라, 일어서서 흔들리고, 마냥 흔들리고 있어야 한다. 역사는 살아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에 의해 고정된 시간과 장소를 박차고 진화하노니, 미동(微  
動)의 흔들림은 있어야 한다. 바람이여, 동참(同參)하라. 천리 사방으로 바다의  
등을 업고 제주 땅이면 어디든 날아가 달라붙어라. 어느 곳인들 너의 몸 흔들리  
는 바람이게 하라. 그대 제주인들 바람으로 존재하나니 그 바람에 흔들리는 꽃  
들과 함께, 우리 역사에 흔들림의 미동이 존재케 하라. 움직임! 그것은 살아있  
음의 가장 확실한 증명서이다.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예술공간으로서 팽나무와 까마귀로 나타난다. 팽  
나무 위의 한 마리 까마귀로 그려진 제주의 모습은 한 편의 회화적 이미지로 다  
가온다. 투안에 의하면, 인간의 공간조직은 독특하게 시각에 의존한다. 보는 것  
과 생각하는 것은 밀접히 관련된 과정이다. 오랫동안 인식되어온 보는 것은 빛

의 자극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은 선택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 환경의 자극은 목적 적인 유기체의 의미 있는 기호(sign)를 제공하는 유동적인 구조로 조직된다.<sup>11)</sup>

제주시인들이 그려낸 예술공간 속의 나무와 새는, 생활의 뿌리를 잊지 않고 버틴 팽나무와 까마귀 울음소리로 바람 잘 날 없는 제주인의 삶을 말해주는 듯하다. 시인들이 주로 사용한 중심시어들은, ‘유채밭, 바다, 밀감꽃, 주인, 콩밭, 유도화, 바다, 수평선, 꿈, 보목리, 핏줄, 상사화, 치맛자락, 한라산, 추억, 산방낙조, 평대리, 비단옷, 탐라국, 사슴, 오동잎, 호선, 무지개, 거리, 반원인연, 두견새, 구름, 묘지, 고향, 굴꽃, 시골, 보리피리, 누님, 법화경, 사금파리,’등이다. 뿌리를 헤쳐 땅 속으로 파고든 팽나무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정작 인간의 말을 뱉지 않는 까마귀의 울음으로 팽나무 마을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 시인들이 구성한 제주의 장소와 공간의 가시성이 뛰어난 작품으로는 ‘기러기, 시인과 예언, 새끼 새 한 마리, 대천동 계곡의 피리새, 한라산 매미, 제주 휘파람새, 벼랑의 새들, 한라산 뼈꾸기, 까마귀, 까치 밥, 산 까마귀, 비바리 새, 새는 숲에만 사는 게 아니다.’가 있다.

## 6. 추사적거리와 이중섭의 거리

제주문학의 작품 속에 한 채의 조형공간이 등장한다. 바람과 돌로 역사를 만들어온 제주 사람들이 들판에 처연한 역새꽃을 피우더니 사람이 깃들여 사는 곳으로는 바람이 조용하게 머물다 가도록 키 낮은 모습의 초가를 지었다. 정의현 바당이 일어서서 바람을 보낼 때는 모슬봉 기슭에서 한라산 길로 이어지도록 제주 초가 안, 밖거리를 안성마을에다 재현하였다. 인간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는 길에 올래를 만들어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과 대문을 연결하였다. 추사의 적거리, 이중섭의 거리를 모슬포와 서귀포에 각 각, 떠나간 사람들이 그리워져서 자꾸 찾아오고픈 사람들이 설계하였다. 영혼이 거주하던 사람의 몸체는 썩어서 흙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공간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로

<sup>11)</sup> Tuan, Y. F.(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원문은 “Seeing, it has long been recognized, is not the simple recording of light stimuli; it is a selective and creative process in which environmental stimuli are organized into flowing structures that provide signs meaningful to the purposive organism.”

世世히 남기고자 하였다.

1. 등짐을 부러 놓고 추사관(秋史館)에 들렀었지/한 평 반 토방에선 강물소리 그득한데/모슬포(慕瑟浦) 매운 바람만/지계문을 흔들고.//세한도(歲寒圖)에 담은 녀을 몇 마디 여쭙었지/소나무 저리 두고 눈 덮인 동산 향해/두 눈을 지그시 감고/고개만 내 저었지//2. 두 손을 움켜쥐면 수선 하나 피워낼까?/감았던 눈을 뜨고 하현달을 바라보며/내 등에 짐을 지운다./그 수선 뿌리 같은.//세상의 뒤쪽쯤엔 저 단산(簞山)도 말이 없네/먹을 간다. 가슴을 간다. 바닷물로 산을 간다./붓매에 머무는 눈매/물소리만 들려라//3. 고개를 끄덕이면 저 달빛은 더 환한데/어인 일로 지지 못해 가지 끝에 걸렸을까?/산자락 저리 휘어도/저 바다는 푸르를까?//돌아서는 내 발길을 하늘만 쳐다보네/뜰 앞 잔설 위를 낙관 찍듯 밟아 본다.//오늘 밤 나의 발원을 /눈송이야 쏟아져라./

-流配地에서, 양영길-

초가가 있고 장독이 있는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는 안 거리가 있고 밖 거리를 지나 이중섭의 걸었던 올레를 그곳에 놓아본다. 모슬포의 바닷바람 코지에 가짜를 태워버렸던 어린아이만큼 한 영혼의 순수를 지키며 살아낸 이중섭의 거리는 갯마을의 비릿함과 짝조롭힌 바닷바람에 몽그라 들지 않을까. 풋성귀가 소금에 절러지듯 순수함의 결정이 강하게 남아있을 것 같다. 황소의 뿔로 황소의 독지로 황소에게 말을 거는 그의..... 철저히 주변인이 되어 완벽하게 주변인으로 간 그가 현대의 공간에 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공간에서 살면 어디로 향하는 세계로 이어주는 길을 만나게 될까? 그 길을 걸으면 우리가 밟는 땅은 어디메 즈음이 될까?

그 길을/누가 지나가는가/풍낭 그늘 한낮을 머물다/호젓이 지나가고/돌담 밑 풀 썩/흔들던 몇 올 바람/소리 없이 지나가고/인생의 한 길 같이/비스듬히 굽어 내려간/그 길은/누가 지나갔는가/뒤돌아보면/길은 비어 있는데/길은/마을로 닿아있다.//

-올레, 문복주-

\*올레: 집이나 마을로 들어가는 작은 소릿길.

추사 선생님,

엿그제 정월 대보름날에 연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높이 띄우기 위해 보름달 같은 연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다도 잠들어 버린 듯 바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도 잠들어 버린 듯 바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곤두박질쳐진 연줄을 잡고 젖 먹던 힘을 다해 달리면서 겨우 떠 올렸는데 그만 그만 전기 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엮히고 말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차가운 밤을 혼자 떨기엔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아침 이슬 사이를 동박새 한 마리가 빠릭빠릭 노니는데 찢기고 찢겨 바람이 불어도 날 수 없이 무거운 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연을 만들 때에는 수평선까지 닿도록 파란 바닷물을 담뿍 드러 놓겠습니다.

-연날리기, 유배지에서 보내는 편지.5, 양영길-

추사 선생님, 여름입니다.

이런 더위는 사상 처음이라고 떠들썩한 여름입니다.

지난해는 비가 많아 울부짖더니, 올 여름은 목이 타서 물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입니다.

지난겨울, 큰 눈 오던 날 이 생각나서 추사관에 들렀습니다.

세한도 앞에 발이 멎었습니다.

몇 그루의 소나무 그 아래 판자 집

늘 정리해야 한다고 되뇌면서도 어질러 놓기만 하는 나의 유배를 생각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집을 뒤흔들며 하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냇물이 불어터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목덜미까지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렸습니다.

잠이 깨었습니다.

추사관 밖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소나무 한 가지가 꺾이는 소리를 아득히 들었습니다.

-여름 또는 겨울, 유배지에서 보내는 편지.3, 양영길-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유배를 생각해본다. 유배의 공간은 어디도 있을 것 같다, 몸은 비록 이 사회의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사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지식인이



라면 그는 정신적인 유배자가 아니겠는가. 유배는 곧 그가 살고 있는 사회로부터의 단절, 역사로부터의 고립이 아니겠는가, 역사 속의 지식인은 언제나 나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유배의 절망을 이겨내고 유소를 창조적 공간으로 만들어 훌륭한 공간을 남긴 이들 이야말로 결코 나약하지 않았다, 역사 속에서 이들은 유배를 통해 자랑스럽게 승리한 것이다. 유배지에서 지식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 본다, 이들이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외로움과 절망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로움과 절망감의 빠져린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좌절로부터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자기 내부와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외로움과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제2의 탄생과도 같은 창조적인 집념에 생명을 걸어야 했다. 모든 예술작품은 그 예술가의 인생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러기에 유배지에서 창조적 정열로 스스로의 절망을 이겨낸 사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한 영원히 시들지 않을 찬란한 꽃을 피웠다.

- 유배지, 문순태-

사람이 짊어진 운명은 살아내는 이의 의욕을 비껴갈 때의 이질감. 삶의 과녁을 향해 매진하면 할수록 운명의 과녁으로 빨려 가는 힘. 만들어내고자 하는 길은 가야하는 길을 정녕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인지, 삶의 궤도에서 치열하게 투쟁한 사람들의 삶은 세세히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각인 되어 살아간다. 시간을 초월하여 생각나는 것, 들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찾아지는 것, 내 삶의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있어 위대한 것이라면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 다시 와서 살게된 이들의 위대함은 평범한 자들의 발길을 동여맨다. 그가 처절히 가난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사랑했었을까? 계, 닭, 물고기, 나무를 사랑했던 이방인. 이제는 '신화'가 된 그의 '일상의 이야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겨우 작품 몇 점 팔아 생긴 돈을 거리에서 만난 불쌍한 사람에게 몽땅 주어 버렸음. 아궁이에서 그림을 불쏘시개로 쭈셔놓고 태우며 "잘 타라, 잘 타라, 가짜 그림아"하고 중얼거린 대구여관생활 할 때의 이야기..... 배를 타고 제주 바닷길 건너온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외롭고 배고픈 이중섭이가/ 서귀포 바다 자갈밭에 앉아/듬북 계를 산채로 씹어 먹으며/ 담배 은박지를 손톱으로 긁어 성난 황소를 그렸다.//우동과 간장으로

허기를 메우고/ 낡은 개털 외투를 입은 채 새우잠을 자면서/남덕군의 보드라운  
입술과 통통한 발목을/ 꿈속에서/끌어안고 코를 골았다//소주와 보라성계에 창  
자가 혈어 피똥을 싸면서도/발가벗은 아이들이 천도복숭아로 보이는지/ 살찐 칼  
치를 붙들고 웃는 아이들과/소고기를 위한 소, 닭고기를 위한 닭,/ 유방 달린 개  
구리도 그리고는 가짜 그림이라고 호느꼈다/영양실조에 걸려 비틀거리면서도/  
균불 꺼진 방에서 죽은 사람을 그려놓고/편안하게 혼이 잠든 그림이 되기를,/  
눈물 적신 붓으로 초상화의 눈자위를 칠하던 이중섭.//

-화가 李仲燮, 고훈식-

게를 보면 눈물이 났다./.....슬픈 觸手처럼 툭 붙거진 쪼그만 그 눈깔/ 한나절  
말동무하다가 슬몃 집게발을 열면, 비로소 한 뺨 은박지에 왁자지껄 쏟아져 뛰  
어 다니는 아이들./허기에 지친 날이면 게를 잡고, 가버린 사람 다시 떠오르면/  
굽은 놉을 삶아 어린 것 들의 배를 채워 주었다./그러다가 목이 메여/ 그 남자  
는 죄스럽다고 온종일 게만 그렸다.//아니, 아니, 게들은 그의 착한 손끝에 재갈  
재갈 기어 나와/ 건강한 팔뚝을 그렸다./ 푹푹푹 손마디 꺾으며.....//

-가난한 肖像, 김지연-

\* 이중섭은 제주 피난 시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게를 자주 삶아 먹었다고  
한다. 당시의 생활상이 반영되어 그의 작품에는 아이들과 게를 소재로 한 것이  
많다.

삭탈관직/머나 먼 유배의 뱃길에/벗어 던진 갓처럼 흔들리며/빠져린 역사의/길  
목을 지켜온 무인고도/한의 섬//[중략]원망스런 눈길을 돌려/남쪽 하늘에/무심  
한 한라산을 바라보며/한 많은 뱃길을 재촉하면 유배의 후예들의 사는 땅/제주  
도/바람의 섬/파도의 섬//

-관탈1, 강통원-

말깨나 호는 사람/글깨나 쓰는 사람/이레 오라 저레 가라/오렌호민 오곡/가렌  
호민 가곡/영도 호곡 정도 호당/또 말이 하난 안 되키여//말이 너미 늦쓰랑 안  
되키여또 글이 너미 늦쓰랑 안 되키여/영 고락 정 고락/이레 심어당 또리곡/저  
레 심어당 가두곡/호당 호당도 버천/이런 놉딜 이시넨 호명/보낸디가 제주 땅  
이여/와분디가 제주 땅이여/제주 땅엘 왕 보나네/ 송우암도 왕 잇곡/ 김추사도

왕 있곡/말께나 하는 사람 /글께나 쓰는 사람 /문닥덜 왕 이서라 /제주 땅엘  
와 이서라//

-말이 늦쓰랑 안되키여, 김광협-

문학작품 속에 나온 제주 사람들은 말이 없다. 자연의 이야기를 듣기에  
능해서 많은 것을 생략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말은 '산다'와 '죽는다' 처럼 지극  
히 생략된 크고 무거운 것들을 '사노라면' 한마디로 묶어버린다. 말께나 하는  
사람 글께나 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만난 것은 참으로 축복인 셈이다. 바당에  
싸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별다른 소꿉놀이가 없는 그들에게 말과 글  
은 조근조근 해야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시대에서 격리되어 그들은 한결같이  
미래를 만났다. 그들은 제주사람들의 삶을 승화케 하였다. 소로 태어나지 않으면  
여자로 태어난다고 알고있는 삶에 인간으로서의 노동의 숙연함을 인식할 것을  
명한다. 이중섭, 그는 일제와 6.25 전쟁에 갈기갈기 찢기고 내버려진 삶과 영혼이  
었다. 그나마 서귀포는 그런 그에게 있어는 가장 안정되고 행복했던 시간. 한 평  
남짓 서귀포 골방에서 <황소>와 함께 <서귀포가 보이는 풍경>, <해변의 가족>  
등 바다 소재의 작품을 남겼다.

놀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나려나려 이제 여기에/고옴게 내려//두북두북 쌓이  
고/서글프고 그리운 것//아름답도다 여기에/맑게 두 눈멀고//가슴 환히/헤치  
다.//

-1951년 이중섭의 피난방에서 쓴 시 '소의 말'-

한반도의 그 많은 섬 가운데 제주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추방 및 격리를  
위한 최적지의 유배지로 각광을 받았다, 조선의 수많은 지식인들을 감금시켰고  
유폐시켰던 유배의 섬, 제주도, 오늘날 신흥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주도가  
절망과 외로움으로 뒤범벅인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땅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문명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정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바람이 드세  
고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구인 모슬포를 일컬어 '못살(사람이 살지 못할)포'  
라고 비하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원악의 유배지로서 가장 각광을 받던 곳이다,  
조정의 정치 권력 유지를 위해 배척해야 할 당사자들 가운데 중죄인이라는 이름  
으로 멀리 추방 및 격리시키기 위한 최적지로 제주도 대정이 이용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정은 제주도 유배 문화의 핵심에 자리한다. 당대에 비판적이었던 유배 인들과 현지 주민들이 교호하면서 만들어진 제주도 유배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대정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양진건-

설한풍이 터진 창문 창호지를 밀고/ 마음 터놔 들락이는 겨울밤은/등잔 아래서  
글을 읽지만 쪼르륵 배고파오고/ 얼어드는 손 비비며 먹을 갈고/새봄을 만들어  
다오 추사여/ 한 폭 치면 춘란은 그냥 봄이로구나/과연 새봄을 만들어내는 구  
나/ 추사여 그대 외로움이 외로움으로 /한라 산정엔 눈보라 쏟아지고/ 천지가  
캄캄하게 백설이 만건곤할 때/어찌하여 눈 내리는 수평선은 그리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맨발 벗고 건너야 될 칼날 같은 수평선은/아득한 날부터/ 그 수평선 건  
너와/ 우리는 이 저주받은 유배지에서/맨발 벗고 떠돌았으니/ 제주 섬 대정골  
산방산 오르내리며/저승 가는 연습이나 하시고/ 돌아갈 길이며 길은 열리는가/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길은 어디에 있는가/ 길을 만나면 정처는 보이는가/  
제주 바다 검푸른 가슴 헤쳐 새하얗게 바람 채우며/ 그대 어디로 떠나갔는가/  
수평선을 건넜는가/ 한 그루 노송을 바라보며 한 그루 노송으로/천년만년 사시  
는 추사여//

-金正喜, 문충성-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제주사람들은 추사 적거지에 집을 지어 살고자 한다. 모슬포 풍랑을 두 손으로 받아내어 한라산으로 오르게 하고, 상모, 일과 바닷가에 그물도 던지고 배도 보내며 너른 공간 휘휘 하는 바람처럼 움직이며 살고자 한다. 제주 사람들은 바다바람에 깃들여 산다. 초가집이며 너른 받이며, 오름, 빌레왓에 자신의 살아있는 움직임으로 삶의 공간을 느껴나간다. 보리, 마늘, 감자를 키워보고 땅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새벽 안개와 함께 육지로 돌아오는 바닷길을 떠나보고 바다를 안다. 바다로 발으로 삶을 찾아서 움직임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감각은 생활이 곧 예술인 한 가지가 두 가지로 분리되지 않았던 처음을 보여준다.

장소는 대상의 한 유형이다. 장소와 대상은 공간을 정의하고 공간에 기하학적 속성을 부여한다. 대상 또는 장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총체적일 때, 즉 적극적이고 반성적인 정신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대상과 장소는 구체적인 현실성을 얻는다. 제주문학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술의 공간으로의 장소로는 '추사관과 이중섭의 거리'를 들 수 있다. 유배생활을 직접 겪어내면서 완성된 추사의 예술 혼과 피난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이중섭의 영혼이 깃들여 있던 제주를 오늘에 재현한 장소이다.

그들을 기리고 있는 시인들의 중심시어들은 '소나무, 제주바람, 섬, 대정골, 귀양, 연복정, 유배지 일 번지, 추사관, 모슬포, 세한도, 단산, 청동화로, 유배지, 녹슨 종, 겨울하늘, 바람개비, 편지, 연, 동박새, 억새 밭, 거목, 폭풍우, 인동꽃, 유서, 시'로서 삶과 유리된 생활에서 오는 갈등이 승화과정을 상상케 한다. 순수한 영혼을 사모하는 시인들의 유배지를 재구성한 작품으로는, '변방일기, 가난한 肖像, 가시의 추억, 오늘도 고향 초가엔, 외로운 추신, 연가, 연, 청동화로를 닦으면서, 미루나무가 있는 풍경, 서신, 세한도 너머로, 유리네 집, 자기 땅에 유배된 사람, 좁은 방, 유배지에서, 유배지로 가는 바람, 섬 억새 겨울나기' 등이 있다.

## 7.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그들의 땅으로

제주문학 속의 장소와 공간을 찾아서 제주바다를 지나고 제주 섬에 닿았다. 한라산 자락에는 어머니의 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리듯, 목장길 옆 덩불 속 가지들을 흔들고 가는 바람, 구르고 굴러도 뒹굴어 떨어지는데는 끝이 없을 듯 박혀있는 돌맹이들..... 그 곳에는 추사적거지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다. 송곳처럼 솟아오른 산자락에 돌길 지나 백록담에 닿았더니 뺨 뚫린 화산 구멍 하나. 뼈를 깎아 세워진 딱 부러지게 단단한 돌 섬만이 전부는 아니다. 바람든 자갈, 흙, 지면에 기어가는 이끼처럼 조그마하고 부서지기 위해 광풍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모여져 있는 화산이 흘렀던 시절 생겨난 목탄처럼 구멍 송송 바위 섬. 그렇게 한라산 머리에는 부서진 흙이다. 바람 든 바위, 이끼가 붙어 있는 숨막힌 생태. 어느 누구도 큰 소리, 큰 걸음하고 있지 않았다. 조용한 밤바다를 지켜보는 이는 평 뚫린 구멍이었다. 제주 섬이었다. 야무진 떡 돌처럼 파도에 깎이고 깎여서 斷崖의 정수리로 남아서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제주도는 구멍 송송 스폰지더라. 바람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들, 억새가 들려주는 사람 얘기를 歲歲 萬年 들어주면서 서 있는지라 제주도의 몸체는 그물이더라. 걸려진 사연만을 남기도 보내주느라, 밀려오는 바다를 받아주고자 그리고 보내주어야 하는 커다란 산으

로 남은 제주 섬은 수세미 몸체로 서 있었다. 백록담의 높이는 눈어림이 되었지만 건너온 바다의 넓이는 부피는 눈대중을 어지럽힌다. 모두가 한색이 되는 밤이 되면 보제기들은 움직이는 땅으로 배를 놓고 있었다. 가장 검은 색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땅에서 보았던 것이 놓여 있을 바다 속으로의 탐험을 떠난다.

섬에는 시커먼 현무암의 바위너설을 '빌레'라고 하고, 바다 속에 솟아 있어 썰물 때만 들어 나고 밀물 때는 가라앉는 암초를 '여'라 불렀는데. 이 포구 앞은 유독 여도 여러 개 있고, 빌레도 시커멓게 바다를 향해 뻗어 나간 것이 눈에 거슬렀다. 그것들이 꼭 무슨 일을 낼 것처럼만 보였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섬은 언제나 수평선가에 저만치 물러앉아 있고, 포구는 그 섬을 향하여 늘 열려 있었다. 목이 잠겨올 만큼 가뭇 들어찬 밀물 때에는 작은 포구는 물밑에 잠겨 채 열려 있었다. 증조 때부터 대를 이어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 포구에서 이 섬 사람들 사이에 '테위'라고 부르는 때 배를 타고 주로 멀찍이 물러앉은 저 섬 발과 그 인근 어장에서 보제기 질을 하셨다. '보제기'란 옛 기록에도 있는 대로 구전은 없지만, 내가 짐작컨대 우리 선조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도 아아 이 포구를 근거로 인근 바다에서 고기와 전복, 소라 같은 해산물을 채취해 먹으며 생계를 유지해왔을 것이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설자리가 필요하다. 수많은 생명들이 섬으로 뜬 바닷가, 한라산 자락에서 삶을 잡는 호구처럼 포구를 만들어 생활하는 보제기들의 얼굴은 항상 바다를 향한다. 바다로 떠나서 그들은 한라산을 향하여 뱃머리를 잘 돌려야만 하는 만큼 바다의 얼굴을 살펴야 한다. '빌레' '여'들은 바다의 얼굴에 솟은 코이거나 소용돌이 물길의 눈이 생겨나는 급류가 감장도는 곳이거나 차가운 물길이 바람처럼 흐르는 물살인지를 살펴야만 한다. 뱃길에서는 언제나 보이는 것이 솟아있는 것만은 아니 여서 한 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바닷물의 속성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장판이 한 장으로 펼쳐진 방바닥처럼 수평으로 놓인 바다 물 속의 세계는 막힘 없이 펼쳐진

모양과는 다른 세계임을 목이 잡기는 곳 너머 나가본 적이 없는 포구 아이들도 모르지 않는다.

우리 마을의 옛날 이름은 '벌레낭개', '벌레낭' 이란 보리장나무를 일컬음인데, 벌레낭개란 그러니까 보리장 나무들이 울창한 개浦, 그런 포구라는 뜻이었다. [중략].... 이럴 듯 열기설기 검은 빛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마을 해변 한 녘으로는 또 '진모살'이라는 제법 긴 모래관이 질펀하게 밀려오는 파도를 품고 안을 듯이 팔을 벌리고 있었다. [중략].... 해풍에 바랜 초가지붕들이 납작납작 엎드려 있는 동네의 해변에는 검은 현무암의 바위너설 사이에 군데군데 둥그렇게 원 담이 둘러 있었다. '원'은 바닷가에 한아름씩은 되는 돌담이므로 낮은 성담 모양 반원형으로 쌓은 것인데, 밀물에 몰려온 고기들이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에워싸 잡는 순 원시적 어로방법이었다. [중략].... 원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런 원들 중에는 개인이 만들어서 갖고 있는 원이 있었다. 우리 증조부의 이름은 갑자 년에 낳았기 때문에 조 갑 생이었는데, 진모살로 가는 목에는 '갑생이원'이 있어서 여기서는 최근까지도 그 원 안에 든 고기를 우리만 잡아먹었다. 진모살의 건너편에는 강씨 집안이 있어서 가꾸는 '올생이원'도 있었다.

-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포구 아이들은 원에서 세상과 함께 커간다. 해마다 원 담만큼 거리를 목표로 개구리헤엄을 쳐보고 숨을 죽여 수영을 해보고 눈을 뜨고 바다 속의 물고기와 같은 유영을 하기를 수십 번, 짠 바닷물이 코로 입으로 수십 차례의 들며마심과 뱉어냄을 통하여 바다와의 대화방법을 익힌다. 땅에서 뛰노는 놀이를 익히듯 바다 물에서도 게임의 규칙을 혼자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켜 간다. 먼 바당의 거센 파도를 할아버지의 품 마냥 울타리를 둘러 만들어준 놀이터에서 넓은 세계의 작은 실전을 뿌듯하게 익혀나갔다. 벌레낭 위에다 적은 옷을 널어 말리고 때론 볼레 열매를 바다의 연찬 주 요리처럼 소꿉놀이를 하면서 바다가 주는 가득함을 원 담에 갇힌 멜 때, 고기떼를 떠올리면서 수확의 환희를 맛보았다. 코생이, 볼락, 복쟁이, 물끄러들이 불가사리와 함께 살아가는 바다의 속세계를.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바닥이 파랗기도 하고 알락달락한 그런디가 있어, 그디가 매통이라고 허고 애여리하고도 허는 맛있는 고기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그 바당 이름이 매통이 바당이며, 애여리바당. 잘 알아둬사 해여.[중략]

\_ 그 다음 저기. 퍼렁한 바당이 보이지? 넓찍하게. 저기가 바닥에 모래, 모살이 깔려서 저런 거라, 경해서 저 바당 이름이 모살밭인 거라. 모살밭.

그건 쉬웠다. 바다 밑바닥에 모래가 있으면 그 위에 바다 빛깔이 푸르다는 것쯤 나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보리겂이만 끝나면 나가서 떡감는 진모살, 그 쪽 바다도 물 빛깔이 저랬지 않던가.

\_ 그 다음이 뗏이나? 그 다음은 물이 깊지도 얕지도 않은디 바닥이 아주 평평한 바위너설이라. 빌레바닥. 물 속이 그러니 물 위도 파도가 잔잔할밖에, 딴 바당에 절이 썰 때도 이 바당에만 오면 언제나 바당이 잔잔하니까. 경해서 이 바당 이름이 지름바당이라, 그럴 듯 허지? 어찌냐?

\_ 지름바당 너머는 그디가 어디서 보기엔 물마루 옆, 바로 수평선 아니냐? 그러니 그 디 이름이 마루에엮이지. 알겠느냐?

- 보چه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포구의 아이들은 '하늘 천', '땅 지'를 읊조린 기억보다 '매통이', '애여리', '매통잉 바당', '애여리 바당'을 익히면서 자라난다. 바닷물이 파랗게 놓여 있는 바다의 바닥에는 틀림없이 모래밭이 있고, 하늘의 제트 비행기가 지난 자리처럼 물길에 퍼져 지나가는 곳은 다른 해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 즈음은 아버지가 피는 담배 갑의 글자는 못 깨치지만 그 정도는 갯가 아이들의 상식이다. 보리 겂이가 끝나면서부터는 바다로 달려가 떡을 감기 시작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지름 바당에서는 물장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동네 아이들은 알면서 자라난다.

일반적으로 가치, 자양분, 지탱물의 중심으로서 장소를 넓게 정의한다면, 사람은 세계를 탐험하기 위하여 집이나 고향을 떠난다. 성장함에 따라 중요한 사람들보다는 다른 대상들에 애착을 가지게 되어 결국 장소에 애착을 가지게 된다. 사람을 성장함에 따라 지리적 지평은 확장되지만 반드시 더 큰 규모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포구의 아이들이 바다에 대한 감정은 전해들은 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들에게 바다는 삶의 양식의 보고로서 가치 있는 곳으로 전수된다.

이 밖에도 바닷가에는 사연이 많아서 사연에 따라 재미있는 이름들도 많았다. 가령 자바리 같은 고기들이 노상 잘 다니던 길목은 '괴기올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어느 때던가 고 장이라는 사람이 빠져 죽었던 깊은 통은 '고장이 빠져 죽은 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고생놀래기가 잘 잡히는 '고생이통', 우럭이 잘 들어있는 '우럭고망'도 있었다. 또 자리돔이 잘 잡히는 바다 속 바위너설은 '자리



빌레'라고 불렀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혼자서 아는 '불락통'에서는 잡아내도 잡아내어도 언제나 눈 큰 불락이 빠꼼하게 내다보며 들어 있었다는 말을 나는 들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좋고 안 좋고 귀하고 천하고의 가치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몰라보게 바뀌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바닷가의 이름들조차도 차츰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횃수가 줄어들고, 잊혀져 가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포구 아이들에게 바다는 다른 곳에서 비교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놀이터이다. 늘 오는 바닷가이지만 한 번도 같은 즐거움을 준 적이 없었다. 행여 돌에 무릎이 까지고 발바닥이 찢기고 수영하다 쥐가 나도 단 한번도 불행의 느낌을 갖은 적이 없었다. 그들이 바다와 만날 때는 늘 만족감, 행복, 그리고 즐거움과 또 다른 세계를 정복하는 기쁨이었다. 자바리가 다니는 '고기올래'의 상황은 나만이 알고 있는 작은 세계가 되어주고 있음을 바다가 놀이터인 아이들은 느끼면서 크다. 노래기, 우럭, 자리돔, 불락들은 친구들의 이름이 생각이 가물가물 할 때도 '고생이통', '자리빌레', '불락통'과 함께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할아버지가 되어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면서 생활한다. 그들의 보제기 할아버지가 그러한 것처럼.

속도 있긴 이서렌호여라/혼 출구덕 캐영오라/물룻도 있긴 이서렌 호여라/출구덕으로 호나 캐영오라/소낭발디랑 가그네/소낭 꺾죽을 배경오곡/바다에랑 가그네/톨광 물망을 호영오라/속 범벅을 호여농곡/물룻 옛 호여농곡/물망 범벅 호여그네/먹어보게 먹어보게/보리철은 멀아시네/자이 늦은 노랑호곡/통통 붓엉 부황이여/먹을 것이 무사 어서/저디 저 밭디 가보곡/저디 저 곳디 가보곡/저디 저 바당이 가보민/먹을 것은 었지 아니다//

-꿍으나네 부황이주, 김광협-

제주 밭 주인들은 잔 설이 쌓인 겨울에도 쉬지 않고 찬바람에 땀을 씻기며 빌레왓, 작지왓의 돌맹이를 잘도 주었다. 호박 옛, 꿩 옛처럼 균침이 도는 작업인 듯 힘든 일을 힘들다 하지 않고 금화 은화를 전대에 집어넣듯 이랑 사이 고랑 사이 뛰어난 돌맹이를 고르고 또 고른 다음 이동시켰다. 운동장의 돌맹이에 달리기하

던 아들이 넘어져 다칠까봐 돌맹이를 집어드는 어미의 심정으로, 농사지을 땅 한 뼨, 한 치의 흙을 확보하느라고, 땅을 넓히느라고, 거름흙을 잔뜩 뿌리고 보리밭기를 즐거움으로 꼭꼭 밟아도 왜 해마다 보리 고개는 그렇게도 높든지..... 해마다 봄이면 보리 고개에서 死點을 배운다, 제주사람들은, 또한 호구책은 생명책이다. 밭에서 흙을 모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다가온 제주바람과는 달리 바다는 삶을 위으러 다가오는 제주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품 싣 없이 주고 있었다. 그 힘이 들어 넘어갈 수 없는 봄의 보리 고개에도 바다는 어머니의 품처럼 사람들을 품고자 했다.

이른봄이 돌아오면 바닷가 바위에는 새 미역이 돌아난다. 뿐만 아니라 파래, 김, 툇, 모자반 등속 모든 해조류들이 일조량이 많지 않은 이때에 가장 성하게 돌아난다. 이 때가 바위들이 있는 해변으로서는 최성기인 셈이다.

-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하지만 바다는 그래도 우리에게 무한한 재산이고 보배니라. 저 바당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들어있고, 그걸 아낌없이 우리한테 주는 거라. 원망스러울 때도 없는 건 아니지만 경해도 이때꺼정 우리를 살린 것이 저 바당이라. 바당이 없어 봐라, 우리가 그 동안 어떻게 살아시크냐?”

-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암울했던 나의 소년 시절, 바다는 고등어 빛깔이었다. 그러나 그때 ‘탑 아래’의 바다는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겨울 한철을 웅크리고 떨며 기다렸다가 입춘이 지나고, 바닷물의 온도가 겨우 건달 만해지면 우리들은 이내 바다로 뛰어들곤 했다. ‘탑 아래’란 바다 이름은 옛날 여기에 돌무더기 탑이 하나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붙였다고 어른들이 말했으나 이제 거리에 탑은 없었다. 하긴 이웃의 할머니, 아주머니, 잠녀들은 겨울이라고 물질을 쉬는 법이 없었다. 그녀들은 한라산에 눈이 허영게 쌓인 겨울날에도 마치 거대한 짐승의 혀처럼 파도가 날름 거리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전복도 따고, 소라도 잡았다. 청각과 우뚝가사리, 미역들도 철에 따라 그녀들이 캐어 내오는 해초들이었다.

-진혼아리랑, 오성찬-

울타리 너머로 웃음소리 나던 곳은 방삭방삭 아기의 웃음소리 나는 집, 그리고

바릇 잡아 한 술에 삶아놓고 이웃, 식구들 모여 앉아 바다의 모험담에 한 마음이 되어 조마조마 한 순간이 터져 버릴 때. 포구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되어 한 날 한시의 제사가 많아질 때는 모두가 말을 잃고 인사도 잊어버리고..... 잊었던 밤사이의 안부를 물어보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은 늘 할머니 어머니의 세습된 슬픔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때 이제까지 한마디도 앓고 내 곁에 서 계시던 어머니가 명주 폭을 찢는 것 같은 소리로 부르짖었다. 산더미 같은 큰 파도를 어부들은 '누팔'이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겹쳐 몰려들고 있는 것을 나도 보았다. 엄청난 부피였다.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세 개째의 높은 누팔이 뱃전에 와서 부딪히는 걸 보았다. 그런데 그 때, 이물 쪽에 장대를 짚고 서 계시던 아버지가 바다 가운데로 곤두박질하는 게 아닌가.

-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월동 걸동, 저 큰 섬 보아라./ 나도 죽으면 저 모양이 될까//

아해에요 에앵에야/어러럴거리고 나는야 간다//

상여 노래 속에 나타난 섬을 보면서 내세의 모양을 생각하는 장면 섬과 같은 모양을 그리고 있다. 정말로 내세는 있는 것일까? 아무래도 내세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생하다가 애꿎게 죽은 영혼들이 억울해서 어쩔 것인가. 섬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제 갈 길로 가지 못하고 원혼, 잡귀가 되어서 영계도 아니고 속계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 세계에서 떠돈다고 믿고 있었다. [중략] 그런 중에도 '요왕 맞이', 요왕 길을 치는 대목은 아버지가 그 동아리들이 일상 살아왔던 바다를 그대로 연상시켰다. 요왕 길은 이파리가 달린 식대 가지를 두 줄로 나란히 세워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식대 가지들에는 지전들이 매달려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다. 이 길에 요왕 문이 있으며, 이 문과 길을 통하여 바다의 용왕은 굿판으로 드나들게 되어 있는 이치였다. 그녀가 간드러진 목청으로 사설을 외는 걸 듣고 있으려니까 요왕 길은 고비고비 험하다 험난한 길임이 분명했다. 마치 굽이 굽이 고비 같은 것이 요왕 길이었다. -요 길은 팔자 굽은 옛 부모, 조상, 여러 어른덜이 지나던 길이로구나.....

-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제주의 곳에서 '일월맞이', '불도맞이', '초.이공맞이'라 할 때 '맞이'라고 하는 곳은 신을 맞이하는 곳[迎神儀禮]이다. 신이 오시는 길. 영혼이 떠나는 길을 닦고 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길을 닦는 곳을 특히 '절침곳'또는 '질치기'라 한다. 이러한 길을 닦는 의례는 '신 길을 바로잡는' 것이며, '다리를 놓는' 것이다.

신 길을 바로잡는 것은 신이 오시는 길. 인간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길을 닦는다는 것이다. 신 길은 신의 질서, 신이 걸어온 길. 망자가 떠나는 길, 신의 내력담 본풀이에 해당하며, 그것은 한라산 곳자왈 같은 '풀지 못한 역사'를 풀어야 할 과제로써 주어진 가시밭 길[荊棘]이다, 이 길을 닦아 하얀 광목 천을 깔았을 때, 길은 완성된다. 그 길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길이며, 망자가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저승으로 고이 갈 수 있는 길이다. 신 길을 바로잡았으므로 신의 질서를 쫓아갈 수 있는 이승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 4.3과 해원곳, 문무병-

[중략]\_ 에에 나 손지 똑똑하다. 너도 자라면 틀림없이 큰 보제기가 될 거여, 틀림없고 말고. 물마루를 지나면 그제는 또 바당이 아주 깊어, 그래서 그디가 짙은 목이고, 그 다음은 고장낭밭, 고사리밭, 그러는디 그것이 무신 말인가 허면 그 바당에서 저 산허리의 꽃밭과 고사리밭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더. 알겠느냐?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흙에서 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기를, 바다에서 난 사람은 죽어 바다로 갈 것이라고, 돌에서 난 사람은 죽어서 돌이 될 것이라 하고 섬에서 난 사람은 후세에 섬으로 남을 것이란 상상을 한다. 사람에게 나서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서 인간으로 남기를 희망하듯 보제기로 산 사람은 보제기가 될 꿈을 심어주기에 암시적 예언을 걸어둔다. 너도 자라면 틀림없이 큰 보제기가 될 것이라고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을 가르칠 때 늘 말씀하셨다. 우를 보지말고 아래를 봐라. 아래를 봐사지 우를 보고는 살질 못헌다, 그리고 우리가 느네만 현 때는 새벽 참에 바당에 강 듬북 한 짐을 해오지 않고는 밥을 먹질 안했져, 부지런한 공으로 산겨주, 부지런허질 않고는 살 방도가 어섯져,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잠자코 들으며 우리 어머니도 죽으면 틀림없이 바당귀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그럴 것이다. 고서방 각

시. 그 심방의 말처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죽어서는 모두 바당귀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아들아, 한라산에 묻었던 아방 갈비뼈 조심스레 꺼내거라/열네 개 갈비뼈 다듬  
질 다됐거든/이물과 고물에 고망 파 장쇠 박고/어멍 머리카락으로 밧줄 꼬아 칭  
칭 한 백번 엮어/갓은 세파 몰려와도 움직도 않게 묶거라/뇌죃도 두 개, 테위뇌  
도 두 개 엮어라 아방 어멍 같이 저어/저 바당 갔듯이/아들아, 테우 노저어 저  
바당 가자/아방 낚시하고/어멍 물질하고/듬북, 감태 건어올리다 힘들면/자리젓  
에 술 한잔하고 쉬어가게/대나무로 상자라도 만들어라/갈옷 찢어 황포 돛 세우  
고/이어사나 이어사나 노저어 저 바당 가면/이어도가 보이리라/물마루 지나 다  
시 물마루 서는 제주바다를/아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흔들리는 테우 하나로/  
온가족 신고 이 바당 건너 왔다//

-테우, 문복주-

\_\_ 느도 크민 틀림없이 큰 보제기가 될 거여!

어린 시절 밤에, 횃불을 들고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갑생이원'에 대한 처  
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는개비가  
내리다 개인 어느 오후 연대동산에 나가 서서 하나하나 바다 이름을 가르쳐주시  
던 기억도 되살아났다. 나는 비로소 털어놓거니와 외할머니가 구룡포에 밖의 물  
질을 나갔다가 거기 개맞에서 어머니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별명이 '구룡포  
배둥이'인 것도 안다. 나는 어려서 우리의 '사래개' 해변에서 이 어머니의 자루젓  
을 입에 물고 자랐다, 얼핏, 우리 입도조의 아드님이 아버지의 시신만을 두고 떠  
날 수 없다고 이 섬에 눌러앉은 옛날의 내력이 떠올랐다. 중략... 그리고, 내 속  
의 나에게 지워진 운명을 그물 잘 빠져 나오는 베도라치처럼 피하고 있었다, 거  
기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순간 내 깊은 속에 갈등이  
파도 밀려오듯 하고 있었다. [중략] 보제기들의 차림이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처  
럼 단단해 보인다. 푹 하고 말아지는 발화의 기름 냄새. 그리고 탕탕탕탕, 포구 어  
귀를 빠져나가며 빨라져 가는 배의 엔진 소리가 싫지 않게 들려온다, 저들은 오  
늘 밤 어느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것일까, 할아버지와 손자는 어두워오는 바  
다로 힘차게 떨어져 가는 당돌한 어선을 오래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원 한바퀴를 제 힘으로 넉넉히 헤엄쳐 건너던 날의 환희를 기억하는 포구아이들은 대천 바닷으로 나가는 꿈을 키운다. 사랑을 위하여 문어할멈에게 혀를 저당 잡혔던 인어공주처럼 모험심을 저당 잡혀 육지로 나가 보고픈 중심에서의 생활에의 미련을 젊은 시절의 객기처럼 방출해본다. 바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바다사람이 되기에 참으로 넓고 멋진 공간으로서의 상상을 함께 해봤으면 한다. 제주 문학의 많은 페이지를 바다의 공간으로 남겨놓고 있다.

공간과 장소에 대한 성인의 감정과 사유는 대단히 복잡하다. 그것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공통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유아에서 시작한다. 때가 되면 유아의 작고 혼돈한 세계로부터 성인의 세계관이 나타난다. 또한 성인의 세계관은 잠재의식으로 혼동되어 있지만 경험과 개념적 지식의 구조로 유지된다.

제주문인들이 바다에 대한 공간을 그리기 위하여 사용된 시어들은 주로 '주낙, 멸치배, 통발, 삼각파도, 한림항, 갈 바다, 떠나는 배, 성산포, 일출봉매기, 가을바다, 감성돔, 겨울, 연어, 오조리, 바닷가, 밤 등대, 섬' 등이 있다.

제주 문인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넓어진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변해가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통해 제주사람들의 정서와 함께 다양한 공간감을 다음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그려놓았다. '과아란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우울한 성산포, 섬을 떠나야 섬이 보입니다, 물들이 들어온다, 저녁바다, 갯마을, 내 사랑 서귀포바다, 성산포에서, 파도에게, 수평선,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 대포해안에서, 나는 그대도 섬이 그림다, 버려진 섬을 찾아서, 섬의 뿌리를 찾아서, 파도의 울음, 제주해녀, 강정포구, 바람꽃 피는 섬, 제주 섬을 돌아다보면, 먼 바다 푸른 섬 하나, 섬을 위하여, 섬은 아들을 낳고, 바다의 사색' 등이 있다.

## 8. 숨비소리가 들리는 곳

제주문학 속에 넓게 펼쳐진 바다 위를 보제기들이 배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바다 깊은 속을 헤쳐 닿을 땅을 짚기 위해 잠녀들이 물구나무를 선다. 바다 밑을 향하여 꽃히고 싶은 잠녀들은, 마치 삶을 뒤집어 본 세계에서 더욱 당당하듯, 밑으로 밑으로 들어갈 때마다 상군으로 군림한다. 최상의 생기(生氣)로 삶을 건너고자 테왁의 숨 줄을 매달고 사계절을 하루 같이 바다에 몸을 던져 생활을 건져낸 여자들이 전복의 상채기가 진주가 되어 커가듯 제주 사람들이 찾고자 하

는 마음의 진주로 빛나고 있다. 제주 섬의 주요 지리적 경관인 바다는 제주 여성들의 작업공간이다. 집안에서의 작업공간에서 자연의 경계 없는 바다로 삶을 캐는 공간으로 확보한다. 때를 구분하지 않고, 바다와 물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노상 작업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해녀였다. 너른 바다를 확보함으로써 그들은 제주 섬의 어디에나 있었고 직관적으로 여자들이 많다는 이미지를 낳았다. 그들은 스스로 찾아가 노동생산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재화를 축적하였고 사회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생활하는 독립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그러한 강인함은 생득적으로 체험된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며 경제적 자립이 건강한 삶을 이루는 바탕이 됨을 몸을 아끼지 않고 노동에 참여하는 바지런함으로 이데올로기의 문화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다. 물려왔다 밀려가는 파도를 제 몸 속에 흐르는 혈맥인 냥 흘러오고 흘러가는 체온으로 바다의 깊이를 재는 좀녀들이기도 한 그들이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숨비소리가 숨어있다.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스며있는 곳 물의 결속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가녀린 소리가 무심한 일상의 사람들의 무정한 삶에 깃든 생명의 소중함을 흔들어 깨운다.

바닷바람을/하늘을 차고 숨 비어 내려가면/산호수의 그늘을 은은한 달밤/용궁 천 년에 서린 고요한 성좌를/타는 눈길을 수심으로 던지며/어죽과 더불어 해엄을 치다 치다/숨이 차 아슬아슬하면/물위로 떠올라 휘파람을 분다./부풀은 테왁으로 목숨을 띄워/물결에 떴다 잠겼다 살림을 띄워/그 소용돌이 위를 알몸으로 흐르면/바다 밖으로 넘쳐나는 바다

--잠수도(潛嫂圖), 양중해-

설운 어멍 날 낱을 적에/ 울음소리부터 계집이라 했다/ 개 날에 난 팔자/그 울음 데리고 똥똥 떠다니며/ 물질을 배워/ 바다로 떠나느니/이 세상은 너무 넓구나/ 이른 봄날 따스한 햇살 헤쳐/ 돌담 밑에 꼭꼭 박씨 심고/태왁 만들던 어린 날들/ 어둠 속에 빛나건만/ 호오이 하늘로 뺄어내자 한숨일량/머쓱머쓱 구름이나 되어라/ 깊은 물 속에 들면/ 한 겨울도 따스해/저승길 가고 오느니 비창 쥐고/ 전복 캐고 소라 따며/ 나를 키워 온 설운 섬/떠나갈 길은 없고/ 파도를 채우는 / 한줌 눈물이나 보태고 가자//

-길7, 해녀의 노래, 문충성-

호오이 호오이 호오이 물새들 제주 바다 가득히/떠다닌다 누이야 아니다 그건  
 물새가 아니다/바람 소리가 아니다 해녀들 휘파람 소리들 참방참방/바닷속 들락  
 이며 식구들 목숨 잇는 숨막히는 한숨 소리다/누이야 푸르던 바다가 검어지기  
 시작하면 겨울이/눈앞에 다가섬을 알겠느냐 거센 파도 재우며/긴 기인 겨울밤  
 뒤척이며 겨울 잠 돌아눕고/늦겨울 바다에 들어 호오이 호오이 이른 봄 불려 세  
 우며/전복을 따자 소리를 캐자 미역을 치자/눈 먼 시어미 개똥이는 잘 놀까 서  
 방 없는 몸일지라도/자맥질 살려내며 살려내며 저승길 가고 오노니 누이야/누가  
 여인으로 태어난 팔자 히히 웃고 있느냐//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Ⅲ, 문충성-

기리물질, 기리물질이 뭘까? 할머니, 기리물질이 어떤 거우파? 어린 나는 궁금증  
 을 끄지 못하고 할머니께 묻고 말았다. 호오이, 할머니는 대답 이전에 다시 숨비  
 질소리를 내지르셨다, 힘이 벅찰 때마다 내질러지는 이 소리. 어느 쟈 어떻, 육  
 심이 죄주, 그저 죽기 아니면 살기였으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설명하는 기리물질  
 이란 3관 5백 매 무게의 무거운 납을 추 삼아 손에 잡고 쏘살같이 물 속으로 들  
 어가서는 어쩔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다시마를 따내는 작업수단이였다. 손에 잡  
 고 들어간 연철추는 바닥에 닿는 대로 놔버리면 배 위의 사람이 줄을 당겨 끌어  
 올려 버린다. 물 속의 사람은 작업을 하다가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서야 미리  
 배에서 내려뜨려 놓은 장대를 쭉긋쭉긋 당겨 신호를 하고, 그러면 다시 배 위  
 에서 장대를 끌어당겨 사람을 건져내었다. 낯선 이방에서의 이렇듯 위험하고 무모  
 한 작업, 이거야말로 순 우격다짐, 바다와의 싸움이였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오성찬-

얼마나 넓은 공간이기보다는, 얼마나 깊은 세계인가에 본능적으로 작용한  
 다. 바다의 얼굴 위로 솟아 오른 것들은 수평으로 확장해나가고자 하는 것들과  
 는 정반대의 관계이다. 뻗어나고자 하는 힘만큼 확장되는 공간을 그리고자 하는  
 보제기들과는 달리 잠녀들은 깊어져서 초월하고자 한다. 삶을 확장하고 확대하  
 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서 올라 올 때마다 달라진 숨소리, 달라지는 폐활량, 생  
 겨난 자신감, 솟아오름으로 인해 연장된 수직적 길이를 확인한다.

바다의 심연에 닿고자 고개를 들고 내려다보는 바다 속의 층 층마다 지  
 상의 산소를 놓고 온다. 버틸 수 있는 시간만큼 두 손에 움켜진 삶의 묘약을 생



명의 근원을 캐며 삶의 진화를 꿈꾼다. 혈관에 흐르는 혈들이 되어 소진한 육체를 올려주는 파랑의 속삭임에 귀를 내준다. 파랑과 파랑의 절과 절 사이에 오늘의 숨 비운 호흡을 숨겨놓는다. 솟아오름의 존재방식은 뿌리내림이다. 결랑 속에 몸을 맡길 만큼의 든든한 해근(海根), 호수 면의 수평면아래 도도히 흐르는 해류의 꿈틀거림을 체표에 기억하고 오는 해녀들, 그 힘의 용트림이 솟아 나옴을 느끼기에 그들은 침묵한다. 물결에 흔들리는 움직임만큼 체득하고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이란 걸, 시원의 신비로움이 혈맥을 타고 흘러준다는 걸 알기에 그들은 기꺼이 숨 비우고 집중한다, 바다 속으로. 인간의 잊었던 시원의 장대함에 숨 길이 편해움을, 돌과 바람은 또 하나의 시원이 되기 위한, 역행할 수 없는 지속적인 것들의 에너지의 흐름 위에 있다는 것을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고 스스로의 소멸의 운명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들은 숨 비우기를 숨 채우기를 그 한 시 쉴 수 없는 수직으로의 운동을 한다. 아마 그것은 숨을 달라는 간절한 인간의 바람, 소망, 염원, 선망, 희망의 무의식적인 기원일 것이다.

어멍은 바다를 펼쳐 놓고/ 평생을 애오라지 날렵한 물새로 춤추도다/국가대표보다 더 나은 무명의 수중 발레가로다/관객은 없지만 일류의 돌고래 쇼를 하는 도다/자맥질하여 들어간 바다 이승보다 더 좋았는가/물 위로 나오면 태왁 가슴에 안고/아름다운 휘파람새 소리 내도다/호이---- 호이 ---/푸른 하늘로 스미는 숨비 소리 너무 아름다워/тол 미역 성게 소라 오분자기 전복 낙지/물 속에서 줄줄이 나와 함께 춤추도다/우리 어멍 바당에서 한 평생 물질하여/물려 준 유산 너무 크고 많도다/저 너른 바당 다 남겨 주고 모자랐는지/억센 바람도 다 모아 주고 갔도다/그 중 소중한 유품은 둥근 공 태왁 이었느니/浮草와 같이 흔들리면서/내 삶 굳게 붙들어 준 한 바다의 浮漂 //

- 태왁, 문복주-

겨울은 돌밭을 지나더이다/ 가난도 시련도/ 방치된/ 아침//실 시린 저 바다/가난 굴리던 소리소리들// 혼백은/온통 비바리새/ 섬쳐녀 그 자체인 것을.....// 동지선달 세찬 바람에/설익은/눈을 굴리면//누이는/ 내 이마에/내 입술에/  
살짝이 맞대는 첫사랑으로//바다는 /당신의 큰 고향/이어도로 남는다.//

-비바리새, 신승행-

골수가 흐르는 길이 있는 것은 숨골이 지나가는 통로도 있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 숨골이 넓어져야 한다. 겨울 돌밭에서 삶이 피어날 수 있도록, 방치된 가난과 시련을 섬 치너 혼자서 감당토록 하지 않기 위해서. 산에도 들에도 사람에게도 숨골을 찾고 숨골을 만들고 숨이 드나들도록 해서 생활공간이 여의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번 태풍 때 무너진 돌담도 여태 그냥 있다. 돈 들어가야 할 곳이 돌담 구멍만큼이나 많았다. 말 모른 돈이 발뺌고 앉아 숨돌릴 여유를 주지 않았다. 돈 나올 구멍이라곤 이승과 저승의 문턱, 바다 밑의 설드럭 밖에 없다. 밍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숨통을 뒤통박 하나에 저당 잡혀 놓고 해물을 건져 낼 수 있는 바다 속의 토지뿐이다. 겨울이 지날 때마다 초가지붕을 덮썩우는 은빛 모래가 사금파리였으면 했다. 아니, 바다를 잠재우는 수면체만 되었어도 좋겠다. 뒤통박을 여 삼아 바다 속을 들락날락할 수 있게만 해줬어도 여한이 없겠다. 바다만 숨기 척을 하지 않는다면 돈은 등짐으로 지어 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뭇가사리. 미역, 소라, 전복..... 이 모두가 역순이에게 있어선 금은보화였다. 열 개의 발가락으로 하늘을 걷어차며 물 속으로 곤두박질 칠 때마다 숨통이 부어오르는 고통이 따를 망정, 바다에서 거둬들이는 것은 김을 매지 않아도 되고 비료값 걱정을 할 필요도 없기에 더욱 소중한 보물이었다.

- 표류하는 이어도, 고시홍-

제주 살림은 특별한 소비가 없어도 사노라고 살아도 가난하였다. 구체적인 가난의 원인을 도려내고 부자가 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정리하는 일이 제주사람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다. 돈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게 만져 지거나 들고 돌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육체적 노동으로 삶을 일굴 때는 특별히 자랑스러운 것도 낮부끄럽게 여겨지는 살림도 따로 있지 않았다. 옆 집 살림이나 우리 살림이나 대동하였다. 한편 제주 여성들이 담당했던 노동들은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밭의 노동과 바다에서의 물질로 공간적인 제한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주로 낮에는 밭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물때가 되면 물질을 위한 공동 작업을 해야했다. 또 야간에는 보리와 같은 곡물을 뺨는 방아나 맷돌을 돌리는 작업을 해왔다. 바다에서의 물질의 목적을 금전을 얻는데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된 노동의 대가는 금전이나 재물과 연결시켜 현실적인 사고를 했다. 곧 자신들이 부지런히 노동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예닐곱 살이 되자 들은 물질하는 데 필요한 용구를 고루 갖췄다. 바다로 나가 어른들과 해녀가 된 것이었다. 바다에 들어갈 때 머리에 쓰는 물수건이며, 잠수할 때 입는 물적삼과 소중이, 물안경과 작살, 소라며 전복을 따는 비창, 미역을 캐는 데 소용되는 정계호미, 그리고 물 속에서 캐낸 해산물을 담은 그물 망사리에 매다는 뒤옹박이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 표류하는 이어도, 고시흥-

바람소리가 아니다. 물새소리가 아니다. 파도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검푸른 수면 위에 박꽃처럼 불쑥 솟아오른 해녀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의 메아리. 끝모를 수평선을 향해 치닫는 그것이 바로 숨비 소리인 것이다.

천길 바다 속에서 숨통을 꼭 조인 해녀들은 해산물을 찾아 허우적거린다. 테왁에 달린 그물 망에는 그녀들이 잡은 전복과 소라들이 나뒹군다. 그리고 해삼과 미역더미도 흐느적거린다. 폐 속의 공기 한 방울마저도 모두 소진시키며 수중세계를 맴돌던 그녀들은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 이르러서야 물 밖의 세상으로 부상(浮上)한다. 공기가 없는 곳은 지옥이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이다. 하지만 공기가 있는 곳은 천국이다. 숨을 쉰다는 것은 환희이다.

닫고 또 닫아야 했던 숨통을 열고 나면 배가 터질 정도로 공기를 들이킨다, 그리고 내뿜는다, 내뿜어진 공기는 고래가 뿜어내는 물기둥보다 더 거대한 힘으로 퍼져 나간다. 휘이익... 마치 살아있음을 확고하게 증명이라도 하듯이... 수중세계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라도 하듯이...해녀들의 숨비소리는 계거품을 물며 광란하는 파도소리마저도 압도해버린다.

-숨비소리, 이재홍-

바닷가 태양의 신전/ 불 턱은 눈부시다/ 시간의 먼바다 건너 와/원시의 알몸으로 춤추는 너,/ 열매 없이/ 씨의 부활만을 허락한다/불은 빛으로, 빛은 불로/허무를 위하여 태워라!/ 태워야 산다!/허벅 장단에 일렁이는 어젯밤의 꿈과 욕지기/ 속살깊이 달구어진 떡 돌 차고/물위에 오르면/ 욕망의 해초들이 함께 올라와 흐느적거린다/너를 향하여 욕망으로 일어서는 불 턱에서/ 물질을 끝낸 늙은 잠녀가 농 짓거리 한다/잘 들었시나 요년들아, 미역 소라 전복 씨도 중요하지만/씨 중의 씨는 불씨여/ 불 턱에 강알이나 따뜻하게 잘 건사하여사/쫓겨나

지 않는 법이여/ 무슨 씨던 씨 끊기면/ 끝이여 끝!//

-불턱, 문복주-

\*불턱: 제주에서 겨울철 잡녀들이 물질하고 나와 언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지펴 놓은 자리.

불턱에서 보리낭불, 깃낭불, 삭정이들 모아 놓고 해녀들이 둘러앉았다. 타오르는 불길로 둥그런 원을 그리며 대상군(大上軍) 어른, 상군(上軍), 중군(中軍) 어른들을 윗자리에 모신다. 물질의 기량에 따라 철저하게 군인처럼 지위와 명령의 순서가 있음을 작업이 끝난 후의 불턱에서 뒷 풀이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일종의 탈의실과 같은 구실을 하는 장소로서 불턱은 해녀들끼리의 공동체의식을 나눠 가지고 화톳불의 노변 잡기를 주고받는다. 공동작업을 통하여 해녀집단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인정받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고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선재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각박한 생활 속에서의 타인에 대한 배려도 익혀나갔다. 1970연대에 '고무 옷'이 등장하면서 불턱의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대상군, 상군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삶이 곧 사회생활임을 또한 습득하면서 제주 해녀들의 강인한 여성들끼리의 생활 방식을 갖게 된다. 몸으로 바다를 익히는 일은 십여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강하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길로 들어선다. 뒤통박 인생으로 살지만 자력으로 삶의 중심에서 떠오르고자하는 주변머리 없는 강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불턱에서 보리낭으로 불을 피워 잠시 몸을 녹이노라면 짠 바닷물도 다시 바다로 날아가고, 나날이 좋아지는 날렵한 잠수력도 인정을 받고, 바닷길을 오르내리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 몸이 축나지 않도록 하라는 여성들의 위계가 자리를 잡는다. 천장만장의 깊이로도 들어가서 작업한다는 얘기는 그들 사이의 전설이면서도 물질하는 것을 자랑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모두 현실의 가난을 온 몸으로 막고자한 경정 살아지는 섬 생활에, 그러저럭 살기를 거부한 해녀들인 셈이다. 뒤통박 불들고 바다 속을 캐지만 격량의 작업을 통하여 바람과 돌맹이로 가득 찬 돌렁이 밭에서 얻는 수확에다 자신의 힘을 신고자 했다. 그들의 집 마당에는 항상 전복 껍질, 소라 껍질, 미역 줄기들이 빨랫감처럼 너무 작하게 차지하고 있다. 갯내음으로 살림의 운 내는 그들은 물 구덕 지고 바다로 갈 때는 비로소 이 얘기 저 얘기 말들이 많다. 그들은 아마 유일하게 제주공간에서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에 속한다. 아마도 돈 버는 이야기, 전복 캐는 이야기, 사랑이야기... 불턱에 모여 앉은 해녀들에게로 이야기들이 날아든다, 따뜻한 보리 낭불 주위에서, 내일을 꿈꾼다. 바다를 보면서.....

억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비록 배 물질 나갔다 돌아오다가 축항에서 낳은 딸일망정 중학교 마당까지는 보내고 말쑤다던 각심 만큼이나 가슴이 아렸다. 을선이에게는 물질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다. 해녀의 대(代)를 물려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을선이 남매를 입학시키러 학교에 갔을 때 봤던 여 선생이나, 면사무소 남자 직원 틈에 끼어 앉아 있던 여직원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칠십여 가호의 귓마을에서는 딸을 국민학교에 보내는 집이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능력이 없어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아들을 고등학교, 대학에 보내는 집에서도 딸들은 대부분 집안살림의 밑천으로 삼으려했다. 그래서, 귓마을 사람들은 딸 부자가 알부자라고들 했다. 딸이 많으면 해녀가 많게 되고, 들녘에서의 일손도 많아지는 것이다.

- 표류하는 이어도, 고시흥-

남편 제사만큼은 제사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싶었다. 남편의 넋을 달래는 일은 곧 바다에 대한 치성이라 생각됐다. 용왕님을 위하는 일이라 믿었다. 남편의 뱃노래가 깔려 있는 뱃길을 닦는 일이었다. 그것은 억순이 자신이 물길을 닦는 일이라 생각했다. 남편 제삿날마다 제판도 없이 제사 상 앞에서 두 손 모아 비는 것도 그런 때문이었다. 동(東)의 바다 서(西)의 바다로 물 고개를 넘을 때 랑, 미역이며, 생복, 소라가 많다는 이어도로 데려다 줘서..... 남편의 뱃길이 바로 해저의 보물섬인 이어도로 통하는 길처럼 여겨졌다.

- 표류하는 이어도, 고시흥-

바다에서의 물질은 어느 곳에서도 쉬지가 않은 풍부한 생산을 거둘 수는 있지만 바다로의 나아감은 배를 이용하든 뒤옹박에 몸 하나를 달아매든, 한결 같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수확의 기쁨으로 사연도 많고 삶의 우여곡절도 출렁이는 파도만큼 생각나게 마련이지만 긴 호흡을 위한 물 속의 작업환경에서는 한 치의 욕심도 허락되고 있지 않음을 체득하는 것이 생을 이어가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바다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용왕님을 찾는다. 욕심 같아선 바다의 금은보화를 모두 가지고 나오고 싶지만 한시도 쉽 없이 변해 가는 바다의 세계는 한 치의 실수도 용서치 않음을 잘 알기에 억순이는 용왕님을 찾을 수밖에 없나보다. 결국 부자가 되게 해 달라고 바다에 대한 치성을 드리고 남편의 제사상을 치레하여 자신의 물길을 만들어 본다. 이어도에도 보물이 있을 것만

같다.

이어도는 해맑은 날에만 하늘과 수평선이 마주 붙은 사이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석 달은 좀처럼 구경하기가 힘들었다. 해녀들의 생명선을 끌고 다니는 뒤옹박 같은 섬이었다. 바람 부는 데로 떠다니다가 영등할망이 찾아와서 온갖 해산물의 씨앗을 제주 바다에 뿌리고 간 뒤에는, 어느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의 섬이었다. 미역이며 소라, 전복이 많은 보물섬이라 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가본 사람은 없다. 이어도를 찾아 나섰던 사람은 수없이 많으나 되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배를 타고 가면 갈수록 수평선 너머로 뒤 물러앉는 섬이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을 뿐이다.

- 표류하는 이어도, 고시홍-

남편을 바다로 보내고, 딸린 딸은 공부를 시켜서 공무원이나, 학교 여선생을 만들고 싶은 부러움에 억순이는 바다를 부지런히 들고난다. 제주 해녀다운 삶의 방법과 어떠한 고난에도 개의치 않고 깨끗하게 삶의 어떤 상황도 의지 하나로 극복할 수 있는 억순이에게도 이어도는 강하게 살아있다. 한 번 가면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그 곳엔 남편이 살고 있으리라고, 혹은 이 고단한 생활을 끝내게 해줄 보물섬이 저 바다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가장 절실한 기원은 다시 새로운 섬, 바로 이어도의 탄생인 것이다.

내 고향 오조리 봄은/ 바당 애기 혼자 / 집을 지킨다./얼마나 외로우면/ 소라껍질에 뿔이 돋는가/ 그 뿔에 / 송송/ 젓 부른 어미의 숨비질이 뜨는가/ 왜, 바당 애기는/ “아버지”란 소리 한 번 못 해봤는지/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반평생/ 호-이 호-이/ 숨비질 소리만 질긴 뜻을/ 말하지 마라// 제주도 사월 바람은 / 거슬러 날아오는 소리개의/발톱//돌 담 너머/수평선 꽃대 끝/ 그 이름은 아직도 숨을 죽인다//내 고향 오조리는/소라껍질 같은/가슴이 빈 사람들만/답답한 봄을 맞는다.//

-오조리의 노래, 강중훈-

팽이 돌리는 아이덜은/팽이 채 아상 올레로 지각호곡/자차기 호는 아이덜은/자막텅이 아상 신작을 왔다갔다/연 놀리는 아이들은/연꼴랑지 놀리멍/보리왓 가운데 이레 도락 저레 도락/생이 그물 노래 텅기는 아이덜은/가스레기낭 열음 타

아장/이 발 구석 저 발 구석 굵싹굵싹/뽕코 노래 땡기는 아이덜은/존 소낭발디  
 들어장 오상오상/비치 코 노래 땡기는 아이덜은/물총 코 논 구쟁기 깡물 아상  
 낭을 올른다/죽덧 노래 가는 아이덜은/쟁이 풀랑지 심영 이레착 저레착/쇠 물  
 뻘이레 가는 아이들은/들락귀는 쇠 똥고냥 뒤를 잘도나 쫓아감찌/대천바당 한가  
 운디/한라산은 저영도 높은디/제주라 저을 혼철/아이덜은 잘도나 논다./여도 여  
 도 여도 여도/아이덜은 잘도나 논다.//

-쟁이 풀랑지 심영, 김광협-

예전 아이들은 이렇듯 즐거웠다. 놀이 감이나 오락이 그리도 많았다. 그  
 래도 삶이 풍성하고 어린 시절이 넉넉하고 이야기 거리가 쏟아져 나옴은 웬 이  
 유일까? 始原을 간직한 들판을 뛰어서 일까? 제트 보트와 윈드서핑으로 온 바다  
 를 집안의 마당처럼 들락날락하는 이들에게도 정작 바다공간은 더 좁고 작은 것  
 이 되어버린다. 온 몸으로 경험한 자연공간이 한층 더 순수한 경험일까? 제주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곳은 모두가 놓쳐버린 지나온 옛날 들판의 추억 속에 살아있  
 었다. 어른들이 보냈던 어린 시절에 아이가 있던 자리가 곧 제주였었다. 삶에 있  
 어 적극적인 해녀들의 하루가 일반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지만 스스로는 모두가  
 떠나고 싶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작업공간으로 남아있다. 물으로 숨을 고르며  
 올라올 때마다의 진한 환희를 자신에 대한 긍지로 이어지지 않는 단순한 해산물  
 채취에서 머무르는 이유는 호구의 수단에서 그친 까닭이 아닐까. 잠녀들은 아이  
 들의 어머니이고 제주를 키우고 여성의 삶을 수평으로 확대시키는 숨 깊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바다에서 자신의 역할을 노다지처럼 캐낸 광부들이 아닌가?  
 엄마의 숨비소리가 살아난다, 아이들의 가슴속에서. 아이들이 놀이 공간에서 엄  
 마는 삶이 부드러워 지고 꿈을 갖는다. 한라산처럼 아이들을 품고 있다는 움직  
 이지 않는 산처럼 바다에 떠 오른 자신의 일터에서 산이 되고싶은 엄마의 꿈을  
 아이들에게서 캐어낸다.

엄마는/ 참 너른 터를 가졌다/바다에만 오면//동네선/제일 쪼끄만 집/발 뺨기  
 도 힘들지만//바다에만 오면/물 가르느 손놀림에/물결은 /슬땀 비끼어 가고/하  
 늘 향해 차올리는/까만 발길질/물새도 맴돌다 비껴 나는데/어제 보채던/비료  
 외상값/선반 위 놓인/학비 통지서/태왁 잡고/숨비소리로 쏟아 놓으면/금새/물  
 빛 더 푸르러지고//바다에만 오면/가슴 가득 막혔던/가난과 아픔/수컷 구멍 뚫

리듬 풀려 내리는/엄마의 숨비소리/엄마의 바다//

-엄마의 바다, 이소영-

제주아이들은/한로산 콤에서/몽생이처럼 크느네.//바닷가에 가는 아이들이나/  
웃뜨르에사는 아이들이나/섬 제주에 사는 아이들은/언제 어디서나/한로산을 뵈  
려보멍 크느네.//놀마다/할로산을 오르꼭/놀마다/한로산을 뵈려보멍/한로산이  
술찌기 고라주는/이악시를 들으멍 크는/제주의 아이들//한로산은/제주에서 태  
어난 아이들을/제주에서 크는 아이들을/섬 제주에 터잡앙 살아 갈/제주 사름으  
로 키우느네.//

-제주아이들, 김중두-

가다가 도라지 꽃밭을 만나거든/네 에미 아린 가슴인 줄 알아라/미녕적삼 몽당  
치마 하나로/그렇게 야윈 젊음이 울었느니//가다가 엉경퀴 밭을 만나거든/네  
에미 아픈 가슴일 줄 알아라/걸음마다 가시 돌아/그렇게 눈물지며 살았느니//  
가다가 고사리밭을 만나거든/네 에미 설운 가슴인 줄 알아라/꺾이어도 꺾이어도  
다시 돌아/그렇게 되살아나며 살았느니//

-에미의 노래, 김순아-

제주에서 살고 있는 아기들이 낮잠의 숨소리가 파도소리의 리듬으로 들  
고난다. 미래로 향하는 숨골로 향하는 듯, 점차 잔잔한 모래사장의 물결소리처럼  
편안해지며 수평으로 펼쳐진 공간 속으로 소리 없는 움직임이 되어 사라져간다.  
걱정을 다스린 듯 엄마의 마음에도 아기의 숨 길 따라 찾아온 평온히 바다 갈매  
기소리를 타고 날아 수평선 너머에서 잠시 머문다.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생활  
공간으로서의 '바다'의 공간을 살펴보았다. 무한의 공간으로 보여지는 곳에 삶을  
올려놓은 해녀들의 생활공간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온몸으로 바다를 익히고 길  
들인 생활공간인 숨막히는 바다 공간에서 그들은 삶의 의욕을 더욱 부추기며 의  
욕적인 삶을 꾸려왔다. 남성들의 활동 무대로 여겨지던 바다로 나아간 제주해녀  
들은 텃밭보다도 살가웁게 바다를 일궈낸다. 신체적 능력만큼 경제적 부유함이  
허락되는 바다를 접하면서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읽어낸다.  
살아 내야하는 생물학적 욕구와 가계를 책임져야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제주해녀  
들의 사회적 역할을 시인들은 다음과 같은 시어들로 대신 말한다. '무거운 짐,



우유 값, 섬, 운송청구서, 바람, 바다, 전복, 소라, 비바리, 바가지, 물살, 처녀, 바다, 갈매기, 해녀, 살림살이, 생명줄, 산신대왕, 서낭대왕, 전복, 칠성판, 세상 길, 바람, 영혼, 미역줄기, 4월, 촛대바위, 절벽, 쭉부쟁이, 그리움, 숨비질, 죽창, 순사, 세별 코지, 난파선, 해녀, 태왁, 빈터, 섬처녀, 누이, 바다, 호흡, 폐활량, 씨앗, 일출, 파도, 파도소리, 태풍'

제주시인들이 해녀들의 작업공간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서는 '소라껍질, 꿈속에 소망 뿌리에게, 해녀의 겨울, 이어도, 해녀의 손금, 날개 접은 아기장수, 해녀의 노래, 이어도, 해녀, 슬픈 해녀' 등이 있다.

## 9. 가서 살고 싶은 곳, 제주

제주문학 작품 속에는 섬과 바다 그리고 한라산의 영역 속에 포함되는 장소들이 있다. 외로운 섬, 떠나는 섬, 기다림의 섬, 테우에 아들, 딸 태우고 어멍 아방 건너온 바다와 수평으로 넓게 퍼진 바다로 삶의 공간을 펼쳐간 테우리들의 바다와의 관계는 앞으로 개척 가능한 공간으로 비쳐진다. 한 때 시원(始原)의 들판을 꽃밭, 꽃쇠들이 밟았던 한라산 능선은 제주 사람들의 호구를 위한 생산의 토지로, 척박하지만 추수를 일궈낸 생명 밭인 셈이다. 간절하게 달기를 소원하며 노력해야 캐 낼 수 있었던 바닷밭의 해산물처럼 토양이 주는 결실도 어멍 아방의 뼈 빠지는 노동을 필요로 했다. 애기 구덕을 산 담 귀퉁이에 그늘 찾아서 놓고, 촛불 검질, 두불 검질 뽑아야했던 제주의 어머니들처럼 돼지 먹이주기, 외양간의 소에 풀 주기는 모두 제주아이들 차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가서 살고 싶은 곳은 소년, 소녀였을 때의 풍요가 살아있는 곳, 그 기억 속의 제주. 도시 아파트의 편리함만큼 상대적으로 더 느리고 더욱 천천히 흘러가는 불편이 늘 함께 했던 과거 속의 장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장소에서 지금의 자신을 보내본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가득하게 가슴을 채워오는 풍족 감의 넘치는 공간. 그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경험이 이루지는 장소로써 중추적 역할을 한 곳들은 개개인의 정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들에게 친밀한 공간으로 남아있는 이미지는 곧 독자의 공감만큼 살아있는 장소로 확산되어 간다.

군마는 그의 화실인 다락방에 걸려있는 유일한 그림이다. 푸른 초원을 배경으로 반추상(半抽象)의 말떼가 갈기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모습이 흡사 카메라 초점을 잘못 맞춘 사진을 인화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생애에서 이처럼 웅장하고 역동적인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다. 완벽주의자인 민우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들인 그림이라도 북북 찢어버리고 어떤 때는 팔린 그림까지도 새로 그려 줄 테니까 돌려달라고 애걸한 일이 있지만 군마에 대해서는 군말이 일절 없었던 터이다. 그만치 이 그림에 대한 애착을 느꼈고 자신의 분신이라고 까지 말했었다. 중략.....나는 피식 웃고는 걷기 시작했다. 한 발자국 떼어놓는 발목에 천근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돌연 어디선가 자동차의 경적이 울렸고 그 경적은 말 울음소리로 바뀌었다. 히히힃!--! 갈기를 흔드는 말떼의 부르짖음이 귀청을 찢었다. 민우 아버지가 묻힌 그 골짜기에 메아리치던 조랑말들의 성난 외침이었다. 아버지가 잠든 그 땅 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신음 같은 군마의 울음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한라산의 들판을 휘저어 달리던 야생의 조랑말들이 지축을 박차며 후두두 후두두 나를 향해 물밀 듯 밀려오고 있었다.

- 군마도(軍馬圖), 장일홍-



바람 거친/牧胡의 들은 지난 간다./고려 말 외진 섬 耽羅를/아흔 아홉 해나 강점했던/몽고의 목호들 말달린다./시든 초록이 비루먹은 들판/오늘은 칠백 년 묵은 삭풍이 일어/오랜 채찍소리 지나간다.//흠날리던/젖은 풀씨/검은 땅 싹 튀우는데/아직오 뼈에 절은 피멍울이/잠자는 돌 흔들어 깨우는가./고원을 달리는 말발굽소리./재갈 물린 채/빈 수레를 덜컹거리며/언덕을 오르는 말울음으로/노란 해는/헤진 등어리에서 이글거리/진 팔에 박히는 발자국마다/흐르는 눈물./깊고 깊은 곳에서/불타는 채찍이 지나간다.//찢긴 상처에 피흘리며/역새꽃 핀 언덕에 서서/뿌연 들 바라본들 어찌하랴./절룩거리는 다리로 서서/두 눈 부릅뜨고/어둔 바다 노려본들 어찌하랴.//옛 햇빛은 이곳에 없어/우리들을 내리치던 목소리./그들이 흔들던 깃발도 쓰러지고/통째로 울부짖는 반란의 끝./필필 뛰는 목숨/꺾어지는 다리 사이/눈 가득히 채워오던/망망한 하늘.//돌아가지 못한다./멀리 멀리 떠나와서/못 볼 것들보고,/못할 짓들 겪고,/찢어진 가슴도 내버려두고서/밤마다 꿈은 바람 부는/牧胡의 들을 지나간다.//잇었던 말 발굽소리 울린다./

물결치는 바다 건너/구름 지는 산 넘어/불꽃 갈리 나부끼며/옛 말들이 달리는/

天山山脈의 푸른 들에/흰 눈이 내릴 때./활활 타는 채찍이 지나간다./핏빛 땀  
흘리며/天馬들이 달리는/길고 긴 강 위로/막막한 어둠이 덮일 때.//

-牧胡를 들을 지나며, 고영가-

산천단 검문소 가지 전/용암 들에 새겨진 五.一六道路/라는 명칭 대신에/이 시  
에서만큼은 성판악 도로/라고 부르고 싶다//복직하여 사 년 동안 넘어/가고 넘  
어오고 단풍들어/갓가지 꽃들이/마음을 놀랍게 했다가 차분히/했다가, 수시로  
山안개/나무들의 속내를 감추었다가 밝혀 놓았다가/눈 내리는 날 강아지 마냥  
들떠/넘어가다가 빙판길 한바퀴 돌아/동승한 동료들이 가정 이야기, 학교 이야  
기/차에서 내리면 잊혀지고 마는 시시한,/밤늦게 넘어오다 반짝이는 두 눈동자/  
때로는 한라산 노루가 봄풀을 /뜯는 성판악 도로//이제 그 추억 어린 성판악/  
도로를 넓혀야 한다/넓히지 말아야 한다//노쟁 속에/ 그 추억 그대로 남았으면 //

-성판악 도로의 추억, 김규중-

투기 향내음/ 예민한/ 바이러스성 철새들/ 항상 낮선 얼굴로 찾아와/ 논다//  
도둑없고/ 대문없고/ 거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옛이야기다//임종보다/ 더  
절박한 차량들/ 한정된 거리가 숨막히다//어디로 실종되어 가는가/ 산이 울고/  
바다가 울고/ 사투리가 울고 있다./

- 지금 제주는, 고병용-

한라산 나목들이 물오르는 소리가 장엄했던 지난 겨울, 단풍이 들어 갓가지 꽃  
으로 마음을 설레게 하던 가을, 푸른 파도처럼 파란 산바람을 신록의 그늘에서  
태양이 쉬고 가던 여름, 고풍적인 진달꽃이 산에서 피어오르던 봄날에도 추억  
속의 정원으로 살아나던 제주에 산이 울고 바다가 울고 사투리가 울고 있다. 성  
판악 도로를 '더 넓혀야 한다, 그래선 안 된다'를 논하는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한라산 이끼들이 바짝 말라 누렇게 떴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엽다고 한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 뜨거  
운 향수를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제주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내 곁  
에 다가설 때마다 제주의 정취를 한결 더 짙게 느끼곤 한다. 한·온대림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섬,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산사태 없는 천혜의 고장, 이 제주는  
섬 같은 대륙이요, 대륙 같은 섬이라고 가끔 이야기 해보기도 한다. [중략]

제주의 봄을 알리는 전령은 ‘논개’이다. 안개처럼 시야를 가리는 물방울의 모임도 아니요, 여우비처럼 내렸다 개였다 하는 변덕도 없다. 성미 급한 털보 영감처럼 사정없이 내려치는 장대비도 아니요, 인자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슴을 달래어 주듯 촉촉이 적셔주는 논개는 봄을 한층 더 재촉한다. [중략]

제주의 여름은 푸른 초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지루한 장마가 지나면 왕매미 울음소리가 녹음 사이로 더 짙게 들리어 온다. 태양이 열기도 차츰 기세를 부리기 시작한다. 따가운 햇볕 사이로 달려온 마파람이 들판에 이르자 회오리가 되어 초원을 스치면 풀을 뜯던 망아지가 놀라 들판을 달린다. [중략]

제주의 가을은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실리어온 가을 바람에 억새꽃들이 하나 둘씩 손을 펴는데서 시작된다. 담쟁이 덩굴너머로 손짓하듯 피어난 뽕송뽕송한 숨털이 부드럽게 보이는 억새꽃이지만, 험한 세파에 모질게 살아온 억순이 같이 몰아치는 폭풍우에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와 인내를 배우게 한다. 중략

겨울은 나에게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풍성한 가을의 향기를 한겨울 따스한 아랫목에서 맛볼 수 있으니 말이다. 미각을 돋구는 것들로야 봄날 입맛을 잃었을 때 냉이국도 한 몫 하지만 나에게서 겨울 입맛을 돋구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배추동국이다. [중략]

차가운 눈보라에도 꽃대를 밀어내는 정성과 분신의 열정으로 차디찬 겨울을 보내는 배추의 월동을 볼 때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의 우리네 어머니의 옛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제주의 사계(四季), 정윤택-

故郷에는 땅 속에 내린 어머니의 땀도 있다. 여름에 묻힌 땀들이 흙 속에 묻혀 지금쯤은 가을 한 철을 또 보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직 어머니의 한마디 말씀도 지키지 못한 불쌍한 녀도 많지만 어머니의 땀은 땅 속에서도 살아서 봄마다 풀잎을 지키고 섰다. 이 땅의 가난을 가난으로 알고 이 땅에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일. 죽어서는 몇 방울의 땀으로 땅 속에서 살아있는 일이 우리네의 사는 일. 이어도 하면 난 눈물이 난다. 내 온 몸 다 녹아서 바람 속에 녹아서 하늘과 맞닿은 저 끝자리에서 목울음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바닷물에 부서져 휘감기기도 하고 아주 부서져 보내도 보고, 하지만 내 가난한 마당 어느 귀퉁이에 감나무로 살아라 하늘 떠받고 멈춰선 저 반짝이는 잎 파리마다 그대 얼굴로 대하고 그대 마음으로 대하고 진정 서러운 날은 고향집 감나무 그늘에 앉아 그대, 떠나

지지 않는 나의 눈물로 대하기도 하고.

황혼이 오는 바다, 어둑어둑 바다에 드리우는 비양도 그림자 여운 . . . . .  
조석으로 고개 들면 쓸쓸히 미소짓는 비양도, 나는 그 섬에 유채 꽃이 피는 날  
을 영원해 본다. 꽃섬이 되고 관광이 이루어지면 누군가가 다리를 놓으려 할 것  
이다. 어찌 보면 편히 갈 수 있어 좋을 것 같지만 다리가 없는 섬이라야 한다.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가사처럼 마음대로 못 가는 안타까움이 내포된 “꿈의  
섬”이라야 한다. 쉽게 갈 수 있는 섬이 되어서는 희망이 깨어진다. 배를 타고 푸  
른 바다를 건너는 맛, 어렵게 어렵게 물보라를 맞으며 배를 타고 찾아가는 낭만,  
애틀한 사연들이 살아 숨쉬고 영원한 추억의 관광 꽃섬으로 남게 하자. 푸른 바  
다 위에 떠 있는 “고도의 섬” 그게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다.

-비양도와 유채꽃, 흥관옥-

오늘/이 육신 욕심 없이/파도에 맡기고 싶네//의기 양양한 운율이 가는/  
저기 저/파도에 맡기고 싶네//힘찬 파도에 떠 밀려가/갈매기 꿈꾸는 무명의 섬  
/등대이고 싶네//떼 묻는 아름다운/도시가 보이지 않는 그곳//자그만 어촌/  
만선으로 돌아오는 /가난한 어부의 깃발이고 싶네//

-꿈속에 소망 뿌리에게, 콧병용-

한반도에 태어났음에 제고장 사투리를 느끼거든/느직한 나이에 외롭게 빛나는  
눈물을 느끼거든/ 토장국 국물로 시달린 살림에 머리털이 희거든/ 아들 딸 노소  
를 건너 다녀들 가지게.// 산짐승들 한 바다로 돌린 높은 떼에서 울다가/ 목을  
축이려 올라가는 소잡한 길로 올라가면/ 일월을 두고 백설에 묻혔던 백록담 물  
들이/ 모여들면서 온갖 하소를 사방에 두르듯 풀어주리이다.

- 한라산 백록담, 김대현-

심란한 기분으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일제의 잔재들이란 꼭 보이는 것들 뿐  
만은 아니었다. 사람의 반 생애에 해당할 서른 여섯 해는 의식과 습관, 말에까지  
그림자를 남겨 놓고 있었다. 가령 우리가 매일 걸어다니는 시가지의 이름 칠성  
골(七星洞)은 서울 같으면 명동에 해당하는 장소인데, 일제 시대에 칠성통(通)이  
라고 자기들 식으로 고쳐 놓은 것을 우리는 아직도 쓰고 있었다. ,, 중략

그것들이 잔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 공범이기 때문이며, 잔재청산의

책임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 게으른 것도 죄였다. 나의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다. 고동치는 것이 있었다. 남아 있는 일체의 잔재들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듯 우리의 의식 속에, 땅거죽에 남아 있는 것들은 글로 써서 밝히자. 알리자, 그리고 그것들을 쓸어내고 닦는 운동을 펼치자.

-진혼아리랑, 오성찬-

나를 그대로 온전하게/가둘 수 있는 그 섬이 그림다//진노란 체념으로 넘치는/  
변시지 화백의 화폭에는 늘/배고픈 어제가 누룽지 색으로/으깨어져 있는 섬//  
바다를 향해 팔 벌린 키 낮은/소나무가 험벗은 귀향을 보듬고/말고삐에 이끌린  
알몸의 소년 하나/등 떠밀리는 벼랑,//그늘마다 음울한 콘트라스트가/유배의 녀  
을 바람으로 다스리면/사람이 없어도 그림자는 남고/빈 바다를 바라 흔드는 노  
란 함성,//물밀듯하는 을씨년스러움에도/웃음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섬,//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섬이 그림다.//

-나는 그대도 섬이 그림다, 김양수-

바람꽃 피는 섬에 와서/파도 빛 사랑으로 살고 싶었던 당신/바람이 쌓이는 절벽  
에 서서/그 바람을 꽃다발처럼 안고 싶었던 당신/이제 당신은 하늘을 이고 詩처  
럼 가고 없으니/떠나는 이의 눈물을 행복이라고 했던가/보내는 이의 아픔을 이  
별이라고 했던가/나는 차라리 바람꽃 피는 섬에 와서/마냥 섬이 되고 싶다//

-바람꽃 피는 섬, 채길웅-

제주 문인들이 가서 살고 싶은 곳으로서의 제주에는 ‘군마도’에서 들려오  
는 발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다. 대륙을 달리는 말떼들이 갈기 휘날리며 한  
라산 등마루를 오를 내렸을 웅대함이 숨쉬는 제주 초원을 그리며 태고의 장대함  
이 남아 있었으면 하는 곳. 수평선을 따라서 끝없이 달리고 싶은 어승생 오름의  
어승마가 자신의 발굽소리를 잊지 못하듯, 어승마로 남은 한 소년이 살고 있는  
땅. 하지만 ‘섬’이라서 잉태된 배고픔, 외로움, 그리움이 인간 본성의 하나인 채  
로 ‘섬’은 ‘섬’인 채로 ‘섬’이 되어 남아있는 곳, 濟州島.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미  
래의 공간으로 제시되는 작품으로는 시인들의 추억으로 재생된 공간이 된다. 도  
시나 토지는 어머니로 간주되며, 그것은 자양분을 제공한다. 즉, 장소는 정감 어  
린 기록의 저장고이며 현재의 영감을 주는 찬란한 업적이다. 또한 장소는 영속

적이며, 그리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어디에서나 우연과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은 안심시킨다.<sup>12)</sup>

미래의 공간으로서의 제주를 살펴볼 수 있는 시인들이 주로 사용한 중심시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시인의 고향, 돛박새, 감꽃, 한라산 횡단도로, 바다, 집어등, 감 꽃, 어머님, 누이야, 고향, 억새꽃, 제삿날, 할머니, 어머니, 죽은 년, 한라산, 굴거리나무, 이승, 파도소리, 심장, 산 수국, 매화, 매꽃, 사투리, 갈치국, 자리젓, 물새, 호박.’ 이 중심시어들이 만들어내는 시인들이 경험을 엮은 작품으로는, ‘생각, 나베시마 고려인의 영혼, 지금 제주는, 내 고향의 가을은, 오일장에서, 내 사랑 한림 향, 용두암, 牧胡의 들을 지나며, 히말라야, 관덕정, 송악산, 먼 타향에서, 방고애무, 추억, 시인향, 성산포 가는 길, 성판악 도로의 추억, 꿈속에 소망 뿌리에게, 나는 그대도 섬이 그림다, 섬섬, 유리네 집, 한라산 백록담, 바람꽃 피는 섬’ 등이 있다.



---

<sup>12)</sup> Tuan, Y. F.(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원문은 “The city or land is viewed as mother, and it nourishes; places is an archive of fond memories and splendid achievements that inspire the present; place is permanent and hence reassuring to man, who sees frailty in himself and chance and flux everywhere.

### Ⅲ. 결 론

섬 속에 무한히 넓은 대륙과 같은 공간을 갖기 위하여 문학의 시간공간과 장소공간을 살펴보았다. 제주도(濟州島)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산이 마을에 들어와 산다. 산은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먼 길을 떠난다. 제주도(濟州島)에서는 사람과 생물은 말하는 법이 서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은 한가지로 제주도(濟州島)에서 만들어진 눈과 귀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래서, 제주도(濟州島)에선 어딜 가나 바다를 끼고 삼백리 길을 오고 가도 크고 작은 산들이 제 식구를 알아보고 말없이 고갤 끄덕인다.

좁아지고 획일화되는 삶의 공간을 풍부하게 하는 활동은 장소의 친밀감과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의미 있는 삶을 찾아 자존(自存)하는데 도움을 준다. 삼다도라 알고 있는 제주도를 탐색해보았더니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은 환경과 어울려 그것들과 함께 어울려져 거칠고 황량하고 수고로운 노동의 공간에서 외롭고 고달프지만 끈끈하게 자신의 힘으로 서고자 하는 제주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생각 없이 모래처럼 산재한 돌맹이들을 한 손 한 손으로 굴려서 치우기도 하고 쌓아서 돌담도 이루고 집도 세우고 방사 탑에 기원도 담고 살았다. 동네마다 돌하르방을 세워 생활공간의 안녕은 기원하고 영등할망을 모셔다가 물질의 풍요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가파른 섬의 언덕바지가 곧 산의 다리자락에서 삶을 구체화하였다. 백록담을 향하여 동능, 서능, 남능, 북능을 가리지 않고 솟아오르는 공기의 움직임 느낄 수 있는 곳임과 동시에 발걸음 걸음마다 달그락거리는 돌맹이들이 밟히는 지표와 갖고 있는 장소이다. 그 돌맹이들이 내 발 네 발로 구분되는 담으로 올려지고 보리밭과 유채밭 사이의 빌레로 불모의 경작지로 남아있는 곳. 골갱이를 잡은 손끝에서 이리저리 옮겨진 돌맹이들 위로 바람과 함께 불려왔다 불려가기만 하는 화산회토 얇은 토양 자락에다 삶의 뿌리를 심어보려는 여자들을 붙들고 있는 돌밭. 해녀들의 호흡이 바다 속의 영장과 여 사이를 들고나는 숨비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검은 바위 바닷가. 한라산의 말테우리, 소테우두리 꽃자왈 빌레와 오르내리던 곳. 테우를 타고 지름바당 찾아서 파도를 탔다가 지는 해를 접어두고 포구를 향해 돌아와야 했던 곳. 풀이 큰 바람결 속에



서 골이 깊어진 파도 위를 넘나들면서 무엇을 찾아야만 했다. 무엇을 보았기에 바람따라 물길 따라 움직여야 했다.

제주의 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은 그 안에서 적응하는 인간을 제주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다. 바다와 땅이라는 사실만이 유일한 차이일 뿐 강한 자연적 환경에 전적으로 동화를 해야하는 삶의 현장은 한라산을 낀 채 화산회토를 가꾸고 오름과 고개를 넘으면서 거짓없이 수용해야만 하는 자연의 순리를 깨친 순박한 삶을 이루고 있었다. 바다의 숨비소리를 들으면서 언득언득 불어오는 바람에 삶의 희망을 찾아보고 한라산의 품에서 장수의 꿈을 키우듯,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에서 상고지를 꿈꾸면서 생활하는 인간을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는 제주섬과도 같은 파라다임을 갖는 또 하나의 섬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존적이다. 그리고 독립적이다. 또한 수용을 위한 배타성을 갖는다.

제주문인들은 그들의 모든 감각을 가지고 제주 공간을 채웠다. 바람을 타고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들려움을 인지하고 한라산 자락에서 오름의 테우리들과 함께 태워지던 양민들의 원통함이 제주사람들의 가슴에서 흐느적거리는 춤을 출 때 더 이상 역새, 바람, 바다, 섬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 그치지 않는다. 제주도는 제주 땅에서 삶을 일구어 온 제주 선민들의 투쟁한 삶의 결과이다. 물은 목마름에 의해서 배워지고 땅은 바다를 횡단하면서 가르쳐지는 것처럼 제주 문학의 작품을 통하여 제주도의 풍광을 느끼고 알게 되었다. 문인들의 정서적 체험과 함께 동반된 자연적 풍광이 제주사람들의 생활하는 공간을 설명해주었다. 해마다 가을이면 피어나 흔들며 제주들판을 지키는 풀꽃이 이제는 역새 춤속에서 일어서고자 하는 많은 제주인들의 한이 춤추고 있는 제주자연공간으로 보인다. 깊이 뿌리내린 나무에서 돌아난 나뭇잎에 머무른 바람이 단순한 산바람 바다바람에서 벗어나 제주역사공간에 등장하는 4월의 바람을 잊지 않게 되었다. 바다를 찾아 몰려오는 각 처의 피서인들 속에 함께 있지만 생활공간으로 인식되는 제주해녀들의 삶을 캐기 위해서 격랑의 바다를 수직으로 드나들었던 숨비소리가 깃들인 물결의 속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느껴진다. 제주해녀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울분과 격동이 현재에서도 살아남을 느끼며 점차 복잡해지고 개별 공간에서의 의미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들과의 공감을 자아내는 시각을 찾기 위해 우리가 닫고 있는 땅과 장소와 공간을 보았다. 포장풍선을 타고 수평선 너머로 바다를 경험하고자한 보제기들처럼 좁아지는 땅을 넓히고자하는 개척정신을 찾아보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의 제주도는 한때 유배지 혹은 변방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격리된 공간으로서 인지되어있는 제주를 지금은 변방을 찾아 방문지로 인식되는 장소로서의 제주를 문인들의 정서를 통하여 정리해보았다. 섬이 섬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들을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찾아 나섰다. 커다란 결실의 결과를 잉태하고 있는 조그만 씨앗과 같은 제주 땅에 뿌리내리기와 같은 정서를 찾아보았다.

제주 문학 작품 속에 표출된 제주의 장소와 공간은 자연환경이 근거가 되는 자연공간에 대한 인식에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삶을 엮은 역사공간, 생활공간, 활동공간, 작업공간, 동시에 미래공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바람 타는 섬에서 삶을 캐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공간은 일종의 공유공간 형식인 데 배해 제주 사람이하고자 인식의 뿌리를 갖고자 대천 바당 위에 자신의 몸이 떠오르기를 시도하는 인간의 공간은 사유의 공간형식인 거주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 제주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이 거주할 집에서 삶의 중심을 잡고자 했다.

대양에 뜬 한 점, 제주 섬에서 출발하여 사방 팔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머리 속에 그려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뻗어나갈 곳이 갑자기 트이는 시원감이 느껴진다. 이런 제주도의 위치에서 땅 위로, 바다 위로, 솟고자 하는 한라산의 기상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어디론가 불어가고자 하는 바람의 소원을 들려줄 이야기가 제주도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주의 지리적 상상력을 캐어보았다.

## 참고문헌

- 계인희(1991), "현대소설을 통해서 본 서울 근교의 도시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협(1984), 「김광협 제주민요시집: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태광문화사.
- 김석윤(1986),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 와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종두(2000), 「제주 방언시: 사는데 뒷 산디」, 영주문학사.
- 김종철(1995), 「오름나그네(제주도 기생화산 답사기)」, 높은오름.
- 김영화(1998), 「변방인의 세계: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화영(1992), "문학작품 속에 비친 제주인의 삶과 환경," 「濟州島研究」, 제9권, pp. 3-15
- 김혜숙(1996), "문학작품을 이용한 지리수업,"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무병(1999), "제주도 무속과 제주인의 종교심리," 「문화와 현실」, 제2호, pp. 17-38.
- 문순태(1983), 「유배지」, 어문각.
- 문충성(1981), 「섬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 문학과 지성사.
- 문충성(1986), 「내 손금에서 자라나는 무지개」, 문학과 지성사.
- 문충성(1988), 「떠나도 떠날 곳 없는 시대에」, 문학과 지성사.
- 민속학회(1996), 「우리 민속현장 답사기」, 태일출판사.
- 박태일(1994), "김영수의 시와 문학지리학," 「한국문학논총」, 제15집.
- 박우현(1997), 「나의 유럽문화 답사기」, 파피루스.
- 손명철 편역(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문화사.
- 송기호(1993), 「발해를 찾아서 : 만주, 연해주 답사기」, 도서출판 솔.
-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 심승희(2000), "문화관광의 대중화를 통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승희(2001),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토마스 하디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3권, pp. 67-84.

- 양진건(1993), 「그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 양현승(1987), “고향의 미학,” 「비평문학」, 제1집, pp. 177-105
- 이강은(1988), “빨치산의 문학적 형상화: 「남부군」, 이태 著, 「지리산 갈대꽃」, 오봉옥 著<書評>,” 「실천문학」, 제12권, pp. 443-451.
- 이경우(1984), “문학의 주제로서 지리공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목(1980),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대하여,” 「建築」, 제94권, pp. 54-57.
- 이규태(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신원출판사.
- 이기형(1987), 「시인의 고향」, 우일.
- 이석환·황기원(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제91권, pp. 169-184.
- 오성찬(1999), 「진혼 아리랑」, 답게.
- 오성찬(2000), 「죽은 장군의 증언」, 푸른사상사.
- 오성찬(2002), 「보제기는 밤에 떠난다」, 푸른사상사.
- 이은숙(1992), “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제4호, pp. 147-16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이은숙(1993), “문학작품 속에서 도시경관: 채만식의 탁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제5권, pp. 1-27.
- 이은숙(1995), “조선인 이민의 북간도 정착과정과 공간인지: 안수길의 북간도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제2권, pp. 1-15.
- 이은숙(1998), “1930년대 북간도 경관에 대한 조선 이민의 공간인지: 박계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0권, pp. 39-54.
- 이은숙(1999), “1930년대 북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이민의 공간이미지: 이민소설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34권, pp. 419-434.
- 이은숙·신명섭(2000), “한국인의 고향관: 그 지리학적 요인과 정서(ethos)의 관계,” 「대한지리학회지」, 제35권, pp. 401-426.
- 이푸 투안(1997), 구동희·심승희 역(1995), 「공간과 장소」, 대운.
- 임상운(1990), “고향공간 인지에 관한 연구: 경상도 농촌출신 대학생의 경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덕수(1978),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윤정(1995), “문학작품을 지리교육에 이용하기 위한 기초연구: 김정한의 소설을 사례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운현(1995), 「서울시내 일제유산 답사기」, 한울.
- 제만해(1994), “한국 현대시의 고향의식연구: 노천명, 이용악 시를 중심으로,” 「詩世界」.
- 제주국제협의회.제주시편(1999),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 제주국제협의회 총서 제 9집, 오름.
- 제주도문화자료총서 8 (2001), 「제주여성문화, 삶과 문화이야기」, 제주도.
- 제주문인협회 편(1993-1999), 「제주문학」, 제주문인협회.
- 제주문인협회 편(1996), 「제주도문학전집 I, II, III」, 제주문인협회.
- 제주문인협회 편(2002), 「제주문학」, 제주문인협회.
- 제주작가회의(1999-2000), 「제주작가」, 실천문학사.
- 제주작가회의(2001), 「4.3소설 선집: 깊은 적막의 끝」, 각.
- 조혜정(1988), “발전과 저발전: 제주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 지성사.
- 좌혜경(1995),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 진성기(1968), “남국의 민요,” 「제주민요총서」, 제3권, pp. 114-125.
-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1999), 「가서 살고 싶은 섬, 제주」, 디딤돌.
- 현기영(1979), 「順伊삼춘」, 창작과 비평사.
- 현기영(1983), 「변방에 우짖는 새」, 창작과 비평사.
- 현기영(1994), 「마지막 테우리」, 창작과 비평사.
- 현길언(1986), “제주전설과 제주 사람들의 삶의 양식,” 「제주문화의 재조명」, 일념.
- 현길언(1997), “제주학 연구 방법론, 문학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제14권, pp. 35-51
- 현용준(1992), “사라져가는 제주문화,” 한라일보사 주최, 「제주문화 살릴 길 없는가」 (12월 4일, 한라일보사 대회의실) 제주도문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히로시 도도로키(2000), 「(일본인의) 영남대로 답사기 : 옛지도 따라 옛길 걷기」, 한울.
- Entrikin, J. N.(1996), "Place and region 2,"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20, pp. 215-221.
- Gibson, E.(1970), "Understanding the subjective meaning of places," *Humanistic Geography*, pp.138-139.

- Relph, Edward(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Shortridge, J. R.(1991), "The concept of the place-defining novel in American popular culture," *Professional Geographer*, Vol. 43, pp. 280-91.
- Tuan, Y. F.(1970), "Literature and Geography: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Research," *Humanistic Geography*, pp. 194-205.
- Tuan, Y. F.(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Place and Space depicted in Jeju literature**

Kang, Chi-Young

Geograph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won, Sangcheol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the place and the space depicted in Jeju literature. This study traced the poet's thoughts of space and place on Jeju's surface in literature. Because the people in Jeju literature are constantly interacting with the place and the space of their habitat, the concepts of 'space' and 'place' are a way of thinking, of asking questions, of observing, and appreciating Jeju. In addition, the space and the place depicted in Jeju literature also give the tools we need to relate more meaningful to people from other lands and cultures except Jeju. This study, therefore, aimed to help people build emotional mental images of the space and place on Jeju's surface by using the literary tools.

The typical places and spaces depicted in Jeju literature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nature space in Jeju. The nature composed of environment, the sea, islands, and mountains lays the background in Jeju literature. Location is everything in Jeju. As an island, Jeju is absolutely regarded in a faraway place, an isolated land, and the outest area of th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Korean peninsular. The images of the place and the space depicted in Jeju literature are islands, winds, the sea, mountains, o-rums, Eyeodo, Mt. Halla etc. In what ways do poets attach meaning to and organize space and place in Jeju literature? Generally speaking, 'space' is more abstract than 'place.' Poets have an insider's view of human facts, a claim we cannot make with regard to other kinds of facts. The poets use humanistic insights to display the space and place in their works in conceptual frames of human's life. The readers should understand to interpret space and place as images of complex-often ambivalent-feelings denoting their languages. Poets in Jeju literature take a thought of Jeju as a risen land on the middle of the sea. They regard Jeju as a part of surface noticed the larger space under the sea. They think of the place from a distance. They also imagine winds blowing from the interior of the human mind through the wind from the sea, the sea to the mountain and changed days and nights. Poets in Jeju literature take a thought of Jeju people as a human being rowing somewhere by a ship. At same time, they describe Jeju as a village settled port where seamen would set out and come back. Second, it is the history space of Jeju. It is the space interpreted in a historical view. The space and the place depicted in Jeju literature are differently translated its meaning and importance in the change of history and culture. Recently, the position of Jeju is changing into the visiting place. In literature, Jeju has no speech for a long time. As a background or scenery, Jeju has a lot of winds, stones, and women. In their harmony with nature environment, they want to speak of the complete life of Jeju. Through 4.3 event, and trivial uprising events they wish to definition who are Jeju people. Furthermore, they try to set up the vision of the ever-lasting developing Jeju. There are the deprived, and the depriving, the dispossessed and the snatching, the driven, and stayed in the history of Jeju. And the history space depicted in Jeju literature has a painful grass and wind which is separately said one tragedy of all Jeju people to every passengers. Riding the restless winds, the one story is



said in the motion of the wind that it should be told in endless story to Jeju people in the future. Most of all, they should realize that they keep their nest steady as beings like a Jeju Island. Third, it is the art space of Jeju. This chapter helps us understand how artists feel about the space and the place of Jeju, taking the people's different mode experience from the others' into account. Arts in Jeju literature has accessed to states of mind, thought and feelings of people for a clear definition of flowing of life. In another viewpoint, to discover the space and place in Jeju literature can stimulate people's interest in geography and give them a basic understanding that lays the foundation for study in every life. They can then better organize and understand information about other people and events through the works of arts. They might find out a personality, which each place has only in Jeju. They focus on what makes a place special, basically has a lot of common? What are the physical and human characteristics of your hometown? Is the soil sandy or rocky? Is the temperature warm or is it cold? Did important historical events occur there? What physical characteristics are most important or unique? Places and spaces is an idea that people should adapt their environments for themselves. To interpret the subjective meaning places and spaces hold for us is clearly not an exercise in alluding to personal experience. It's a drawing space that it shows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in human life. The objections of emotion are a crow, a hackberry, a Sae-han-do (a picture), an angry bull. Fourth, it is the life space of Jeju. Here are tied space and place shown how people adjust to their environment depicted in Jeju literature. The life space of Jeju is shown the relationships among people and places of Jeju. The people in Jeju change and expand their environment to better suit their needs. Everyone controls his or her surroundings, but there are especially seamen and sea women in Jeju those who manage to control the life space. They cultivate the sea as if farmers use natural resources--soil, water, and sun-- to grow crops and livestock. That is how they adapt to their surroundings. The sea space

and place depicted in Jeju literature appear more important than those of the centers where biological needs, such as those for food, water, rest, and procreation, are satisfied. The sea circled the land is something important space for Jeju people from the older generations. Furthermore, they also respond the life space in somewhat complicated ways to develop themselves as a oversea-beings. The sea is the life space of Jeju seamen and Jeju dive-women. Taewoo(a kind of ship), and Taewak(a kind of dive-women's gourd) are the typical tool for stretching their life spaces. They usually learned their surrounding with their bodies. The space created by themselves is remained in the place that Jeju children are growing. They dream that their children could spread over the sea, to the space of openness and infiniteness in the future. In a short word, poets show in their works how they can invoke a sense of openness and infinitude over the ocean as Jeju. Fifth, it is the future space of Jeju. People don't always change their environment. Frequently, the environment changes the course of people's life. For instance, people change an island into a land, but they make an island just keep an island itself. The first space of infants is to explore their parents. The future space and place depicted in Jeju literature is the place that Jeju people want to live. The desirable place of Jeju is like that: the place where a outstanding sense of seasons tell us a lot of life story, the place where a senior Jeju people's life is melting in many respect, and the place where the thought and affection of what Jeju is could build up to the ever-lasting development.

This study is surely an individual effort to get more familiar identities of Jeju. Like growing a tree of the sense of the place, Jeju, we live in a space and a place with winds, stones, sea etc, which are basic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s of Jeju. In conclusion, the study is an attempt to achieve a more coherent statement of 'space' and 'place' with familiar words denoting common experiences discovered in Jeju literature.

## 부 록

### 제주 문학작품과 작품속에 등장한 중심시어

시 인	제 목	중 심 시 어
강금중	고사목열전	나무, 한라산, 동굴, 가마솥, 밥, 유채꽃,바람
	찔레꽃	수의, 무덤, 누이, 찔레꽃
	탕자의 눈물	어머니, 바다, 가을비, 동구, 명주실
강문신	마라도	누이, 바다, 마라도,
	입석리 산과바다	한라산, 바다, 수평선
	선돌마을	선돌, 서귀포, 어머니
	개간일기	억새, 아내, 바람,
	억새	바람, 새벽별, 물소리, 텃새소리
	유월, 어느인연	물안개, 배, 동백꽃
	어느 무녀의 노래	시인, 망부석
	소라껍질	소라껍질, 바다, 누이, 별, 달, 썰물, 밀물
	생각	바람술, 새알, 바다
	돌	돌, 세월
강방영	구월의 바람	콩밭, 고무마밭, 바람
	시월의 아침	노래,
	오월의 산	산
	과아란 바다 가운데	섬, 바다, 유채밭, 무덤, 작은 돌
	먼 산 앞 산	산, 뼈꾸기, 하늘, 땅
	작은 방 작은 씨앗	방, 씨알
	안개	안개, 나무, 당신
	배를 타고도	배, 바다, 날개, 하늘, 마음
	붉은 깨꽃	깨꽃, 장미, 풀벌레, 촛불, 어머니
강종완	기억의 잎새	꽃, 낙엽
	우울한 성산포	바닷가, 뱃전, 마음, 갈매기, 목선
	외로운 추신.2	꽃씨
	연가	은행잎, 빗방울,
	우기의 이별	비, 새
	애빼리.2	바닷물소리, 초저녁 별
	저울	저울, 무게, 추
	섬	그리움, 이슬, 마음

(계속)

강중훈	오조리의 노래	오조리, 소라껍질, 숨비질소리
	대나무 밭차롱 속의 나라	밭차롱, 초승달, 한라산, 4월
	기러기	하늘, 들국, 공동수돗가, 그리움
	불배	노을, 바다
	겨울밤	재봉틀, 싸락눈발, 누비질, 불빛, 대문, 바람
	절간 고구마	고구마, 돌밭, 칼날
	협죽도	7월, 밭, 백성, 골갱이, 땀
	나베시마 고려인의 영혼	장삼춤, 굿판
강통원	무적	제주바다, 잠녀, 자맥질, 꽃잎, 무등
	일요일	섬, 요람, 바닷가, 어부
	풍화작용.1	바람, 냇물, 대지
	동백꽃	동백꽃, 불빛, 햇살
	빛과 그늘 사이에서	상류, 하류, 나무, 풀, 꽃
	길을 가며	길, 산행
	겨울 사장에서	하류, 상류, 생명, 밀물, 썰물
	한라산의 눈꽃.1	꽃, 꽃밭, 겨울잠
	제주 억새꽃.1	억새, 눈빛
	제주 억새꽃.2	한라산, 깃발
	시인과 예언	언어, 시인, 예언
	새끼새 한 마리	새끼새
	세월.4	세월, 인간, 죽음
	바람과 억새꽃.1	바람, 날개, 억새, 새
	바람과 억새꽃.2	개벽, 제주도, 기상도, 억새꽃
	바람과 억새꽃.3	억새, 생명, 바람
고명호	올림	땅
	영농일기	거룻배, 바람, 밤
	난잎이 흔들리면.1	달빛
	난잎이 흔들리면.2	난
	굴 따는 날.1	땅, 별빛
	굴 따는 날.2	바람꽃
	굴 따는 날.3	텃새, 삭정이
	굴 따는 날.4	사람, 노을
굴 따는 날.5	신문만화, 광고	
고명용	한라산	어머니, 유채꽃, 누이, 흰사슴
	들녘	어머니, 노래, 노을
	유채꽃 맑은 날	산, 유채꽃
	지금 제주는	산, 바다, 사투리
	대천동 계곡의 피리새	피리새, 아내, 헌책, 술, 밤
억새꽃의 춤	춤, 가을, 억새꽃, 아내	

(계속)

고병용	꿈속에 소망 뿌리에게	파도, 등대, 어촌
고응삼	억새꽃의 춤	춤, 가을, 억새꽃, 아내
	꿈속에 소망 뿌리에게	파도, 등대, 어촌
	섬을 떠나야 섬이 보입니다	가파도, 마라도, 바다, 섬
	저녁 바다	바다, 노을, 동백
	갯마을	통발, 호박순, 자리회
	억새	잔뿌리, 바람, 바다, 낚, 억새
	한라산 매미	매미, 소, 말, 4월, 붉은 피
	내 사랑 한림항	추억, 파란추억, 흰파도
	용두암	용두암, 바위
고성기	바람으로라도 만나면	바람
	제주도 민요풀이(시집살이.1)	시집살이, 그믐달, 여심
	제주도 민요풀이(시집살이.2)	시집살이, 자갈밭
	제주도 민요풀이(시집살이.3)	시집살이, 귀양
고영기	해녀의 겨울	허벅, 태왁, 바람, 까마귀
	제주회파람새	바람, 회파람
	물들이 들어온다	바다, 빗물, 비, 폭풍
	벼랑의 새들	파도, 새, 태풍권, 불로초
	목호의 들을 지나며	바람, 탐라, 말, 말발굽소리
	히말라야	도깨비불, 독수리떼, 겨울잠
	말젓빛 바람	억새, 바람
	겨울여행	기러기, 북쪽산맥, 서릿발, 성에
	육식곤충의 눈알	육식곤충, 개미, 애벌레, 껍질
	동그라미	햇살, 당, 하늘, 이파리
	고응삼	관덕정
세밀 넝에서		바람, 꽃, 바다, 시계바늘
제주의 바람소리		바람, 삼다도
환상의 섬		바람, 돌, 구름, 섬, 한라산
수악계곡에서		숲, 개울물, 안개, 수석
산굼부리		억새, 산, 바다, 구름, 바람꽃
삼매봉 남성대		바다, 삼매봉
삼성혈 건시제		삼성혈
문주란 섬		토끼, 해녀, 파도
비자림에서		불로초
탐동 해변 공연장		파도, 풍물, 쌍고동
수선화		신화, 아픔, 노래
동백꽃		입춘, 아낙네, 꿀
조천 연복정		탐라도,북향, 단심, 충절, 귀향

(계속)

고응삼	김녕 만장골	공룡, 만장골
고정국	일출봉을 내려오며	섬, 신양리
	고추 익을 무렵	여름, 고추, 초가집, 담쟁이, 혼사
	강정천의 봄	강정천, 구름, 생수, 은어떼
	들짚레 피는 뜻은	보릿고개, 들꽃, 여인, 무덤, 들짚레
	염소	풀, 사할린, 흰꽃, 무덤, 칩뿌리, 질경이
	내 사랑 서귀포 바다	유자차, 바다, 동박새, 칠십리
	마라도 노을	섬, 어부, 수평선, 바다, 촛대
	가을 소묘.1	나무, 논, 밭, 하늘
	가을 소묘.2	가을날, 갈대, 조선땅, 슬픔
	한라산 빼꾸기	텃새, 4.3, 사투리
	겨울 반딧불	무태장어, 이슬, 빙판길
	비 오는 날의 역새발은	피고인, 머리카락, 새울음소리
	늦가을의 시	여론조사, 임시정부, 도장밥
고훈식	거북이의 무덤	할아버지, 손자, 영혼, 바다
	까마귀	밤, 태양, 까마귀
	정월 대보름의 꿈	오곡밥, 보리밥, 오매기떡
	이어도	바람, 눈물, 저승
	중년남자의 가을밤	풀벌레, 밤, 등대, 아기, 엄마
	춤추는 뱀장어	뱀장어, 해, 바다, 춤
권재효	섬아낙	비, 설거지, 바다, 하늘
	감나무	어머니, 손주, 감꽃
	너븐 밭에서	밭, 흙, 아버지, 씨앗, 보리
	돌아오는길	눈밭, 밭자국, 술, 여자, 들판
	깃발	바나나, 가게, 서귀포
	연	인사, 박수, 넥타이
	미루나무가 있는 풍경	대문, 미루나무, 배, 바람, 행기
	한라산에 올라	천지, 철쭉꽃
김공천	휴화산	휴화산
	고원의 가을	억새꽃
	한라의 바람소리	한라산, 물질노래, 바람
	스승님 가시고	억새꽃, 들소, 달력장, 목련
	제망매가	어머님, 아버님, 병, 무덤, 화장터
	간병기	저승길, 배, 아미타불, 고향산천
	내집	셋방살이, 새봄, 나무
	우수산조	보슬비
	봄은 산길로 오나	고향, 봄, 산길, 목련
	백목련	꿈, 동백꽃, 여인, 비
	산과 마주서서	산, 겨울, 아지랭이, 바람
	산수국	산수국, 이슬, 낙조

(계속)

김공천	협죽도	천지, 꽃, 소나기, 불꽃	
	가을밤	달, 구름, 산, 술타령	
김광렬	별	별, 죄, 대답	
	가을의 시	가을밤, 외로움	
	서신	바람, 편지, 자유, 억새	
	달	옹달샘, 할머니, 바람, 피	
	1월에	눈,한라산, 찻집	
	어머니	어머니, 달빛, 고향, 눈물	
	성산포에서.1	어머니, 꽃, 노래, 들, 바다	
	개꽃	개꽃, 어머니, 빛	
	제주도	제주도, 피, 고름, 박토, 재	
	동백꽃	4.3, 핏물, 산, 세월, 울음	
	피뿌리꽃.1	오름,피, 꽃망울, 영혼	
	시원	노파, 아이, 아버지, 핏자국, 총탄, 시체	
김광협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돌하르방, 제주섬	
	대통령에게	꽃, 물, 독수리	
	머슴살이 삼년 살다 보니	제사, 명절, 머슴, 달, 해, 고구마범벅	
	유채꽃 피는 마을	소년, 유자꽃, 바다, 갈매기	
	천지연	천지연, 대양, 소년	
	깨르륵 동녕바치	누이, 시집가는날, 동녕바치	
	강설기	바람, 숲, 일월, 유치과	
	빙하를 위한 시	빙하	
	수선화	수선화, 눈, 바다	
	질경이 풀	질경이풀, 조모님	
	부모님	농사꾼, 흙, 비바람, 햇살, 이슬	
	누이 전	누이, 술, 콜드크림	
	농사꾼	논배미	
	바람	바람	
	창호지	창호지, 산, 물, 조국	
	황소와 탱크	황소, 황토, 황구, 노랑, 탱크, 핏빛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땅, 산, 바람, 인정	
	월라산 진달래꽃	진달래꽃, 파도소리	
	국어	국어, 밤, 방랑자	
	할미꽃.도라지꽃 꺾이다.1	할미꽃, 도라지, 정신대	
	불멸할 성군의 그늘 아래	4.19, 허깨비, 주검	
	김규중	파도	파도, 섬, 말미잘, 파래, 모래알갱이
		안개	바다, 안개, 해안선, 섬
파도에게.2		파도, 돌	
섬을 위하여		바람, 억새풀, 시	
어머니.1		섬, 어선, 파도소리	
수평선		수평선, 무인도, 해변	

(계속)

김규중	그대에게.1	새벽, 가슴
	그대에게.2	어둠, 계단, 불
	감귤원.1	해직세월, 풀꽃, 책걸상, 교실, 씨앗
	신업중학교	달, 바람, 조각배
김대현	섬그늘	땀, 산, 노처녀, 등지, 알
	산거	감귤, 물허벅, 바람, 달, 그림자, 바다
	물허벅	방울새, 하늘, 구름, 고향, 섬그늘, 바람
	나의 동산	
	푸른 숲 푸른 달빛	숲, 달빛
	서실	가을, 겨울, 여름
	연	꿈, 정오, 연
	거울	칼날, 거울, 사랑, 비밀
	한라산백록담	사투리, 토장국
	보리수	달, 빛, 보리수
	어머니	어머니, 귀, 윤희
	삼살강아지	삼살강아지, 동치미
	솔소리	솔소리
김상옥	가로등	어둠, 빗줄기
	별초	무덤, 풀
	마라도	섬
	아내에게	자식, 구름, 별
	이승의 주막에서	비, 나그네, 주막
	나무	허울
	밝은 뜰	눈송이, 뜰
	물	물
	좋은 그림	그림, 바다
김석교	장마.1	기차놀이, 장마
	장마.2	우산, 토막집
	장마.3	주낙, 멸치배, 통발
	장마.4	비, 새, 소낙비
	장마.5	벌레, 아이들
	장마.6	피, 얼음장
	남수각일기(새벽을기다리며)	남수간
	남수각일기(봄의 독백)	물가
	남수각일기(젊은 어머니에게)	장마철, 악다구니, 생선, 포장집
김성수	오로 섬겨올나기	두더지
	바다라 한다	바다

(계속)



김성수	어승생오름	수평선, 바다, 말발굽소리
	그 섬의 각	등짐, 오름, 수평선, 불턱
	돌하르방	입추, 시신, 죽장, 벌초
	초낭동산	아기, 생낭, 아비
	여	바람, 해원, 갈매기
	섬	소식, 오리
	세한도 너머로	전설, 해송
	산그늘	산
김수열	땅끝에서	땅끝, 산길
	너를 부른다	마흔두살, 한열이, 윤삼아, 한라
	부끄러움에 대하여	친구, 분노, 사월, 동백꽃
	관광용 자리젓	관광용자리젓, 보리낭
	정심방	심방
	열사여! 불화살이여!	남도, 눈물, 피, 동지, 열사
	성임이	미장원, 시다
	너희들과 더불어 나는 믿는다	교사, 학교, 만남
	나의 어머니	어머니, 전교조
	복직하던 날	학교
김순남	미악산	미악산, 산딸기
	동백꽃	동백꽃
	가로수의 수난을 보며	유채꽃, 동백꽃
	바람으로 오는 어떤 신화	바람, 바다, 4월
	돌담	돌담, 삼촌
	구린돌을 가면	구린굴, 아들
	시들지 않는 꽃	유채꽃, 사월, 바람
	먹돌은 더 이상 수석이 아니야	먹돌, 숨비소리, 조팜
	노천에서 죽어간 사람들	해병담, 가족감태
	수악교 노천 카페	안개, 수악교, 사투리
김순이	제주바다는 소리쳐 올 때 이름답다	제주바다, 소금기, 바람
	신들의 고향 제주도	바람, 풀빛, 제주도
	대포해안에서	대포해안, 신
	야행.가을	조랑말, 가을, 억새꽃, 초승달
	한라산.1	산, 하늬바람, 오백나한, 들꽃
	한라산.5	한라산, 산, 하늘

(계속)

김순이	제주 수선화.2	어머니, 수선화, 사투리
	탑바리 전설	4.3, 탑바리
	교래 들판을 지나며	교래, 바람, 조랑말떼
	그대는 시인	들길, 들꽃, 시인, 바다
	마흔살.1	마른미역, 소금기, 바다
	발을 씻으며	발, 나도풍란
	영경퀴꽃	영경퀴꽃, 가시, 사랑유채꽃
김양수	나는 그래도 섬이 그림다	섬, 소년, 바다
	여의도에 짐을 풀고	여의도, 영경퀴
	아 내	아내, 돌, 물살
	버드나무 꽃	버드나무꽃, 지문, 속살
	아파트를 마주하고	아파트
김영홍	겨울비	나무, 冬天
	가을산	산, 노을
	12月の 詩	새, 물살, 바람, 캘린더, 뱃길
	고 독	섬, 가오리연
	산을 오르며	산등성
	노을	산, 섬, 구름, 하늘
	들국화	人家, 가을
	감나무	누님, 고향길
김용길	봄의 마을 西歸浦	바다, 서귀포구(西歸浦口)
	한라산 노루	전설, 새, 白鹿潭
	버려진 섬을 위하여	섬, 바다, 바윗덩이, 알몸, 물살
	섬의 뿌리를 찾아서	배, 濟州
	가을 숲 속에서	숲, 냇가, 산자락
	파도의 울음	泡沫
	철죽꽃	오름, 노루, 제주섬
	바다 낚시	낚시
	죽음의 江	강물, 江邊
	꽃뱀 가는 길	이승, 바람, 꽃문신
	혼 적	臥病中
	풀꽃	풀꽃, 향기
김용해	얻을수록 귀함이 되게 하소서	再生
	제주도를 노래한 시집	故郷, 어머니, 천제연, 중문리
	제주4.3을 노래한 시집	4.3일, 친구, 억새, 아버지, 풀
김원옥	그리움에 나라에서	無學
	산문에 들면서	山門, 바다

(계속)

김원옥	비에 젖던 그날	비, 새
	개나리 꽃	유년의 봄
	눈물의 블루스	눈물
	백련암 근처	산, 물
	첫 눈	제주들판, 눈
김원옥	까치밥	바람소리
	정월	동구밖, 설까마귀
김정자	송악산	송악산
	천국	천국, 황토길, 구름
	유리네 집	배추, 호박, 풋고추, 갈치국
	섬 섬	섬섬, 물새
	민오름 오르며	민오름
	오일장에서	오일장
	차 한잔의 삽화	저녁상, 찻잔
	내 고향의 가을은	바다
김지연	추억 속에서	억새꽃, 도깨비불
	나이테는 푸르다	나이테, 할머니
	윤고산	윤고산, 어부, 낚시줄
	뿌리에 관하여	앵두술, 하늘
	꿈을 향하여	비너스
	완성된 구도	포즈, 대리석
김철수	낮달	낮달
	석양으로 걸어가든 푸른발자국	노래, 지구본, 손톱
	오월의 제주바람	제주바람, 오월
	흐르는 섬	섬, 바람
	탑동의 가로수	탑동, 오름
	오름.1	오름
	오름.4	오름
	다량쉬오름	오름
	사월의끝	사월
	가을소묘.1	노형벌
김희철	제2횡단도로	한밭교, 비양도
	가을 텃밭	텃밭
	외할머니	외할머니
	탑동	해일, 태풍
	우루과이라운드	억새, 바람
	한림항	한림항
	산록도로를 달리며	갈매기, 중앙선, 도로, 안개
	가로등	가로등, 바다, 떠나는 배
성산포	성산포, 일출봉	
등산	등산, 한라산, 백록담	

(계속)

나기철	우기	비, 제주바다
	수수밭	청천강, 수수밭, 비행기
	우리 집은	청천강, 우리집
	제주해녀	청천강
	나의 본적	청천강, 원주
	화북에서	청천강
	영등포	청천강
	성산아리랑	청천강
	협죽도를 바라보며	청천강, 누이
	매미	청천강, 제주바다
섬.1	청천강	
문무병	생활일기	제주땅, 이웃, 아내
	내 영혼은 빗소리에 떠밀려와서	빗소리, 창가, 새, 거울
	영개올림	가족묘지
	낙서록	국민학교, 고등학교, 선생
	자기 땅에 유배된 사람	땅, 성읍목장
	김 선생의 빗더미	빗더미, 막노동, 참교육
	질치기	질치기, 바람길, 자왈곶, 저승문
	까마귀	까마귀, 거육대, 새
첫눈 오는 날	첫눈	
문복주	돌하르방	돌하르방 중앙도서관
	테우	제주바다
	갈옷	갈옷, 섬사람
	애기구덕	애기구덕,
	태왁	태왁, 숨비소리
	물허벅	물허벅
	돛통	돛통, 곤밥, 도새기
	불턱	불턱
	고광	고광
밭담	밭담, 돌	
문상금	봄날, 절망에게	기다림
	새	새
	갈대	갈대
	겨울나무.1	겨울나무
	겨울나무.2	침묵, 나무
	상여.1	저승꽃
	꽃뱀	감자꽃, 녹슨 종
산까마귀	산까마귀	
문태길	마라도 등대	배, 섬, 수평선, 마라도, 등대지기
	파도	파도, 유채밭, 바다
	갈옷	밀감꽃

(계속)

문태길	진달래	진달래, 꿈, 봄비
	상사바위	상사병
	아지랑이	목소리, 사랑
	유채꽃사랑	사월, 할머니, 소녀
	산사에서	석불
	매화	매화, 꿈
	정방폭포	정방폭포, 벼랑, 폭포, 연꽃송이
	나의 시	시
박경선	바둑사설	설자리, 바닷가
	수석원	수석원, 돌
	일출봉	일출봉, 성산포
	어승생 설화	어승생
	수악계곡	수악계곡
	무수천	무수천, 억새
	안덕의 동백	동백
	한란	한라산, 한란
	청자	청자
	바위에 부처	바위
	겨울 산	가을비, 가랑비
	가을비	노을
	소망	콩각지, 동백
	자매	오솔길
	오솔길	어머니, 한산모시
	모정	눈물, 구천
	눈물	바람, 불꽃, 햇살
변중태	르네 지라르와 함께 간 백록담	바람
	가을바다	가을바다, 포수, 감성돔
	벤자민 고무나무를 소재로한 이별가	벤자민, 고향, 수액
	겨울우화	겨울, 시, 개날, 연어
	오조리 아침바다	오조리, 바닷가
	병원에서	병원, 죽음, 사랑, 이별
	그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절망	가로등, 영장류
	중앙로에 뜬 낫달	중앙로, 낫달, 커피숍
	좁은 방	좁은방, 꿈
	사랑은 있거나 없다	바다, 골목길
서안나	가슴이 아프다란 생각을 하는 동안	어머니, 뼈, 생선, 눈물
	고등어는 현재진행형으로 익어간다	고등어, 현재진행형, 연기
	소래 포구에서	소래포구, 첫사랑
	사랑니처럼	사랑니
	머리칼이 길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	머리칼, 갈비뼈
아침의 이야기	화장품, 스타킹, 샤넬5	

(계속)

서안나	단상	빛소리	
	봄날 오후3시의 환상은	오후3시, 노인, 뱀허물	
손미희	바둑	백돌이, 포석, 바둑판	
	엘로우카드	소포, 엘로우카드, 연탄불	
	가을행간	단풍	
	춘몽	비발디의 봄, 아지랑이	
	재즈카페	루즈, 장밋빛인생	
	장마	장마, 비, 호흡, 폐활량, 첼로, 씨앗	
신승행	일출별곡	일출, 섬	
	허수아비	허수아비	
	섬아이들	모래성, 섬, 여름, 밤등대	
	영실단풍	전설, 가을바람	
	요지경	섬	
	가로등	가로등, 빌딩	
	빈터.1	공간, 빈터, 잡초	
	실종	숨소리, 걸음	
	광복 50년	광복50년, 독도, 실어증	
	비바리새	비바리새, 섬처녀, 누이, 바다	
	양영길	신열	신열, 분신, 깃털
		진눈깨비	진눈깨비, 종려나무, 바다, 겨울하늘
설일		목탄열차, 고향, 초가집, 눈물	
유배지에서		추사관, 모슬포, 세한도, 단산	
청동화로를 닦으면서		청동화로	
바람개비 또는 팽이		유배지, 바람개비, 편지	
여름 또는 겨울		추사관, 소나무	
연날리기		연, 동박새, 수평선	
마라도.5		마라도, 눈물, 달빛, 집어등	
감꽃		감꽃, 어머니, 누이야, 고향	
등꽃이 피는 밤		등꽃, 밤	
대보름 밤에 창문을 열고		대보름, 정낭, 울담, 바다	
산길을 달리다가.1		한라산, 굴거리나무, 이승	
산을 오르면		산, 파도소리, 심장, 산수국	
매화가 피어날 때		매화	
양전형		오라동 매꽃	매꽃
		서울 까부기	서울, 까마귀
	김노인의 대한	대한, 억새밭, 숲송아지	
	밤에 우는 벌레 소리	밤벌레, 얼음덩이	
	돌풍 이는 날	돌풍, 배암, 오동잎, 인동꽃	
양중해	쓰고 싶은 시	유서, 시	
	호선	호선, 무지개, 거리, 반원	
	연	인연, 열레, 자유, 허공	

(계속)

양중해	낮달	낮달
	협죽도	협죽도, 소나기
	거목송	바람, 거목, 폭풍우
	진달래	진달래, 산, 골짜구니, 두견새
	구름	구름
	충혼묘지	묘지, 고향
	고향	굴꽃
	모친상	곤, 봉분, 영정
	초가	겨울, 제주도
	보리피리	시골, 보리피리, 누님
	마라도	갈매기, 밀물, 썰물
	돌하르방	돌하르방, 행인, 골동품, 신혼부부
	한라별곡	한라산, 사투리, 새, 짐승
	폐허에 서서	마을, 집
	낡은 군복의 우차부	군복
	기우제 축문	기우제, 농민
	엄영자	제주한란
새벽에 바다에 나가면		바다, 만선
관조의눈		난, 돌보기
방풍림		방풍림
솔바람		정자, 구름
첫눈		첫눈
하산		산, 오솔길
호주머니 속 깊은 동행자들		동전, 지폐, 호주머니
오승철	겨울 굴밭	나뭇잎, 무덤가
	위미리 소고.4	장끼, 산, 어머니, 콩밭, 눈
	섬동백	동백꽃, 섬
	개닭이	바다, 장끼
	인동초	인동초, 장끼울음
	별	시인, 시, 별
	고추잠자리.1	고추잠자리, 동그라미
	고추잠자리.2	고추잠자리, 노루, 아버지, 노루
	고추잠자리.3	고추잠자리, 바람, 냇가
	고추잠자리.4	고추잠자리, 휴전선
	고추잠자리.5	고추잠자리, 십자가
	고추잠자리.6	고추잠자리, 지붕
	고추잠자리.7	고추잠자리, 풀잎, 마른풀잎
	고추잠자리.8	고추잠자리, 제주바람, 화석
오영호	한라산정.1	철쭉, 노루, 안개
	한라산정.2	연산홍, 솔피, 오미자, 다래
	한라산정.3	한라산정

(계속)

오영호	한라산정.4	한라산정, 백록담
	오늘도 고향 초가엔	고향, 달구지, 초가, 4월, 안개피
	연화촌 난설	한라산
	4월 유채꽃 피는 사연	4월, 유채꽃잎, 죽창, 젓무덤
	순례자의 꿈	비둘기, 일기
	굴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있다	감굴나무, 텃새, 굴밭
	관음사운	법화경, 목탁소리, 해탈문
	억새꽃 들판에서	장끼
	고향소묘	산, 학, 돌하르방, 염주알
	성냥개비	성냥개비, 불씨, 4각, 재
도라전망대	진달래꽃	
오용수	개똥밭에도 이슬은 내린다	4월3일, 짙레꽃, 개똥밭, 한라산
오추자	저녁상을 차리며	저녁상, 행주, 마침표
	그 겨울	새, 겨울
	동백꽃	동백꽃, 눈매, 추억
	분재	낙락장송
	숲에서	배경, 하늘
	화려한 봄의 어지러움증	봄, 아지랑이
	인형극	불, 통곡
	바다, 그 불면의	버스, 배, 바다
	눈	눈, 눈물
	거울 앞에서	얼굴
바다	바다, 물	
유영매	부질없는 시.2	눈, 춤
	이어도인지	이어도, 굴꽃, 5월
	짙레, 그 꽃잎은 바람에 지고	짙레, 뼈꾸기
	사랑	눈짓
	열병을 앓으며	사랑
	낙엽이 하나	낙엽
	짙레꽃	짙레꽃
	미로	안개, 미로
내 가슴에 불을 밝히고	별, 풀꽃	
유재순	바다	바다
	오월	유채꽃잎, 새, 동화
	언덕 위의 하얀 집	해바라기, 그리움
윤봉택	제주 바람	숨비질, 바람
	바람 부는 섬	섬, 물살
	바람.6	바람
	보리밭 길	보리밭
	농부에게도 그리움이 있다.2	논
	강정포구	강정포구

(계속)



윤봉택	억새꽃.1	섬, 바람, 마을
	억새꽃.3	하늬바람, 그리움
	4.3별곡	조카, 축산이, 죽창, 순사
	세별코지	세별코지, 난파선, 해녀, 태왁
윤희중	그대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특종, 기자, 졸부
	하늘만 보면 웃음이 나온다	공자, 하늘, 정치꾼
	발가락이 시려	동해38휴게소, 공출
	한홍식당	막국수집, 새댁
	소작농 장서방	민초, 소작농
	공동묘지	공동묘지
	어디쯤 갔니	공동묘지
	병어리 귀먹는 이치	병어리
	수악교 부부	한라산, 수악교, 영남사투리
	겨울비	겨울비
이영숙	유리창.1	바람, 구름, 피
	유리창.2	들숨, 날숨
	유리창.3	빼꾸기 시계소리, 비누거품
	이끼	뿌리, 흙씨, 원사체
	외투 속의 뼈	여우털, 근육, 뼈
	아십니까	사금파리
	낙엽.1	가을
이용상	인연	염주알, 연꽃
	설날	소나무, 불심,봉분, 범주자
	아버님의 속리산	달, 파도소리,난, 팽나무
	조선 초가	장삿일,
	신촌 큰물	눈썹
	세월	돌, 생나무, 교래리
	돌을 잃고 나서	새, 동일의원, 천명
	눈오는 밤	무덤, 친구
	무덤 앞을 지나다가	동강, 촛불, 추억
이인식	다시 또 영성에 와서	산행, 창, 하늘, 백학봉
	불일폭포를 가다	폭포
	흐느낀 폭포처럼	폭포, 가을꽃
	청개구리	한라산 청개구리
	풀무의 노래	풀무, 무쇠날
	징	징
	귀뚜라미	귀뚜라미
	어머님 무덤에 핀 두견화	두견화, 치맛자락
	고비 사랑 캐던 사랑	한라산, 추억
	가파도	산방, 낙조
	비자림	평대리, 비단옷

(계속)

이인식	항과두리	탐라국
	천지연 폭포	사슴, 병풍, 칠십리
	허벅, 그 사랑 말씀이	허벅, 아가씨, 망사리
	일출봉	성산, 영주섬
	겨울 마라도 환상곡	갈매기섬, 마라도
	유채꽃 필 무렵	한라산, 유채꽃, 비바리
	강월헌에서	돌거북이, 벼랑, 달빛
	평의 박제사	산평, 무덤
이춘자	바다	바다
	시월나무	한라산 횡단도로, 단풍, 시월
	백두산천지	천지, 통일곡조
	안개 속에서	안개, 열병
	내 유년의 갯마을	갯마을
	유자 하나가	유자
	몽골로 가는 작은 선물	몽고군, 삼별초
	어머니의 바다	어머니, 소금기, 기도
	자작나무 숲길을 지나며	자작나무숲이야기
박물관에서	시간의 박제	
전달문	섬의 입김	소녀, 춘삼월
	석비	전설, 천년, 비
	이국풍정.1	스페시, 이탈리아, 멕시코, 차이니스
	두 개의 바다	바다, 소섬, 산타모니카
	꿈과 사랑과 바람의 시	전설, 가슴, 바다, 꿈, 사랑, 오얏꽃
	망향유가	이어도, 육지
	캘리포니아 봄비	누이의 눈물
	버드나무집	원고지, 버드나무집
정수환	삼다도	삼다도, 바람, 돌맹이, 고향, 비바리
	해녀	해녀
	칠십리 사설	불노초, 범섬, 문섬, 섬섬
	광돌	광돌, 돌
	낚시	우두봉, 우도
	돌할망	돌할망, 법환동
	콩잎 씹	조팝, 보리밥, 풀냄새, 된장
	억새꽃	아내, 할머니
	연극	배우, 관객, 연습, 겨울
	세월	새, 실뱀
	아내를 위한 단장	바늘과 실, 목련꽃
인연	아내, 용서하는 법	
정태무	고향생각	꽃동산
	탐라섬	탐라섬
	탐라송	탐라송, 해조음, 이어도, 달

(계속)

정태무	한라산	철쭉, 영산, 삼신단
	정방폭포	정방폭포, 동남동녀
	산방굴사	삼방굴사
	관덕정	관덕정
	영실기암	영실기암, 설문대할망, 오백장군
	성산일출	성산일출
	탐동 해변	탐동해변, 방파제
	해녀	바다, 고래, 테왁, 이여도
	산	삼천지, 산, 핏줄
상사화	상사화	
진성기	나침반	나침반, 뱃길
	추억	할머니, 심방
	회갑	조상, 당주
	옛고향에 가서	할머니, 억새
	들국화처럼	들국화, 가을
	장기	장군명군
채길웅	바람꽃 피는 섬	바람꽃, 섬, 시
	천지연 폭포 앞에서	천지연
	그대는	달빛, 별빛, 바다, 산
	유채꽃	보리홍년, 갯바위. 미역줄기, 4월
	쫄대바위 앞에서	쫄대바위
	제주섬을 돌다보면	바다
	섬이 되어	섬, 조약돌
	절 벽	절벽, 쭈부쟁이
	정방폭포 앞에서	정방폭포
관계	바람, 꽃향기, 파도	
한기팔	서귀포.2	서귀포, 바람, 파도소리, 편지
	불을 지피며.1	돌, 별빛
	미나리강 건너	꽃대궁, 무덤가, 빗소리
	고근산.2	고근산, 바람, 풀잎
	안경알을 닦으며	안경알, 귀
	햇볕 잘 드는 날의 시	바람, 햇볕
	저문 산.2	새
	귀뚜라미	귀뚜라미
	바람 앞에서.1	바람, 흰빛
	겨울 일기.1	수평선, 죽음
	겨울 일기.2	겨울들판
	햇볕 고운 날의 시	꽃, 하늘, 그대
	먼 바다 푸른 섬 하나	바다, 눈물, 섬, 수평선
	먼산바라보기.1	구름, 바람
한라산.3	4.3, 산, 화약냄새	

(계속)

한기팔	제주 유도화.2	유도화, 바다, 수평선, 꿈
	보목리 사람들	보목리
	하얀길	겨울, 눈송이, 어둠
허영선	추억처럼 나의 자유는	오랑캐꽃, 소금기
	풀잎이 풀잎에게	통화, 바람, 안개
	칸나를 위하여	목숨, 피, 섬
	다시 칸나에게	강, 눈물, 햇살, 심장, 바람
	망가지는 것들을 위하여	바다, 하늘, 해, 꽃, 불씨
	흔들림에 대하여	바람, 사랑
	흙을 위한 노래	배추겉, 싸락눈, 수국, 흙바람
	성산포가는 길	성산포
	무밭을 지나며	주인, 콩밭, 들길, 불길,
	오백나한.1	산, 영혼
	세월	유도화, 바람, 추억,
	변방일기	안보이는 섬, 땅버섯, 마음밭,
	호미로 그 눈물을 누르고 싶다	가시낭숲, 할머니, 호미, 현무암
	1993년 오월, 고할머니	밭고랑, 나물밭, 오월, 할머니,
	가시의 추억	생선, 잔기침
허은호	하역	서귀포, 무거운 짐,우유값
	섬을 위하여	섬, 운송임청구서
	섬은 아들을 낳고	섬, 아들 중앙도서관
	바람을 인정하며	바람, 삶, 사랑, 행복
	아침마중	고혈압, 어제, 약, 약봉지
	노동이 잠든 머리말에	노동, 밀감, 한림부두
	계	계, 바다, 하늘, 발자국, 바람, 밥, 국
	동백마을	한림부두, 양어장, 동백
	서른두 살.4	한림부두, 운송단가, 갈매기
	서른 두살(보리밭에서)	5월 하역, 새
현경희	갈옷	감꽃, 넉넉함, 눈물
	미풍	미풍
	호박꽃	호박꽃, 설문대할망
	콩삶는날	할머니, 자청비, 4.3, 몽당치마
현승준	새 숲에만 사는 게 아니다	새, 숲, 사냥꾼, 종달새, 참새
	우리 아버지는 농군이셨다	바다, 보리밭, 산새, 여객선
	비 오는 날은 말랑말랑한 빵을	최진실, 빵, 사냥꾼, 도심
	달마와 오류 선생에 대한 상징의 의미	배고픔, 보고픔, 사과, 4월
	그녀는 지금 외출중	소설, 외출, 고양이, 바다
	변비	마태복음, 비행기, 육망
현춘식	별초길에서.1	팔월절, 혈육, 조상, 명절
	별초길에서.2	까마귀, 묘비명
	유배지로 가는 바람	유배지일번지, 대정골, 귀양

(계속)

현춘식	해녀의 손금	손금, 세상길, 전복, 칠성판, 무적
	날개접은 아기장수.2	아기장수, 해, 가슴속무덤
	서우젓소리.1	수심방, 산신대왕, 서낭대왕
	서우젓소리.2	김매기, 신, 잡귀
	서우젓소리.3	멀치풍년, 도깨비, 물항, 테우
홍성은	섬억새 겨울나기	화산도, 유배지, 연복정, 하늬바람
	나비	전생, 날개, 꽃잎, 무희
	어어도, 낮은 불빛은 타오르고	성산포, 한림항, 반딧불,
	피사체로 나왔은 가을	억새꽃, 광입자, 머리칼
	숨은꽃을 찾아서	오일장꽃저자, 휘파람새, 한라산
	화산도 빼꾸기	4월, 빼꾸기, 환청
	동굴의꿈	동굴, 어음2리, 들썰레, 화산도
강관순	해녀의 노래	해녀, 살림살이, 생명줄, 바다
김명식	새 봄	봄, 바람, 새, 나비, 사랑
	비는 노래	벼루, 먹, 붓,
김문준	농부가	농부가
김병현	바다의 사색	바다, 갈매기,
김이옥	이어도	이어도
	해녀.1	바다, 전복, 소라, 비바리
	해녀.2	휘파람, 파도, 바가지
	슬픈해녀	물살, 처녀, 한숨
	나의 노스탈지어	보리, 조밥, 돌멩이,
	먼 타향에서	고향, 고향사람
	방고애무	고향, 별레소리, 파도소리
김지원	화산의 노래	화산
	허무의 왕국	왕국
신동식	제주도	제주도
이영복	추억	산, 밭, 할멈, 새,
	회누	입맞춤
	우울	바람
최길두	애빈의 농자	농부
	시인향	시인의 고향
	폐허	이어도

## 감사의 글

때때로 참으로 미안한 곳에는 '감사하다'고, 참으로 감사하다고 해야 할 곳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독단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본다. 사실 내게 있어서 그 둘의 관계는 '무의식'과 '의식'만큼이나 이질적이면서도 동일하다. 그 둘은 서로 세련되지 못한 채로 영겨져서 의식의 바닥저변에 덩어리로 존재하는 나를 나로 만드는 정서의 공간이다. 항상 내게는 미안한 것과 감사한 것은 한 가지였고 지금도 온통 죄송하다는 느낌으로 많이 다가온다. 그것이 나의 감사함의 색깔이다.

세기말의 정서로 온통 20세기의 인간들을 흔들어 놓을 때 지리교육의 문을 들어선 행운에 감사드린다. 그 흔들거림의 걱정만큼 두 발을 딛고 선 자리가 얼마나 든든한 지표인가를 보게 하고 그 얼마나 무한한 정서를 품고 있는 자신의 마음 발이 대지와 관계되어 놓여있는가를 보여주신 지리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역지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잊지 않는 것,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있는 곳을 향한 조그만 행동을 할 줄 아는 것이 살아가는 것임을, 논문으로서의 틀과 논문의 깔끔함이 갖추어지도록 진지하게 지도해주신 권상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 무엇보다도, 문학지리의 방향으로 논문의 길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신 손명철 교수님, 제주의 답사를 통한 감동의 자연지리의 영역을 접근해주신 김태호 교수님, '해민정신'의 제주도 사람들이 곧 우리들임을 깨닫게 해주신 송성대 교수님께, 어둠 속에 켜졌던 강의실 불빛처럼 학문적 발전과 건강이 빛나기를 기원함으로 그 동안의 감사를 대신합니다. 사실 그 무엇이든 다 아우를 수 없는 수학 동기들의 향학의 열정에, 낭만과 성실함으로 강의 시간을 다 태워냈던 오영심 선생님, 라영숙선생님, 오동현선생님, 변정숙선생님께 서로의 지켜봄으로 많은 성숙을 이루자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하고자 한다. 무엇을 붙들고 허둥거리야 하는 지가 가장 큰 고민이 었을 때의 제주 도서관 향토자료실에 계시는 박신흥 선생님께는 무슨 말로 감사를 대신해야하는 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내게는 아무래도 감사하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 엄마의 시간을 위해서 열려해대는 창현과 소현, 냉정한 지켜봄으로 언제나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는 남편에게 그 복잡한 삶 가운데 설 수 있는 참 소중한 시간 이었다는 말로 감사를 대신하고,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나를 늘 물어주신 고행자 선생님께, 그리고 늘 미안함으로 남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함으로 감사를 대신하고자 한다.